


6-1-2001

**평신도 상담자 훈련모형에 관한 일 연구: 한밀교회를 중심으로**

Soo Myung Shim 심수명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심수명, "평신도 상담자 훈련모형에 관한 일 연구: 한밀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MODEL OF LAY COUNSELOR TRAINING PROGRA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AN MIL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SOO MYUNG SH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Yea Sun Eum Kim

---

Jeong Kii Min

---

Seyoon Kim

June 1, 2001

**A MODEL OF LAY COUNSELOR TRAINING PROGRA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AN MIL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OO MYUNG SHIM**

JUNE 2001

평신도 상담자 훈련 모형에 관한 일 연구  
-한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엄예선 교수

심 수 명

2001년 6월

## ABSTRACT

A Model of Lay Counselor Training Program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 Mil Presbyterian Church-

Soo Myung Shim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develop a concrete counseling training program for lay counselors and to examine its practical validity. Today many Christians are distressed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in the complicated society. They also have felt difficulties to get the proper help from the church members or the pastors. This paper introduces a training program model for the lay counselor to Korean churches and demonstrates its application to the individual church.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chapter 1) discusses the purpose, the scope, the limitations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The second part (chapters 2-8) develops our main theses. In chapters 2-4, we focus on the theoretical aspects of lay counseling: chapter 2 deals with the necessity of lay counseling, while chapters 3 and 4 address the theolog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counseling in the Korean churches respectively; chapters 5-8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lay counseling. The main concern of this part is to verify the practical validity of lay counseling program. In chapter 5, the lay counseling in the Korean churches and other countries are addressed, while chapter 6 gives a special attention to the lay counseling ministry in Hanmil Church. Chapter 7 analyzes in detail the ten-week lay counseling program of Hanmil Church in detail. Chapter 8 discuss the statistical validity of the program. The statistical data well attest its validity and effectiveness especially in the communication skill, the empathic verbal response, and the CTPQ (Counselor Training Program Questionnaire).

The third part (chapter 9) consequently concludes that the lay people can counsel effectively if they are properly trained. It is also to be recognized that the follow-up study for the lay counseling is strongly demand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lay counseling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Yea Sun E. Kim Ph.D.

Jeong Kii Min Ph.D.

Se Yoon Kim Ph.D.

## 감사의 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린다. 주님은 영육 간에 비천한 나를 존귀하고 존엄하며 비전 있는 인생으로 회복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사랑과 인격적인 삶에 대해 고민한지 30여 년, 내 사랑과 생명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지 20여 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신학공부를 시작한지 18년, 주님과 따뜻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지 17년, 전인적인 삶의 통합과 치유를 위해 목회 상담을 공부한지 12년 만에 목회 상담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니 더욱 책임 있는 삶을 자각하게 된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잊을 수 없다. 풀러 신학교에서 나의 학문적 깊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엄예선 교수님. 교수님은 신학과 상담에 있어서 이론과 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엄격하면서도 섬세하게 지도해주셨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는지 참으로 가슴에 깊은 감사가 맺힌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주신 김세윤 교수님의 탁월한 학문적 안목과 인격적인 지도를 통해 학자의 면모를 배우게 되어 늘 머리숙여 존경을 드린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논문을 성실하게 검토해주신 민종기 교수님, 늘 곁에서 지켜보시며 격려해 주시는 한성열 교수님, 내게 상담가의 모습을 새겨주신 심상권 박사님, 상담가의 자상함과 넉넉함을 보여주신 이종현 박사님, 상담과 가정 사역 분야에서 임상적 적용의 탁월한 모델이신 고병인 교수님, 가정 사역을 임상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기가연의 송길원 소장님과 한가연의 추부길 소장님,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풀러 신학교 박사원의 부원장이신 김태석 목사님, 그 외에도 신학과 상담의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넉넉한 가슴으로 나를 후원하는 사

랑하는 아내, 나의 생명인 자연이와 수연이에게서 늘 힘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준 상담실의 유근준 간사님과 여혜경 집사님께 감사하고 늘 나의 일에 헌신해 주는 김선경 전도사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의 목회의 협력자인 당회원들과 교역자들, 간사들, 목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감사한다. 내가 한밀의 목사임을 늘 감사하며 이들이 나의 자랑이다.

2001년 6월 심수명



# 목 차

ABSTRACT .....	ii
감사의 글 .....	i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
제 3 절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 .....	5
 제 2 장 평신도 상담 사역의 필요성 .....	 7
제 1 절 개인의 위기 .....	7
1. 영적 위기 .....	7
2. 관계의 위기 .....	9
3. 병든 사회 구조 및 생태계의 파괴 .....	10
제 2 절 가정의 위기 .....	11
1. 가부장적 권위주의 .....	11
2. 정서적 미분화 .....	12
3. 역기능 가정 .....	14
제 3 절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 .....	15
1. 이혼율의 증가 .....	15
2.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의 문제 증가 .....	15
3.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 .....	16
 제 3 장 평신도 상담 사역 .....	 18
제 1 절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배경 .....	18
1. 평신도 신학 .....	18

2.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배경 .....	19
제 2 절 평신도 상담 사역 .....	21
1. 평신도 상담 사역의 정의 및 효율성 .....	21
2. 평신도 상담과 일반 상담 .....	22
3. 평신도 상담 사역 .....	23
제 3 절 평신도 상담자 .....	25
1. 평신도 상담자의 정의 .....	25
2. 평신도 상담자의 자질 .....	26
3. 평신도 상담자 훈련의 중요성 .....	27
제 4 장 평신도 상담의 한국적 배경 .....	30
제 1 절 한국적 삶의 특성 .....	30
1. 한국인의 한 .....	30
2. 한국인의 가족관 .....	32
제 2 절 한국적 상담 문화 .....	33
1. 상담과 문화의 관련성 .....	33
2. 한국 문화와 상담 .....	34
제 3 절 한국적 평신도 상담의 시도 .....	35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35
2. 한국적 상담 이론의 실태 .....	37
제 5 장 평신도 상담 사역의 현황 .....	42
제 1 절 외국의 현황 .....	42
1. 체리 크릭 장로 교회(미국) .....	42
2. 몬트리올 민중 교회(캐나다) .....	43
3. 노쓰 파크 커뮤니티 채플(영국) .....	44
제 2 절 한국의 현황 .....	44
1. 영락 교회 .....	45

2. 사랑의 교회 .....	47
3. 여의도 순복음 교회 .....	48
4. 온누리 교회 .....	49
제 3 절 평신도 상담 사역에 대한 평가 .....	51
 제 6 장 한밀 교회의 평신도 상담 사역 .....	53
제 1 절 상담 사역의 과정 .....	53
1. 상담 사역의 터닥기(1990-1996년) .....	35
2. 상담 사역의 활성화기(1996년-1999년) .....	55
제 2 절 평신도 상담자 양성 .....	58
1. 평신도 상담자 훈련 과정 .....	58
2. 5학기 훈련 과정 안내 .....	59
제 3 절 한밀 교회 상담 사역의 의의 .....	61
 제 7 장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	64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 .....	64
1. 목적 .....	64
2. 과정 .....	64
3. 선행 연구 .....	66
제 2 절 프로그램 내용 .....	73
1. 1회: 평신도 상담의 기본 개념 .....	74
2. 2회: 평신도 상담의 과정과 실제 .....	91
3. 3회: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기초 및 원리 .....	100
4. 4회: 성경적 상담과 인지 행동 치료 .....	107
5. 5회: 경청 훈련 .....	116
6. 6회: 감정 표현 훈련 .....	121
7. 7회: 공감 훈련 .....	128
8. 8회 : 자기 개방(self-disclosure) .....	131

9. 9회: 직면 훈련 .....	141
10. 10회: 위탁과 슈퍼 비전 .....	148
 제 8 장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158
제 1 절 연구 방법 .....	158
1. 연구 대상 .....	158
2. 연구 절차 .....	158
3. 측정 도구 .....	159
4. 자료 처리 .....	161
제 2 절 연구 결과 및 해석 .....	161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교 .....	161
2.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	163
3.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의사 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	163
4.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공감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효과 .....	165
5.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효과 .....	166
6.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대한 전체 평가서 .....	167
제 3 절 논의 및 제한점 .....	169
 제 9 장 결 론 .....	173
 부록 1 .....	177
부록 2 .....	179
부록 3 .....	181
부록 4 .....	182
부록 5 .....	183
부록 6 .....	184
부록 7 .....	186
부록 8 .....	188

부록 9 .....	191
부록 10 .....	192
부록 11 .....	194
 참 고 문 헌 .....	 195
 VITA .....	 202

## 표 목 차

〈표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비교 .....	36
〈표 2〉 상담 프로그램 .....	45
〈표 3〉 사랑의 교회 가정 사역 프로그램 .....	47
〈표 4〉 여의도 순복음 교회 상담국의 주요 업무 .....	48
〈표 5〉 강의 내용 .....	50
〈표 6〉 교회별 평신도 상담자 현황 .....	51
〈표 7〉 초기 상담 사역 프로그램 .....	53
〈표 8〉 상담 이론 강의 내용 .....	55
〈표 9〉 가정 사역 프로그램 .....	55
〈표 10〉 한밀 아카데미 프로그램 .....	56
〈표 11〉 평신도 상담자 훈련 내용 .....	59
〈표 12〉 한밀 교회의 NCD 진단 결과 .....	62
〈표 13〉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정 .....	65
〈표 14〉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	72
〈표 15〉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	74
〈표 16〉 기독교적 인간관 .....	89
〈표 17〉 상담 이해 질문지 .....	92
〈표 18〉 지금-여기 원리 .....	106
〈표 19〉 효과적 피드백과 비효과적 피드백 .....	108
〈표 20〉 신념의 차이 .....	112
〈표 21〉 인지 행동과 성경적 상담 비교 .....	114
〈표 22〉 성경적 상담의 9단계의 실제 .....	116
〈표 23〉 위탁 기관 .....	153
〈표 24〉 성별 비교 .....	161
〈표 25〉 나이별 비교 .....	161

〈표 26〉 학력별 비교 .....	161
〈표 27〉 생활 수준 비교 .....	161
〈표 28〉 세례받은 시기 .....	162
〈표 29〉 집단간 차이 비교 .....	162
〈표 30〉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	163
〈표 31〉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	163
〈표 32〉 의사 소통 능력 점수의 공변량 분석 .....	164
〈표 33〉 공감적 언어 표현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	165
〈표 34〉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의 공변량 분석 .....	165
〈표 35〉 상담자 평가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	166
〈표 36〉 상담 평가 질문 전체의 공변량 분석 .....	167
〈표 37〉 상담자 평가의 하위 요소의 집단간 평균 비교 .....	167
〈표 38〉 공변량 분석 .....	168
〈표 39〉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대한 전체 평가서 .....	170
〈표 40〉 카커프의 척도와 신경일 연구 척도의 비교 .....	174

## 그림 목 차

〈그림 1〉 이탈, 분화, 그물화 .....	13
〈그림 2〉 서구인의 self와 한국인의 관계와 맥락 속의 self .....	39
〈그림 3〉 기술 형성을 위한 훈련 절차(Tindall 등, 1985) .....	9
〈그림 4〉 A-B-C-D-E 모형 .....	110
〈그림 5〉 사고의 수준 .....	111
〈그림 6〉 정확 및 부정확한 공감에 의한 진행 .....	131
〈그림 7〉 조하리의 창(The Johari Window) .....	138
〈그림 8〉 의사 소통 능력의 집단별 사전, 사후 변화 .....	163
〈그림 9〉 공감적 언어 표현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 변화 .....	165
〈그림 10〉 상담자 평가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 변화 .....	166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목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요 3:16),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고난받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선물하시려는 것이다.

인간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렘 2:13) 비극 속에 살고 있으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목회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며 목회 상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이다. 둘째, 현대 목회 상담은 고독, 절망, 의심, 회의, 슬픔, 시기, 폭력, 가난, 질병, 불화, 범죄 등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도와서 이러한 고통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현대 목회 상담은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도와 나가는 동안에,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발견해 나가도록 도와 준다. 넷째, 현대 목회 상담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sup>1)</sup>

결국 목회 상담은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해후를 통한 새 삶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 상담 사역은 이제 더이상 목회자만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아니며 전체 교회 인구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의 참여를 결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평신도의 상담자로서의 소명과 역할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성경적인 요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은 평신도가 자신을 목회자와 다름없는 소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들과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성경적인 상담 훈련 및 기술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이들을 잘 준비된 상담자로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도우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담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많은 목사와 평신도들은 평신도 상담 사역이 적절한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평신도 상담이 단순히 세상의 심리학을 “기독교 사역”으로 포장하여 교회 뒷문으로 들어오는 수단이 아닌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평신도 상담 사역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전에 마땅히 검토해 보아야 할 당연한 우려이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 사역은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근거 위에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 상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신도 상담에 참여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어야 한다.<sup>2)</sup>

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점에서도 평신도 상담은 전문가 상담 못지 않게 효과가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요셉 듀락(Joseph Durlak)은 준전문가나 일반인 상담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만큼 효과적이며 어떤 때는 전문가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대학생이나 성인이 제시한 특정한 목표 문제에 관한 상담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결론 맺었다. 그

1) C. W. Brister,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오성춘 역 (서울: 홍성사, 1989), 9-11.

2)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편집부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9), 24-25.

의 평론이 출판된 이래 스트럽(Strupp)과 해들리(Hadly)는 밴더빌트(Vanderbilt) 연구 보고서에서 훈련받지 않은 대학 교수가 신경증에 걸린 대학생들을 돕는 일을 전문 치료사만큼 잘 해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듀락의 발견과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다.<sup>3)</sup> 제롬 프랭크(Jerome Frank)도 “인간적 온화함과 상식, 인간의 문제에 대한 약간의 민감성, 도와주려는 열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sup>4)</sup>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인 또는 준전문 상담자의 효율성을 명백히 지지하는 연구 자료와 그러한 자료의 해석에 대한 토론 및 반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sup>5)</sup> 브리검 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의 심리학자 게리 버링게임(Gary Burlingame)과 샬리 바로우(Sally Barlow)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인도한 집단 치료의 내담자들은 대기 중인 통제 집단에 속한 내담자들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6개월의 추후 지도 후에는 전문가가 본 내담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나아진 반면에, 비전문가가 본 사람들은 더 나빠졌다고 보고함으로써 전문 치료사들이 일반인 또는 준전문가에 비해서 더 효율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인 또는 준전문가들이 전문 상담자들만큼 효과적이라는 결론으로 여전히 연구 자료의 무게가 기울고 있다.<sup>6)</sup>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일반 동료 상담에 대한 요구 및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실정이고 동료 상담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심을 둔 연구도 매우 드물다. 더구나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 상담을 기반으로 일반 상담 이론을 통합한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평신도들을 위한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중 과학적 검증을 거친 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적 기반을 바탕으로 훈련받은 평신도 상담자를 교회 안팎에서 사역의 주체로 세우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이 상담가의 자질과 상담 기술 습득에

3) J. A. Durlak,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ara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86 (1979), 80-92.

4) J. D. Frank, *Persuasion and Healing* (2nd ed.; New York: Schockenbooks, 1974), 167.

5)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69.

6) Ibid., 71-72.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일반 동료 상담의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공감적 반응이나 의사 소통 능력 이외에 탄상양(Tan, Siang-Yang)이 개발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counselor training program questionnaire-CTPQ)를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평가 과정은 평신도 상담자 훈련 및 기초적인 상담 실습자 훈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교회 현장에서 99퍼센트나 되는 평신도의 상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훈련 과정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본 논문은 평신도를 훈련시켜 상담자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평신도들이 피차 서로 돌아보는 자로서 상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신학적, 상담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의 평신도 상담 사역 현황에 대한 자료와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한밀 교회의 상담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효과적인 평신도 상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논문은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논문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범위 그리고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2장에서는 평신도 상담 사역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인들에게는 상담 사역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어서 교회 내에서도 상담 사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평신도 사역과 평신도 상담 사역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 연구할 것이며 평신도 상담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을 비교해가면서 자세히 논술하려고 한다.

4장은 평신도 상담의 한국적 배경을 연구하려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떠나 살 수 없으므로 한국적 삶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본 후, 한국적

상담 문화를 상담과 문화의 관련성을 토대로 한국적 상담 이론의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평신도 상담 사역의 현황으로써 평신도 상담자를 양성하여 사역하고 있는 외국 교회들에 대해 먼저 소개한 후 이어서 국내의 평신도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형 교회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평신도 상담 사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한밀 교회의 평신도 상담 사역을 소개할 것이다. 그 내용은 상담 사역의 과정, 평신도 상담자 훈련 과정 그리고 한밀 교회 상담 사역의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7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다룰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및 과정을 소개하고 선행 연구로는 일반 심리학계에서 연구되어온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외국의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개발한 10회의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8장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의사 소통 능력 검사,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 그리고 상담자 평가 질문지를 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사전, 사후 검사 차이를 t검증하여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논의 및 제한점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후 평가 요인으로서의 적절성, 평가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논의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하려 한다.

### 제 3 절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

많은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역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재 평신도 상담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상담 목회 분야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화, 실용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평신도를 통한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상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생겨 실제로 평신도 목회 상담을 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밀 교회의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신도 상담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의 시행은 평신도 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최초로 평신도들을 위한 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 검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소개한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공감적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그리고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훈련 대상자가 한밀 교회의 청장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신도 상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여러 교회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밀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

7)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the State of the Art", Christian Counseling Today, vol. 7, no. 2 (1999), 32.

## 제 2 장

### 평신도 상담 사역의 필요성

교회 안의 성도들의 문제는 다양하다. 나이, 직업, 성격, 생활 수준, 영적 배경 등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개인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상담 사역이 필요하며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신도 상담자들의 사역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위기 및 가정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평신도 상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개인의 위기

위기는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상실했을 때,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 급작스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는 위협적인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또한 위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가 좌절되거나 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일어나며 그에 따른 긴장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 1. 영적 위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인간의 영이다. 인간의 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강하고 생명력이 있다.<sup>8)</sup> 이러므로 전인 건강의 기둥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영이다.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이지만 그 핵심은 영에 있으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생명이 소생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건강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전인적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리적인 이상 증세나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영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광신 집단에 빠질 위험까지 있다. 오늘날 정신의학자나 심리 치료자들도 영성과 정신 건강에는 상호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점점 더 인식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출판한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DSM-III)<sup>9)</sup>에서 ‘종교적으로 언급되는 모든 것은 정신 병리적인 것’이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994년 5월에 개정된 편람(DSM-IV)<sup>10)</sup>에서는 ‘종교 혹은 영적인 문제’를 V조 62, 89항<sup>11)</sup>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문제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이 일반 심리학계나 정신 의학계에서도 널리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영적인 차원은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데 영적 차원을 포함한 접근이 정당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사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기 전에는 정신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 문제인 죄책감, 불안, 비존재(죽음)에 대한 공포 등은 인간의 지혜로 대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힘의 근원이시며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활력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면 정신과 함께 육체도 활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영의 병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

8) John A. Sanford, Healing and Wholeness (New York: Paulist Press, 1977), 91-93.

9) DSM-III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의 약자로서 미국 정신 의학 협회에서 임상 실제에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며 연구의 촉진과 임상가와 연구자들 간의 의사 소통을 개선하고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진단서이다.

10) 이 범주는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종교나 영적 문제일 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상실이나 의심, 새로운 신앙으로 귀의하는 문제, 제도 교회나 종교 기관과 반드시 관련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가치에 대한 의문 등이다.

미국 정신 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 이근후 외 14명 공역 (서울: 하나 의학사, 1995), 879.

11) Robert B. Kosek, "The Contribution of Object Relations Theory in Pastoral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50, no. 4 (Winter 1996), 372-373.



게 중요한 영의 자리에 물질이 궁극적인 관심이 되고 명예, 권력 등이 하나님 대신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물질, 명예 등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2)</sup>

## 2. 관계의 위기

현대인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존재이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장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타고난 관계의 의지(will-to-relate)를 지니고 있어서 이것이 탄력을 잃게 되면 병이 들게 된다.<sup>13)</sup>

인간의 관계 의지가 충족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있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또한 사랑과 신뢰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의 식구들은 정신적으로 강한 힘과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들의 정신 건강은 파괴되고, 그로 인해 가정 공동체가 상처를 입어 그 여파는 사회와 국가로 곧 전염되어 간다.<sup>14)</sup>

또한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가능성과 그의 인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이나 하고 있는 사업 등을 보고 평가하려는 것이 오늘의 도시 산업 사회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물질 지향적인 인간관이 도시 산업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 인간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5)</sup> 진정한 인간관계 대신에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12) 정태기, 위기 묵회 상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5.

13) Howard Clinebell, Well Being (San Francisco: Harper, 1992), 105.

14) 정태기, 위기 묵회 상담, 16.

15) 에리히 프롬에 의하면 “인간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갖는 방식이 있는데 비생산 지향적인 관계와 생산 지향적인 관계가 있다. 비생산 지향적 관계 속에 순수 지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주관심이 있고 저장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가 가진 것을 고수하면서 가능한 조금만 주려는 마음이 강하고 착취 지향적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으로부터 착취하려는 사람이며 시장 지향적인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물질 위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다.

### 3. 병든 사회 구조 및 생태계의 파괴

인간은 모두 한 가정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사회인이며 한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좋은 삶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정치, 경제,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치가 병들고 경제가 병들면 국민 개개인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sup>16)</sup>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정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억압할 때, 국민은 긴장과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살게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국민은 결국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병(apathy)에 빠져들고 만다.<sup>17)</sup> 1997년 11월에 한국 경제가 IMF 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원화와 주가의 폭락, 고금리, 수많은 기업 도산, 기업과 은행의 퇴출 조치 등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붕괴 위기, 급격한 대량 실업 사태와 자살율의 급증 등 초유의 경제, 사회 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실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의 변화는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행복을 위협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숲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배가 훨씬 넘는 3,100 헥타르가 되고 있다. 또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가 호수 속의 생물에 영향을 주어 수천 개의 호수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젓줄인 한강, 영산강, 낙동강, 청평호도 생활 쓰레기와 약물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삼면 바다 역시 여러 가지 독극물의 오염으로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지구의 온난화 및 오존층의 파괴 때문에 지구의 생물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하루에 30종, 1년이면 1만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흔적을 감추고 있다. 이런 비율로 생물이 멸종되어 간다면 20년 후에는 지구 전체 생물의 5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현대 산업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16)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1998), 16.

17) Dorothy Solle, Suffering, trans. Everett R. Kali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33-59.

18) 엄예선, "Family Crisis and Pastoral Car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안, 44.

상실해 가는 인간과 참 만남에 갈증이 나서 참 인간을 찾아 헤매나 진정한 인간고나 계를 경험할 수 없는 고독한 현대인의 고통과, 병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제도 아래서 아픈 상처를 부여안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어 주는 자연 생태계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대인이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sup>19)</sup>

## 제 2 절 가정의 위기

우리 나라 가족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부부 문제이며 다음으로는 자녀 문제, 고부 갈등, 형제 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 부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등의 역기능적 행동 문제도 주요 문제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송성자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를 부부 문제는 가부장적 가족 위계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며, 자녀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고부간의 문제는 정서적 미분화 현상으로 인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0)</sup>

본 연구자도 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가정 문제를 가부장적 권위주의, 정서적 미분화, 역기능 가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부장적 권위주의

전통 가족에서는 가부장권이 가족의 구심점이며 이 구심점을 정점으로 남녀유별, 장유유서를 대원칙으로 인간간의 행동을 규정해 왔었다. 특히 가부장권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가족을 지휘 감독하는 감독권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절대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을 점유하는 가장인 아버지는 위엄을 갖추었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21)</sup>

부부 문제 중에서도 배우자의 부정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제도와 가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부권 사회,

19)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20.

20) 송성자, “한국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572.

21) 이광규, 현대 한국 가족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26.

남존여비 사상, 남자들의 부정 관계가 용인되는 윤리관,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 조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의 많은 요인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주벽, 학대, 폭행 등의 비사회적인 행동 역시 부부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아직도 가부장적 가족 위계 구조가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한국 사회의 수직적인 상하의 관계, 즉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적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적인 관계는 의사 소통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내 의사 결정은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부부간의 대화도 매우 드물고<sup>22)</sup> 부부 갈등은 겉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므로 여성들이 복종, 회피와 같이 역기능적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sup>23)</sup>

## 2. 정서적 미분화

자아 분화란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 과정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 자아 분화는 머레이 보웬(Murray Bowen)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데, 그는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자기 충동의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족 치료 이론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아 분화가 어느 정도 성취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합이 아닌 친밀감을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타인의 인정이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체의 독립을 유지하며, 이들 때문에 자신의 일관된 생활 원리나 신념, 가치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4)</sup>

잭 볼스윅(Jack O. Balswick)과 주디 볼스윅(Judith K. Balswick)은 이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이탈, 분화, 그물화로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굵은 선은 가정 주위의 경계선들을 상징하고 가는 선들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을 나타낸다. 이탈된 가정의 각 개인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응집력

22) 박숙자, “가족 관계의 변화” 한국 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 한국 사회 연구회 편 (서울: 사회 문화 연구소, 1997),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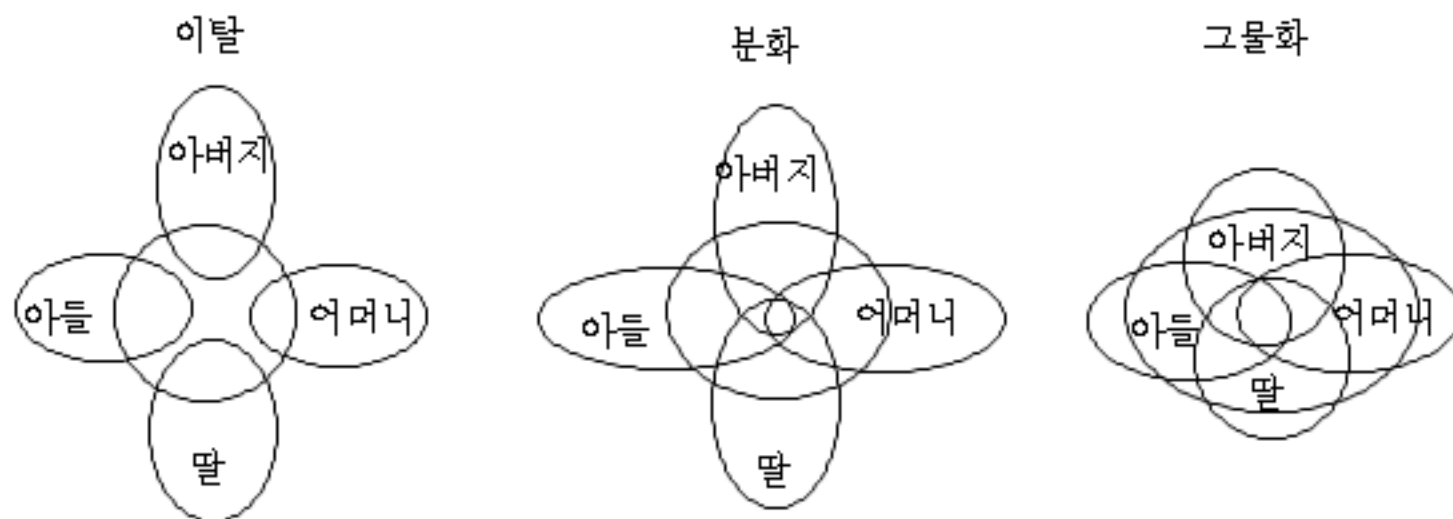
23) 송성자, “한국 가족 문제와 가족 치료”, 591.

24) 최선화, “세대간 가족 치료 모델”, 가족 치료 총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편 (서울: 도서출판 동인, 1999), 296.

이 너무 약해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심리적 고립 상태에서 산다. 그리고 그물화된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뒤얽혀 있다. 이렇게 이탈 또는 그물화된 가정이 문제이다. 반면에 분화된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이 서로 겹쳐지는 면이 있지만 각 개인은 여전히 가정 밖의 활동에도 참여한다. 각 구성원들은 서로 적극적이고 의미 심장하게 맞물려 있다. 각 구성원들의 독자성과 지원의 주요 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가정의 경계 밖에서도 발견된다.<sup>25)</sup>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위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한국인의 가정을 살펴볼 때 한국인은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여 서구에서처럼 점진적인 분리(separation) 또는 개별화(individuation)의 과정보다는 가족, 친지, 지역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sup>26)</sup> 따라서 모든 관계에서 융합된 경향을 보이며 그물화된 가정의 모습이 많다. 또한 때때로 정서적으로 유기되거나 방치된 가족들이 보여지며 이로 인해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림 1> 이탈, 분화, 그물화<sup>27)</sup>



### 3. 역기능 가정

25) Jack O. Balswick and Judith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1995), 54.

26) 김창대, "상담 과학의 문화적 맥락", 카운슬러 협회보, vol. 22 (1994).

27) Jack O. Balswick and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55.

역기능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 유형이 존재하는 가정이며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가정이다.<sup>28)</sup> 역기능 가정<sup>29)</sup>의 특징은 부모간의 연합이 대단히 취약하여 가정에 지도력이 없고, 자기 권한을 행사할 줄 모르며, 누가 부모이고 누가 아이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의 결여, 일관성 없는 가정 규칙을 따르려는 데서 오는 혼란, 권력 구조적 변화, 왜곡된 의사 소통 등의 혼란을 가중시킨다.<sup>30)</sup> 역기능 가정의 특징에 대해 팀 슬레지(Tim Sledge)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31)</sup>

첫째, 역기능 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둘째, 역기능 가정은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 셋째, 역기능 가정은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한다. 넷째, 역기능 가정은 가정 내의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다섯째, 역기능 가정은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여섯째, 역기능 가정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역기능 가정에서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성인 아이(adultified child)이며 이들은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unfinished business: 미완성 과업)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소외감, 자기 정죄, 긴장감, 불신 등이며 지나치게 성취하려 하고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일하고 지나치게 운동하며 지나치게 소비한다. 또한 그들은 섹스, 고통, 음식, 신앙, 권력, 돈, 소비 등 무언가에 중독이 되려 한다.<sup>32)</sup>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기능 가정 출신의 성인 아이를 위한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

### 제 3 절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

28) 정동섭, “역기능 가정의 성인 아이”, 가정 사역 연구 창간호 (1995), 119.

29)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문제 가정을 불행한 가정, 병든 가정, 약한 가정, 비정상적 가정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가족 상담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은 가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데, 정상적, 비정상적이라는 말 대신에 순기능적(functional), 역기능적(disfunction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30) 김광일 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정신 건강 연구집, 1집 (1983), 117.

31) Tim Sledge, 가족 치유 · 마음 치유,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15.

32) 정동섭, “교회 안의 성인 아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목회와 신학, 1999년 7월호, 84-85.

## 1. 이혼율의 증가

전술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미분화된 가정, 역기능 가정의 어려움 외에도 최근 들어 이혼문제로 인한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1998년 10월 발표)에 의하면 97년 한해 동안 37만 4천 쌍이 결혼한 반면 9만 3천 쌍은 이혼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70년의 이혼율은 4퍼센트에 불과했다. 20년이 지난 1990년의 이혼율은 11퍼센트 수준 그리고 1995년에는 16퍼센트 수준으로 약 5퍼센트 증가했다. 그리고 96년에 20퍼센트, 97년 25퍼센트 수준으로 매년 5퍼센트 가까운 놀라운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98년 들어서는 드디어 33퍼센트를 넘어섰다.<sup>33)</sup>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부부 중 1/3정도가 이혼을 선택하며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지는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의 10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을 더해준다. 빠르면 2005년 정도면 능히 미국 수준(50퍼센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을 정도이다.

또한 통계청의 '2001년 혼인·이혼 통계결과'에 의하면 이혼은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12만 건으로 전년 11만 8000건보다 1.7%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2.5로 98년(2.5)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0.1세, 여자 36.6세로 91년보다 남자는 2.9세, 여자는 3.5세가 높아졌다. 그리고 주된 이혼 사유는 부부불화(가족간 불화 포함)가 75.2%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10.8%로 91년 2.0%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sup>34)</sup>

위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최근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가정 해체의 위기'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의 문제 증가

이장호에 의하면 기독교인 상담 전문가가 이끄는 상담실을 갖춘 한 비교적 큰 교회의 경우 상담자들이 주 약 20시간 근무(하루 4, 5명 이상의 내담자를 면담)하고도 늘 몇 명씩은 상담 신청 후 면담 일자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며 교회와는 별도의 한 시내 전문 상담 기관의 경우에서도 한 사람의 전문가가 월 80여 회의 치료적 상담을

33) 추부길, "가정의 달에 위기의 가정을 생각한다", 가정과 상담, 1999년 5월호, 56

34) 국민일보, 2001년 5월 24일

실시하면서 평균 2, 3명의 면담 대기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상권은 자신의 상담 사례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식의 망상과 “믿음이 적은 나를 버렸다”는 식의 죄책감을 토로하는 내담자와 성적 환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죄의식을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sup>35)</sup>

우리 나라 목회자 및 신도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김광일은 그의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2년간 치료한 70명의 ‘매 맞는 아내’ 환자들에 관해 연구하면서 환자 남편의 11퍼센트가 목사이며 환자의 과반수(개신교 42퍼센트, 카톨릭 11퍼센트, 무종교 26퍼센트, 불교 14퍼센트)가 기독교 신도였음을 보고하고 있다.<sup>36)</sup> 특히 많은 피해 환자들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산층이며 가해측 배우자들 중에는 비교적 많은 지도층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sup>37)</sup> 위의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기독교인들의 심리적 문제와 갈등은 일반인들에 비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

현대의 성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 갈수록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자들의 박물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sup>38)</sup>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곳도 모르고 심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목회자들은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상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귀중한 자원인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35) Ibid., 56.

36) Kwang Il Kim, "Seventy Battred Wives: Clinical Manifestations and Problem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iatries*, 8, 4, (1994), 387-416.

37) 이장호, “한국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심리학적 과제”, 개원 2주년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 심포지엄 (서울: 한국 기독교 상담 문화 연구원, 1995), 29.

38)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21.



교회 안팎의 상담 사역을 감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목회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평신도와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장유유서의 권위주의 문화가 성경적인 섬김의 정신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평등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며 인간 관계 속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 회복될 뿐 아니라 조직과 권력 중심의 교회 문화에서 관계 중심의 문화로 교회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며 종교에 몰입하거나 교회 활동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고집할 수가 없다. 오늘의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도 분명한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교회가 평신도를 상담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99퍼센트나 되는 평신도가 자신을 치유하며 상담자로 훈련되어 가정을 섬기고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섬기기만 한다면 세상의 화목과 평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교회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야 하고 그들을 상담자로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해야 하는 것이다.

---

39) Ibid., 22.

## 제 3 장

### 평신도 상담 사역

교회가 세상과 접촉하는 것은 평신도를 통해서이다. 평신도는 이 세상에 침투해 있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교회 자체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주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일부 교역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침투해 있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을 통한 교회 혁신을 주장한 핸드릭 크래머(Handric Kreamer)는 “평신도는 곧 교회이고 그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교회의 분산이다”<sup>40)</sup>라고 말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평신도 상담 사역의 근거로서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본 후 평신도 상담 사역과 평신도 상담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 제 1 절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배경

##### 1. 평신도 신학

일반적으로 평신도란 목회자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즉 일정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모든 교인을 의미한다. 평신도는 영어로 레이(Lay)이며 이 말은 헬라어 라이코스(λαϊκος)에서 유래되었고 이 말이 라틴어로 변한 것이 라이쿠스(laicus)인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λαος)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뜻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머리 속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평신도이다.<sup>41)</sup> 결국 평신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

40) Handric Kreamer,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4), 77.

인 전 교회이다.<sup>42)</sup> 그러나 이러한 본래적인 평신도 개념은 오래가지 못했다. 역사 학자 필립 샤프(Philip Schaff)에 의하면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던 3세기에 시작되어 4세기말에 그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중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한다.<sup>43)</sup>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은 목사나 전임 사역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평신도 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유기체적 교회의 본질과 제도적 인간 교회 구조 사이에서 분명한 구별과 조화를 이루는 신학 운동이다. 즉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교회의 구조는 평신도가 세워지는 평신도 중심의 구조이어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평신도 운동은 교회의 본질의 회복 운동이라 할 것이다.

## 2.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배경

모든 기독교 사역은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근거 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학은 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다루어져 온 목회자를 위한 신학이었다. 신학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공유하면서 신학교의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및 일터에서도 적용되는 신학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평신도의 신분, 사명, 책임, 역할, 실천 등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 평신도의 신앙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가 평신도 사역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교회의 은사적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 $\sigma\omicron\mu\alpha$ )’인데 이 말은 ‘몸’이란 뜻이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하여 각각 맡은 고유한 기능이 있고 각 지체는 전체적인 몸의 연합을 위해 일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몸의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돕도록 하셨으며

41)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7), 12

42) 최희범, “평신도 신학의 조명”, 신학과 선교 제9집 (1984), 147

43)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50), 125-128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사역의 원리이다. 교회는 믿는 자가 함께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을 목회자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모든 평신도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만 한다(벧전 4:10; 롬 12:3-13).

#### 나. 만인 제사장직

이것은 루터가 발전시킨 신학 사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신도의 만인 제사장직을 생각해 본다면, 평신도가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소수의 사람이 아닌 전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제사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에클레시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사장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을 교직에 부름 받은 소수에게만 돌리는 것은 신약 성경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는 탈선임을 명심해야 한다.<sup>44)</sup>

#### 다. 평신도 사도직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αποστολος)’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79회 나온다. 그 의미는 첫째, 권위를 부여받아 파송 받았다는 의미와 둘째, 법정 용어로 법적인 대표자라는 뜻과 셋째, 회중의 위탁을 받은 대표자로 메시지를 지닌 사자라는 뜻이 있다.<sup>45)</sup>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사도의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보냄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사도로 부름 받았고 바울도 그의 사도권을 주장했다.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관계되는 사도는 12제자와 바울의 죽음과 함께 끝났으나 사도들이 행한 사역은 계속하여 교회에 계승되고 있다.

결국 모든 교회가(목회자와 평신도) 사도의 교훈과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사도적 사명과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세상 끝 날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

4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86.

45) Handric Kraemer, 평신도 신학, 77.

하고 증거하고 봉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야말로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들은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치유와 화해를 위해 사는 교회의 대표이며 교회 그 자체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사도적 사명을 담당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평신도 상담 사역

### 1. 평신도 상담 사역의 정의 및 효율성

#### 가. 평신도 상담의 정의

상담이란 일반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를 통해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46)</sup> 그러면 평신도 상담이란 무엇인가? 평신도 상담은 목회 상담의 한 부분이면서도 목회 상담과 구분이 되는 면이 있다. 목회 상담이란 목사인 상담자가 주체가 되어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확립이다.<sup>47)</sup> 하지만 평신도 상담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다른 평신도들을 돕는 상담으로서 평신도 상담이란 “제한적인 상담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 혹은 유사 전문가에 의해 사람을 돌보거나 양육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지는 상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48)</sup>

평신도 상담을 목회 상담과 비교해 볼 때 목회 상담은 그 주체가 소수의 목사나 교역자에 한정되는 데 비해 평신도 상담의 주체는 교인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그 독특성이 있다. 따라서 상담의 장이 넓어지게 된다.

#### 나. 평신도 상담의 효율성

평신도 상담자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첫째, 평신도 상담자를 활용하게 되며 전문 상담자만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상담자의 업무와 상담 시간

46) 이장호, 상담 심리학 입문 (재판; 서울: 박영사, 1982), 3.

47) David G. Banner, 전략적 목회 상담학, 전요섭 역 (서울: 은혜 출판사, 1995), 45-46.

48)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the State of the Art.”

을 경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므로 효율적이다. 물론 비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담의 장이 훨씬 넓다는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둘째, 평신도 상담자는 내담자와 같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생각이나 느낌, 욕구, 좌절, 불안,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내담자와 상담자간에는 보다 쉽게 일체감과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상담의 효과가 증진된다. 셋째, 평신도 상담은 내담자의 정서 장애 해소, 자기 존중성 향상, 자신감 배양 및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달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 상담의 경우,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험을 통해 상담자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sup>49)</sup>

## 2. 평신도 상담과 일반 상담

일반 상담은 상담 행위를 통하여 정신장애, 성격장애 등을 치유하고 인간을 회복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평신도 상담과 비교해 볼 때 상담의 기법들과 방법들, 기본 전제와 가정들이 다르고 상담의 원리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결함 또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삶의 문제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도와서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의 방법을 우선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모든 상담은 방법론상의 공통점을 갖는다. 평신도 상담도 이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평신도 상담은 상담의 목적과 방법, 내용 그리고 관심에 있어서 다른 상담과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 상담과 비교해 볼 때 평신도 상담의 상담 동기는 영적 성숙이다.<sup>50)</sup> 일반 상담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인간적 성숙을 도모한다. 그러나 평신도 상담은 하나님의 대답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끈다. 즉 평신도 상담자들은 문제 발견과 해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며 그분 앞에 머리 숙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평신도 상담자는 내담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찾아 나선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

49) 이형득, 김정희, Peer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 학생 생활 연구소 지도 상담, 1983.

50) 황의영, 목회 상담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158-161.

서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이 평신도 상담자도 내담자들을 찾아 나서  
는 것이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접  
근할 뿐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다. 셋째, 평신도 상담은 같은 동료로서 내담자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해 주고 해결해  
주는 동료 상담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전문적인 사람만 상담할 수 있다는 통념을  
깨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평  
신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이웃으로서 훈련만 받았다면 누구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 3. 평신도 상담 사역

#### 가. 평신도 상담 사역의 성경적 원칙

효과적인 평신도 상담을 위한 성경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담자  
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성경  
이 상담을 위한 광범위한(고갈되지 않는) 기본적 지침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  
기도는 성경적 상담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네 번째,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상담자의 인격적인 자질, 특히 영적인 자질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도움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 동기부여, 열망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덟 번째, 효과적인 상담은 문제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  
춘 탐구, 이해, 행동 국면과 연관되어 있다. 아홉 번째, 상담의 양식이나 접근 방법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열 번째, 상담의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은 성경과 일치해야 한  
다. 열 한 번째, 문화적 민감성과 타 문화권 상담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열두 번째, 지  
역사회를 돌본다는 맥락에서 먼저 다가가기와 예방 기술은 중요하다. 열세 번째, 상담  
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상담의 기본적인 기술도 중요하다.<sup>51)</sup>

#### 나. 상담사역을 통한 제자화 사역

목회자는 교회에 그의 전 시간을 드리는 고용된 봉사자라면 평신도는 교회에 그  
의 시간의 일부를 바치는 자발적인 봉사자이다. 평신도들은 세상의 조직, 관계, 직업

51)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61.

을 통해서 세상 안에 그리고 세상의 도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러한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 흩어져 말씀을 나누고 은사에 따라 상담하며 세상을 치유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은 제자화 사역이며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에 제자 훈련은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선택, 동거, 헌신,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의 원리를 사용하셨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대중 사역보다는 12명의 소그룹 사역에서 그 원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제자화 사역은 상담과 가정 사역을 통해 더욱 강력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담을 통하여 영적 심리적 갈등과 대인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평안을 찾으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발전케 할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sup>52)</sup>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 사역은 또 다른 면에서 제자 훈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새로 믿게 된 젊은이나 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역기능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그들의 가정 문제를 도와주는 일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새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가정에서 생겨난 개인적인 문제로 너무 괴로움을 당한 나머지 그들의 영적 성장이 종종 저해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의 배경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제자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sup>53)</sup>

이렇게 상담 및 가정 사역의 도움은 한 개인이 삶의 문제와 내적 갈등 및 불안정한 정서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풍성한 제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평신도는 그 자신이 상담자가 되고 가정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돌보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상담을 통한 제자화 사역이라 부를 수 있겠다.

52) Gary R. Collins, 크리스찬 카운셀링, 피현희, 이해련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4), 32.

53) Charles M. Sell, 가정 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27.



### 제 3 절 평신도 상담자

#### 1. 평신도 상담자의 정의

평신도 상담자는 동료 상담자(peer counselor)의 기독교적 개념이다. 동료 상담(peer counseling)이라는 용어는 1969년 브렌드(Vriend)가 낮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자가 상담한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이관용, 김순화에 의해서 동료 상담이라는 용어가 소개되고 이형득, 김정희의 연구를 시작으로 설기문이 동료 상담 훈련론이라는 책을 편역함으로써 동료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며 많은 연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sup>54)</sup> 현재까지 동료 상담은 그 정의나 용어면에서 아직 종합적이고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예로 동료 상담자에 관한 용어만 해도 동료 조력자(peer helper), 동료 촉진자(peer facilitator), 비전문 조력자(lay helper), 준 전문가(paraprofessional), 동료 조수(peer assistant)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 중에는 전문가가 아닌 조력자에게 상담자(counselor)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기도 한다.<sup>55)</sup>

일반적으로 동료 상담이란 사람을 돕는 지식이나 기술은 부족하더라도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담자들을 돕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sup>56)</sup> 즉 동료 상담은 비슷한 연령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인 것이다. 친구 또는 동료 관계에서는 상담의 기본 요소인 관계(rapport)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

상담은 항상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동료 상담자인 평신도 상담자는 시간상 훨씬 빨리 내담자를 접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신도 상담의 근거는 병리적인 문제가 아닌 일반 영역의 상담에 있어서 전문 상담자나 동료 상담자(훈련받은 평신도 상담자)의 상담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일반적으로 증명된 이론<sup>57)</sup>에 따라 이들에게

54) 김광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사관 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논문,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1), 7.

55) Ibid., 8.

56) 이관용, 김순화, "대학에서의 동료 카운슬링", 서울대 학생 생활 연구소, 학생 연구 19(1), 1983

상담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즉 평신도 상담자란 '상담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급료를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지체'를 말한다. 이들은 비전문가<sup>57)</sup>이지만 전문가 수준의 자질을 훈련받아 고통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삶의 대답을 제시함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자인 것이다.

## 2. 평신도 상담자의 자질

평신도 상담자는 먼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질이 선행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 가. 영적 분별력

평신도 상담자가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훈련된 상담 기술과 함께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상담 기술은 전문가가 고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각기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상담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튼튼히 기초를 두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때와 상황에 맞는 상담이 되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담자도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갖게 되고 통합적 인격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형성될 것이다.

### 나. 사랑의 마음

인간은 사랑을 받거나 사랑할 때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사랑의 상실로 인하여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다.<sup>58)</sup> 이때 내담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평신도 상담자가 내담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픔

57) 참조. 김광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사관 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58) Gary R. Collins, 창의적 상담 접근법,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95), 82.

59) 정태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7), 12

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때 내담자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온전한 인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를 사랑으로 돕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

#### 다. 진솔한 인격

상담은 상담의 기법이나 솜씨 같은 기술적인 면 이전에 상담자 자신의 인격이 더욱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 자신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된 만큼 상담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며 상담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의 인격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어 내담자도 알게 모르게 상담자처럼 인격적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면서 변화되는 것이다.

#### 라. 풍성한 삶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총만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요 10:10). 또한 예수님은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3:16)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계셨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 3. 평신도 상담자 훈련의 중요성

교회의 사역은 예배와 가르침, 제자로서의 삶과 교제, 아울러 교회의 강력한 존재 이유인 인류 구원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효과적으로 착수하려면 상담이라는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상담은 임시적인 교회 프로그램이거나 다른 프로그램의 부속물이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교회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담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나 속한 전문적 활동이라는 생각은 이제 진부한 것이다.<sup>60)</sup>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60) Larry J. Crabb and D. B. Allender, 격려를 통한 상담, 오현미, 이용복 공역 (서울: 나침반, 1986), 163-164.

사람들이 상담 훈련을 받지 못한 친척이나 이웃, 친구나 동료 교인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사실상 대부분의 상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비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비전문가를 훈련시키지 않고 상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조셉 듀락(Joseph Durlak)은 준 전문가가 돕는 자로서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지만 준 전문가의 기술과 부족, 한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들을 계속 활용한다는 것은 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sup>61)</sup> 즉, 평신도 상담을 하는 평신도 상담자의 기술과 부족, 한계에 대해 보다 많은 평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들이 좋은 상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심리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유명한 조사 연구자인 알렌 베긴(Allen Bergin)도 평신도 상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류 전문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들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엄밀한 연구와 조사를 회피해왔다. 우리는 상담에 대한 한 가지 성경적 접근에 귀착할 것 같지는 않다. 대학들은 종교적 경험에 대한 조사 연구를 장려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담 효과와 같은 변수는 실증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장애가 심리학적 조사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훈련하며 이론을 정립하려면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sup>62)</sup>

실례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평신도 상담자 중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았거나 사람을 도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나 다른 영혼을 섬기는데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증거가 있다.<sup>63)</sup>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신도 상담자를 적절하게 훈련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것은 계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61)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201.

62) A. E. Bergin, "Briefly Noted-Book review of J. Roland Fleck and John D. Carter, eds., *Psychology and Christianity: Integrative Readings*", Contemporary Psychology 27 (1982), 41, 43, 53.

63) A. Hattid, C. F. Sharpley, and H. J. Rogers,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95 (1984), 534-541.

인식인데 평신도를 훈련시킨 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활동에 대한 추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평신도 기초 기술 반복 및 심화 교육, 문제 영역별 이해 및 대응 전략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추후 지도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활동보고 및 발표 후 지도자와의 토론 시간을 거쳐 슈퍼 비전을 받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프로그램 운영은 평신도 상담 훈련을 받은 후 매달 1회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2시간은 지속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시간은 슈퍼 비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평신도 상담 활동 시 이렇게 지속 교육과 추후 지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상담 훈련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담 및 신앙에 있어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제 4 장

### 평신도 상담의 한국적 배경

모든 개인은 그 자신이 속한 사회와 민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문화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와 필요 이상으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폐쇄적 문화를 형성한다는 말이다. 교회가 폐쇄적일 때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어렵고, 좋은 이웃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담고 있는 세상 문화, 특히 한국인의 문화를 잘 이해할 때 평신도 상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인격 회복 및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적 현실에 알맞는 평신도 상담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제 1 절 한국적 삶의 특성

##### 1. 한국인의 한

한이란 가슴속에 억압되어 있는 아픔의 응어리이자 마음 한가운데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온 분노의 앙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풀리지 않고 가슴속에 축적된 한을 마음의 상처, 고통, 마음의 쓴 뿌리 등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다.<sup>64)</sup>

이러한 한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정신적 실재로서 우리의 문화, 역사, 종교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한은 개인적으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문화 창조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집단적으론 사회 정치적 갈등과 또 이에 대한 창조적 극복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sup>65)</sup>

64) 정태기, 나는 치유하는 목회자인가?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2000), 32.

인생을 사노라면 수많은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것이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상처에 적응하고 극복하면 살아 남았고, 실패하면 파멸해 버리고 말았다. 밀물처럼 밀어닥치는 가슴속에 쌓이는 고통, 또는 한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어두워져서 결국 소망을 상실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갔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고통, 또는 한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분노의 앙금, 즉 한은 큰 저수지의 물과 같다. 물이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는 전력을 만들어서 공장을 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원동력이 되지만 댐이 무너져 홍수로 터져 나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만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한이 신앙이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건전하게 발산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한의 응어리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발산하는 길도 모르게 되면 결국 댐이 터져 쏟아지는 홍수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sup>65)</sup>

역사적,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은 우리의 험난하고 슬픈 역사-고대의 터전인 북방 대륙의 상실, 고구려와 백제의 패망, 지배층에 의한 억압과 착취, 수차의 외세 침략 및 일제 식민지, 오랜 빈곤과 지역 감정 등- 때문에 갖게된 한국인의 영구적인 절망과 그로 인한 체념과 비애의 정서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의 심리적 기제는 메조키즘이고 약소 국가로서의 약자 의식과 피해 의식이 한국인을 한의 민족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sup>66)</sup>

우리 민족이 한을 많이 가지게 된 원인은 첫째, 역사상 한을 일으키는 부당하고 험난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런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에는 우리 나라보다 더 많은 민족 수난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만 유독 우리 나라가 한의

65) 문동환, 아리랑 고개의 교육 (서울: 신학 연구소, 1985), 48.

66) 정태기, 나는 치유하는 목회자인가?, 32.

67) 오영희,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제7권 제1호(1995), 73.

민족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근본적으로 한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피해가는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남아있게 된 것이다.<sup>68)</sup>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특히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들을 조사해보면 자신의 마음 속에 쌓인 한의 응어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힘으로 분출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한은 인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sup>69)</sup>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인 한의 응어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힘도 되고 파괴적인 세력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한은 천사의 힘으로도, 사탄의 세력으로도 변할 수 있다.<sup>70)</sup>

## 2. 한국인의 가족관

한국인은 재앙 없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생각하고, 집단의 행복이나 규범에 자신을 동화시키면서 슬픔을 해학적으로 해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기복 신앙, 가족 제도 및 민요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부자 관계가 핵심이며 이를 유지시켜 주는 대들보는 효(孝)이다. 효는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어 왔고 부자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 우선하는 관계였던 것이다. 효에 의하여 규정되는 부자 관계 속에서는 부모의 의사를 자신의 의사보다, 그리고 부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항상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 가족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유교적 전통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잘잘못은 집안 전체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집안의 명예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68) 이정균의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에 의한 한국인 조사 결과 (조사 인원 425명), 한국인은 일본인과 미국인보다 우울증이 더 심하다고 하였다. 윤태림,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0), 275.

69)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trans., Dell and Baynes (New York: Harcourt Brace Co., 1963), 260.

70) 정태기, 나는 치유하는 목회자인가?, 33.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여자에게 있어서 혼인은 지금까지 살던 집안에서 미지의 다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 이후의 여자의 삶은 '남의 집사람'에서 '집안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집살이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시집을 온 것이지, 남편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가 시집에서 집안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장성하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으면서부터이다. 그리하여 아들은 자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자식은 구원자이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다.<sup>71)</sup>

이러한 한국적 가족 의식의 단점으로는 서열 의식, 이기적 편당성, 집단적 이기주의가 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성과 고향과 인연 관계를 묻는다. 즉 혈연과 지연에 의한 소속감이 정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가족 문화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집안에서는 그토록 배려와 사랑을 받지만 집밖에 나가면 무능한 어린이가 된다. 집단내에서는 배타적 결속감으로 인해 무조건적 수용을 경험하다가 집밖에 나가서는 모두가 남이요, 낯선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장점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동료끼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강한 유대감, 봉사와 섬김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가족간의 깊은 정이다. 그러기에 이 '가족', '식구' 안에서는 개인의 장점이 우월감이 될 수 없고 개인의 단점도 열등감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가족'이란 개념에 의해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료와 화친하며,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 제 2 절 한국적 상담 문화

### 1. 상담과 문화의 관련성

한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 민족, 풍습, 가치관, 제도, 신념, 환경 및 기후 등의 영향을 받는다. 한 민족의 사고 방식은 민족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며 생활에서 반영되는 사고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sup>72)</sup> 이처럼 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이

71) 조혜정, "전통적 경험 세계와 여성",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편, 전통적 생활 양식의 연구 (중) (서울: 고려원, 1982), 115.

곧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구의 상담 이론 및 방법을 그대로 한국 상담 장면에서 적용했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상담 이론 및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 문화적 상담이 꼭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경제 생활의 수준, 교육 수준, 성차, 연령, 주거지역, 종교의 차이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률적이고 동질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정은 잘못이며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한국 문화와 상담

이장호는 상담과 심리 치료의 동서양의 접근법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양은 개인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가정해 놓고 있는 반면, 동양은 개인이 속한 환경 및 자연과 상호 관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서양의 심리 치료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원론적인 정신 기초론의 관점이지만 동양은 명상에 대한 강조를 통한 고난도의 의식의 질을 개발시킨다. 셋째, 서양의 정신 치료의 목표는 자기 통합이지만 동양의 접근은 명상을 통하여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의 완화는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넷째, 서양의 정신 치료는 환자의 문제점에 대한 정신적 내용을 알아 가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지만 동양의 접근 방법은 사람들의 관계 상황에 대한 통각 작용을 좀 더 고려한다. 다섯째, 서양 심리 치료의 방법론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동양 체계의 대부분은 사람의 좋은 점들을 상속, 계승시켜나가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sup>72)</sup>

72) 박종호,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사 소통의 차이: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 연구 제6호 (1989).

73) "Comparisons of Oriental Western Approach to Counseling and Guidance", 한국 심리학 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Vol. 3, No. 1-18 (1990).

### 제 3 절 한국적 평신도 상담의 시도

####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한국인의 문화적 기질 중에서 서양 문화권과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인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이 아닌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주의적 문화란 한 개인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인간관계의 유지가 우선시되며 집단의 가치 기준을 개인의 가치 기준보다 소중히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에 역점을 두는 만큼 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귀중하게 여긴다. 여기에서는 인간 관계 중심의 집단의 가치 기준보다는 개인의 가치 기준에 의한 판단을 우선하며 개인적인 성취를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배경은 인간을 신의 성품인 이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한다는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추구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sup>74)</sup>

이러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75)</sup>

〈표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비교

	집단주의	개인주의
의사결정	집단에 미칠 영향 고려	자신의 이해 관계에 초점
거래양식	자기의 것을 타인과 나누며 타인도 자기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	남에게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음
자신 및 타인 인정	집단의 인정이 중요-배척되면 수치로 여김 체면과 눈치가 발달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인정이 더 중요 체면보다 성취감을 추구

74) 참조.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 역동 상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제11권 제2호 (1999), 24-25.

75) Ibid.

소속집단	소속 집단에서는 희생적, 타집단에는 배타적	집단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함 유지
개인생활	강한 집착으로 서로 얽힘	서로의 영역이 분명
윤리	상황에 따라 규정됨	보편적으로 정의됨
의사 소통경향	분위기에 따라 유보하는 것이 미덕 타협적, 의례적.	대화의 내용에 관심 솔직, 주장, 명료함
갈등 해결	화합 중시-상대의 의무나 책임에 호소	서로의 이익을 일깨움으로 협상 채택
정서 상태	타인 중심적, 동정심, 수치심 발달 대인 관계 유지가 중요	호오(好惡)와 같은 개인적 감정이 발달 성취 동기 등 개인 지향적 동기가 중심
배려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들어주는 것

한편 한국, 미국, 일본 국민의 윤리의식에 대한 최근의 비교연구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국인보다 집단주의적 윤리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7년에서 2000년에 걸쳐 진행했으며, 한국인 1107명, 일본인 845명, 미국인 679명 등 총 2631명이 참여했다.

“옳고 그름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윤리의식 문항에 대해 한국인 30.98%, 일본인 62.27%, 미국인 7.95%가 긍정했다. 이것은 미국인의 절대 다수는 도덕 판단에 사회적 의견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한국인보다도 일본인은 도덕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이기주의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 협조한다”에 대해 일본인의 79.43%, 한국인의 71.97%, 미국인의 3.78%가 긍정적 대답을 했다.

국가 이기주의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 “외국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지한다”에 대해서도 일본인의 64.07%, 한국인의 27.82%, 미국인의 12.9%가 각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집단이기주의 및 국가이기주의적 성향

이 훨씬 강하며, 그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강함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최근 일본의 국수주의적 우경화나 역사왜곡 문제 등이 이런 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sup>76)</sup>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서양, 두 문화권에 따른 내면적 의식구조는 공통된 부분이 적고 확연하게 대립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적인 상황에 어긋나지 않는 조화를 중시하고 언어 표현보다는 감정적 유대, 공감 등의 전달에 더 익숙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양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주변 상황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찰과 분석을 통한 자신만의 주장, 결정을 중시하고 그러한 결과를 언어적 표현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이 부족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로 규정된다.

그러나 최근의 한규석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성인 남녀 848명을 집단-개인, 수직-수평의 두 축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주의자들이 집단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51퍼센트 대 49퍼센트). 이는 서구 이론에 바탕을 둔 교육의 영향과 문화 유입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국적 문화가 집단주의 성향이 아직까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문화 변동의 양상에 따라 새롭게 계속 연구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sup>77)</sup>

## 2. 한국적 상담 이론의 실례

전술한 한국적 상담의 배경에 따라 여기서는 최근 한국적인 상담 이론으로서 연구된 심정 치료와 현실 역동 상담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심정 치료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전되어지는 서구 상담에 가장 가까운 활동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거나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히 전달하기보다 상대가 미리 알아채어

76) 동아일보, 2001년 6월 20일

77) 최상진, 한규석, “한국인의 선호 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1998), 293-310.

자신의 속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sup>78)</sup> 이것이 한국인의 배려이다. 바로 이런 상대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다. 즉,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가이다. 그러나 드러내놓지 않는 속마음을 읽는 일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 읽게 되면 추론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인의 관계 속에서는 오해와 곱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심정이란 단어는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정서를 뜻하는 정(情)의 합성어로서 정은 '마음속에 있으며, 마음으로 느껴진 정서'를 말한다. 그러나 정이란 말은 동시에 친밀한 인간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적(正的) 관계성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심정이 통하는 친구'라고 말한다.<sup>79)</sup> 다시 말해, 한국인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마음, 무거리감,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기정 사실로 확인될 때 정(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인간 관계의 이상적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정을 의식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식적 정 표출 행동은 암묵적으로 심정이 통하는 친구 관계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현대적 의미의 서구적 상담에서 그 핵심적 주체는 자기(自己)로서, 서구 문화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는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 실체로서 자신의 성격, 정서, 행동, 의지 등과 같은 심리적 제 현상에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80)</sup> 둘째, 개인의 자기는 개인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그 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자기는 당사자인 나 자신이 이성의 인식을 통해 찾아내고 논리의 언어로 체계화해야 한다.<sup>81)</sup> 넷째, 자기는 자신의 일상적 삶 과정에서 참고의 준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sup>82)</sup> 따라서 서구에서는 어려서부터 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

78)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특성", 현대심리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 편 (서울: 학문사, 1997), 695-766.

79) Ibid., 695-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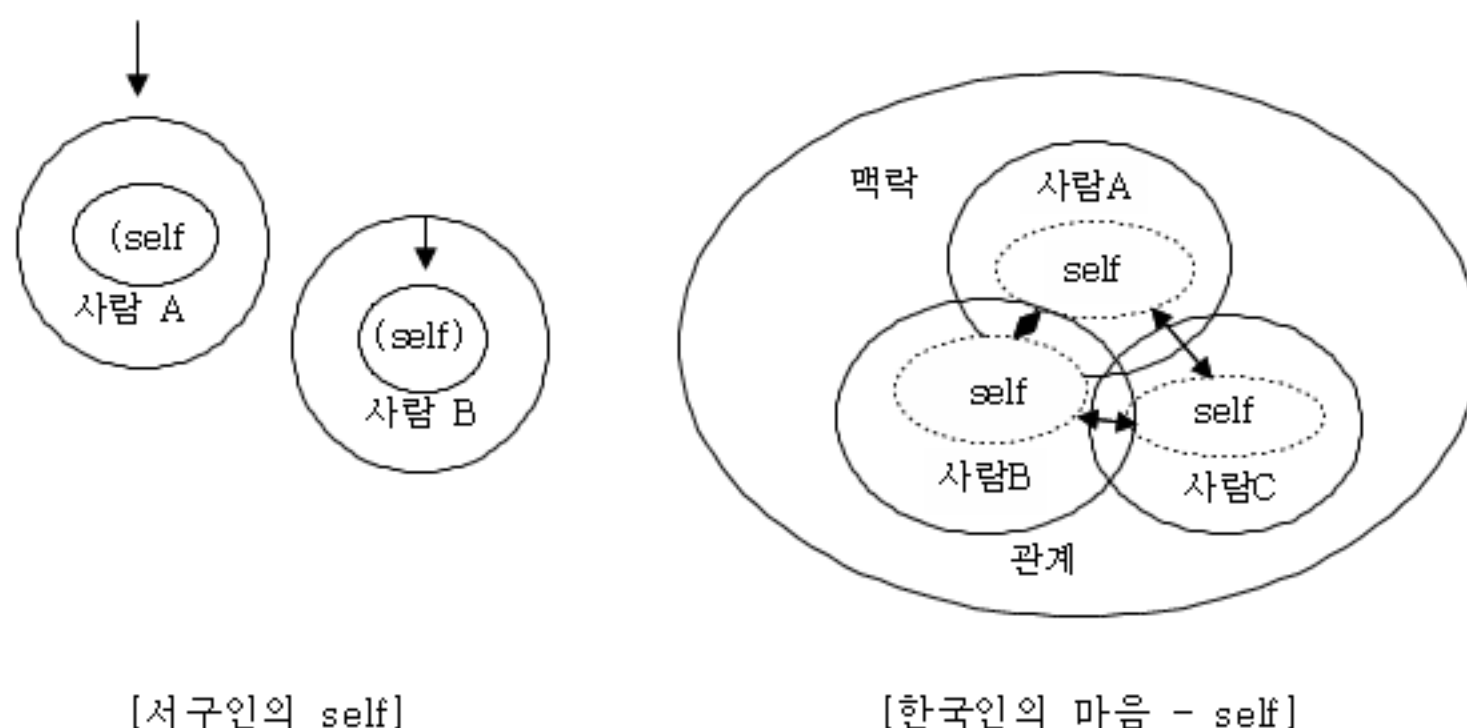
80) K. Daintier,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1997).

81) R. Harre and G. Gillett,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1994).

82) A.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며 고유한 자기로서 살고 주체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주체로서의 자기를 강조하지만 한국인의 자기는 주체적인 자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맥락에서의 자기이며<sup>83)</sup> 관계는 마음과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국인의 자기는 자기라기보다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2〉 서구인의 self와 한국인의 관계와 맥락 속의 self



심정 상담의 긍정적인 요소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인 적합한 사람에 대한 심정 토로 그 자체로도 문제된 심정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평신도 상담이 전문 상담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토양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현실 역동 상담

현실 역동 상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을 현실이라고 여긴다. 현실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다. 사실 현실만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은 드물다. 현실에는 과거와 미래가

83) 최상진, 김기범,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의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1999), 275-292

현존하고 너와 내가 공존하며 함께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한시도 고정되어 있을 수 없는 역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은 아무리 능력 있고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삶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관계 속에서 유연하지 못하면 그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는 물론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주의적 문화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관계의 고립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 거부의 부적응을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것이다.

한국적 상담에 대한 제안으로 제시한 현실 역동 상담은 내담자의 내적 세계도 다루지만 그에 못지 않게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가 현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에 역점을 두어 현실에 대한 적응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심리적 매듭이나 응어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타인의 요구나 기대, 즉 내담자가 속해 있는 현 사회의 요구에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내담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내면 세계를 분석하거나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식의 확장이나 방향 제시, 그가 처해있는 현실과의 조화를 위해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찾는 것으로 내담자에게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현실적인 직면을 통해 그가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sup>84)</sup>

현실 역동 상담을 다른 상담 접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 촉발을 위해 분석이나 공감의 기능뿐만 아니라 직면의 기능을 빈번히 구사한다는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하나의 결단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극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직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실 역동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 접근을 통해 상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무엇보다 내담자의 내, 외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담자를 그가 현존하는 바로 그곳에 적응해 가도록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4)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 역동 상담”, 29-30.



그러므로 현실 역동적 접근을 시도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현실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인 이 사회의 전통, 관습, 정서 등을 보다 면밀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

상담에서 감정에 의해 사고가 결정된다기보다 오히려 사고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인지적 관점도 있듯이 감정만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러기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대등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준의 확립을 도모하는 자로서 기능해야 한다.<sup>85)</sup> 특히 한국인에게는 나이, 전문성, 성과 같은 주어진 지위가 중요하다.<sup>86)</sup>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 비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권위가 없는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에 비해 종속적인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sup>87)</sup>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상담에서도 나타나서 내담자(특히 나이 많은 내담자)는 상담자가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훌륭한 조언, 해결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내담자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도록 돕고 문제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하는 상담자가 아니라, 보다 지시적으로 증상이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 주는 상담자를 기대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현실 역동 상담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때로는 영적 및 인격적인 스승이나 아버가 되어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어른'으로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붙잡아주며 방향을 지시하고 찾아가도록 깨우침을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실 역동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태도는 기존의 상담 접근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sup>88)</sup>

85) Ibid., 30.

86) S. Sue & N. Zane, "The Role of Culture and Cultural Techniques in Psychotherapy: A Critique and Reformulation", *American Psychologist* 42 (1987), 37-45.

87) D. Bodde, *China's Cultural Tra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7)

88)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 역동 상담", 30.

## 제 5 장

### 평신도 상담 사역의 현황

이 장에서는 외국의 평신도 상담 사역의 현황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국내 대형 교회 가운데 상담 사역을 감당하는 네 교회의 평신도 상담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외국의 현황

탄상양에 의하면 평신도 상담 목회 사역의 창시자는 멜빈 스타인브론(Melvin J. Steinbron) 박사라고 한다. 스타인브론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의 칼리지힐 장로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을 때 5명의 평신도로 선도 집단을 만들어 1978년에 그 사역을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 이 사역은 최소한 미국 36주, 캐나다 5지역, 외국 2개국으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벧전 5:2)는 성경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역으로부터 평신도들이 목회적 돌봄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교회의 조직망(network)이 생겨났다. 스타인브론은 이 조직망을 일원화하여 평신도 목회자를 위한 훈련 세미나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뉴스(Network News)라는 계간지를 발행하면서 더욱 더 열심히 평신도 상담 사역에 힘쓰고 있다.<sup>89)</sup> 다음은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시켜 실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외국 교회에 대한 소개이다.

##### 1. 체리 크릭 장로 교회(미국)

체리 크릭 장로 교회의 상담 사역(Cherry Creek Presbyterian Church Caring Ministry Team)<sup>90)</sup>은 위기, 교육, 재정 세미나, 병원 방문, 결혼 교실, 실천 목회 및 약

<sup>89)</sup>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216.

물 남용팀 등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상담팀은 사고 및 돌발적인 죽음의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숙련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목회 지도자 교육팀은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며 신학 및 심리학적인 균형을 갖춘 모델에 따라 삶의 주요한 사건에 대한 예방, 개입 및 회복에 대한 강의를 전 교인들에게 제공한다. 셋째, 재정 관리 사역팀은 사람들이 적자 소비를 피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르친다. 넷째, 병원 방문팀은 병원의 원목이 가르치는 강의에 13시간을 참석하며, 다섯째, 결혼 교실 프로그램은 가족 치료 전문인 치료자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야간 교실과 주말 수련회가 가끔 있다. 여섯째, 홍보팀은 대규모 수업 제공에 관한 신문 기재용 기사 제작, 정보 게시물 제작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정과 변화들을 통보한다. 일곱째, 실천 목회팀은 회중의 일상 생활상의 필요한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의 사역이다. 여덟째, 약물 남용에 대한 사역팀은 치료용 약물, 알콜 또는 불법 약물의 오용이나 중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역을 한다. 아홉째, 스테반 사역팀은 2년간의 헌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50시간의 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참가자들은 감독과 구체적인 상담 기술들을 위한 지침을 얻기 위해 매달 2회씩 모인다. 열 번째, 상담 실습으로 덴버 신학대학원이 제공하는 상담자 실습 프로그램은 체리크릭 장로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목회 사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자반으로 참가자들은 듣기, 기도 그리고 효과적인 성경의 사용에 관해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의 역할은 현재 교회 생활에 융화되지 못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 2. 몬트리올 민중 교회(캐나다)

몬트리올 민중 교회의 평신도 상담 활동은 1976년 10월 목사 2명과 당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이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 출석 교인이 평균 250명에서 300명 사이인 복음주의 교회이다.<sup>91)</sup>

이 교회의 훈련 과정은 첫째, 기본 훈련으로 처음에 9명의 평신도 상담자를 선발하여 주말 세미나로 훈련시켰다. 이때 기본 상담 기술과 방법 외에 성경에 근거한

90) 엄예선, "Family Crisis and Pastoral Care", 29-30.

91)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221.

통합된 모본을 다루었다. 둘째, 매월 간사 회의에서 평신도 상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우울 다루기, 심한 장애의 표시와 징후 인식하기, 상담 종결, 적절하게 소개하기 등)에 대해 더 훈련하였다. 훈련이 끝나면 평신도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만난다. 셋째, 슈퍼 비전은 주로 집단으로 간사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때론 활동 책임자와 일대일로 만나 사례에 대해 토의하기도 한다. 넷째, 사역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 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담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내담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일반인도 여러 명 있었다. 백 명이 넘는 내담자들이 4년간 상담을 받았고, 내담자당 평균 상담 시간은 약 8시간으로 범위는 1시간부터 70시간까지지만, 대다수의 내담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상담을 하였다. 장기간 도움을 받은 내담자는 소수에 불과하다.<sup>92)</sup>

### 3. 노쓰 파크 커뮤니티 채플(영국)

노쓰 파크 커뮤니티 채플의 상담 활동은 교인과 런던 지역 사회 사람들의 영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고자 시작하였다. 이 활동은 자원 봉사로 운영되므로 전문 상담 활동이 아니며,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sup>93)</sup>

상담 센터의 목표는 첫째,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대일로 우정과 친목을 도모한다. 둘째, 정서적·영적 문제나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과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과 성장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더 이상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전문가나 적절한 기관을 소개해 준다.

## 제 2 절 한국의 현황

현황 조사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교회 중에서 몇 교회를 선별하여 먼저 어떤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신도 상담 사역은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다. 각 교회의 상담실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는 먼저 팩스로 교회 상담 운영에 대해 알고 싶다는 공문을 보낸 후 상담실 책임자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 또는 인터넷

92) Ibid., 221.

93)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96-97.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다. 또한 월간지인 ‘가정과 상담’의 교회 탐방 내용도 참조하였다. 각 교회의 상담실 책임자에게 주어진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내에 상담실이 있는가? 둘째, 상담실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 셋째, 당회장의 상담에 대한 철학 및 상담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넷째, 교회 내에서 평신도 목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다섯째, 훈련된 평신도 상담자가 있는가? 여섯째,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훈련시켰으며 지속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곱째,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상담실 책임자의 답변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교회의 상담 운영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락 교회

상담부 조직으로는 교역자 및 임원(7명), 실행 위원(30명), 연구조 조장(10명), 전문 상담원(9명), 인터넷 전문 상담원(30명), 상담 교육 위원(4명), 부부 상담원(20명), 특수 상담원(7명), 그리고 전화 상담원(17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 내용 및 프로그램은 <표 2>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표 2> 상담 프로그램

구 분	대 상	종 류	내 용
부부 교육	예비 부부	결혼 준비 교육	사랑 확인, 부부 역할, 삶의 계획, 믿음의 가정
	교우 부부	부부 성장 교육	부부 서로의 기대 확인, 지나온 삶의 회상, 사랑 고백

상담 교육	일반 교우	평신도 상담 교육	자신 및 교우에 대한 이해 증진, 신앙 성장, 구역 섬김
	상담원 희망자	상담원 양성 교육	상담원 양성 목적의 실습 중심 교육
	일반 교우	소그룹 상담 교육	부모 교육, 성숙한 중년, 사모 성장, 정신 건강, 감수성 훈련, 부부 적응 훈련
전화 상담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	신앙, 인생, 가족 문제 등
전문 상담	정신장애자 및 가족	달리다굼	정신장애자 및 가족을 위한 모임
	일반 교우	정신 건강 상담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일반 교우	세무 상담	세무 처리 및 세무 상식에 관한 상담
	일반 교우	법무 상담	민원, 행정 서류 작성 및 사고 처리
	일반 교우	금융 경제 상담	재산 운영 및 경제활동에 관한 상담
	일반 교우	교통사고 상담	교통사고 및 처리에 관한 상담
	일반 교우	만성 난치병 상담	식이요법 섭생을 통한 자연 요법 치료 상담
	일반 교우	병무 상담	병무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Inter- net 상담	일반 교우	Internet 전문 상담	의료, 신앙, 교육 및 전문상담
특수 상담	일반 교우	결혼, 직업 상담	초혼, 재혼, 구인, 구직

일반 성도 대상의 평신도 상담 교육은 ‘평신도 상담원 양성자 훈련’과는 다른 교육이다. 평신도 상담원 양성자 훈련 교육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신앙 성장 및 자아실현 그리고 교우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12주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실습 교육은 상담의 실제를 위한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미 평신도 상담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양성 실습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하여 상담부 내의 평신도 상담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들은 전부 전화 상담 봉사자로서 사역하고 있다. 면담 상담 및 전문적인 내용의 상담은 전문가가 상담하고

있다. 지속 교육은 '상담원 연수 교육'으로 한 달에 1번씩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락 교회는 상담을 위한 교육이 전체 교인 대상의 평신도 상담 교육과 평신도 상담원 양성자 훈련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담원 교육을 받은 평신도 상담자는 모두 전화 상담원으로만 봉사하고 있고 그 인원은 현재(2000년 8월) 180명 정도이다. 그리고 면담 상담 및 특수 상담 등 전문 상담은 평신도가 아닌 전문 상담가가 따로 상담하고 있다.

## 2.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상담을 전공한 4명의 상담 전문가가 상담실에 근무하여 교인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부 사랑의 교회 직원으로 사례를 받고 있다. 한 명은 주 6일 근무하며 나머지 3명은 주 2-3일, 요일별로 나누어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고 경력과 근무시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례를 교회로부터 받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를 전문 크리스천 상담사가 면접 상담을 통하여 돕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이 상담실은 한국 목회 상담 협회와 한국 기독교 상담 및 심리 치료학회 기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집단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전문 상담가가 평신도들을 돕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3> 사랑의 교회 가정 사역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내용
1. 데이트와 결혼 세미나	· 이성 교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	· 예수 믿는 복된 이성 교제
2. 결혼 준비 교실	· 이미 짝이 있는 청년들(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경우) · 타교인 및 비그리스도인도	· 의미 있는 신혼 생활 설계 · 지혜로운 혼수 준비 · 결혼식, 신혼 여행, 자녀 교육 등

3. 신혼 부부 다락방	· 신혼 부부	· 관계 훈련 · 가족 공동체의 성장 · 부부 싸움 잘하는 법
4. 가정 생활 세미나	· 결혼 5년 이상 · 아내반(불신 남편) · 부부반	· 가정 생활의 성숙 과정

### 3. 여의도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신앙 상담의 역사는 1958년부터 시작되었고 1978년에 '결혼 상담소', 1980년에 '청소년 상담소', 같은 해 5월에는 '사랑의 전화', 1982년에는 '신앙 상담소'가 창설되어 활동하다가 1986년 4개의 상담 기관을 통합하여 순복음 상담소로 기구가 개편되었다. 1980년에 개통된 사랑의 전화는 1992년 '아가페 전화'로 명칭을 변경, 지금은 전화 전문 상담 기관으로서의 기틀을 갖추었다. 현재는 상담 기획부 내에 인터넷 상담실, 청소년 상담실, 결혼 상담실, 신앙 상담실, 아가페 전화 상담실이 있다.

평신도를 위한 상담 강좌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관계없이 상담자로서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일반 평신도를 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상담실 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상담 학교 초·중급반, 부모 역할 훈련, 목회자 상담 세미나, 장로 상담 세미나, 학부 모 세미나, 집단 상담, 가정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등이 있고 자원 상담원을 위한 교육으로는 정기적인 교육 세미나 및 소그룹 연구 모임이 있다. 1999년 12월부터는 심방 중심의 목회에서 상담 중심의 목회로 전환되면서 '상담소'가 '상담국'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상담국에서는 상담 사역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화, 가정 상담 사역의 집중화, 인터넷 상담실의 활성화, 재직 상담 교육의 의무화 등 4대 목표 하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국 각 실의 주요 업무 안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여의도 순복음 교회 상담국의 주요 업무

구분	종 류	내 용
면 담 상 담	신앙 상담실	· 신앙 및 인생의 제반문제 상담
	결혼 상담실	· 결혼(초, 재혼)을 위한 상담 및 만남 주선 · 결혼예비교실 및 사랑동아리 모임 등 개최
	청소년 상담실	· 청소년, 학부모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학업, 진학, 직업 진로, 성격, 가출, 폭력, 비행, 이성 문제 등 상담 · 각종 검사(MBTI, MMPI, 적성, 표준 성격 등) 실시 ·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P·E·T) 및 QT실시
전 화 및 인 터 넷 상 담	아가페 전화 상담실	· 신앙, 인생, 가정 등 제반 문제 상담 및 정보 안내 · 전문 상담 연수 교육 실시
	인터넷 상담실	· 상담국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 상담 운영
상 담 지 원 및 행 정	지성전 상담실	· 17개 지성전에 소속된 각 상담 분실 총괄 및 지원
	행정실	· 제반 행정 업무 담당
설 교	10분 설교 전화	· 조용기 목사 '10분 설교' 전화 관리

결론적으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상담국은 심리적 갈등과 신앙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오순절 신앙에 입각한 치유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평신도를 상담원으로 양성하여 각 상담실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4.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중 상담 훈련은 '상담의 실례를 가지고 상담 사역자들이 받는 전문적인 상담 훈련과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와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담실 운영은 1999년 3월에 개설되어 전화 상담과 면접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재, 풀 타임 2

명과 파트 타임 12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례받지 않는 평신도 상담자이다. 상담 전문가는 따로 없으며 2명의 풀 타임 사역자는 권사님들이다.

당회장 목사님의 상담 운영 방침이 영성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전공자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을 상담 사역자로 세우고 있다. 상담자 훈련은 온누리 교회 내에서 하지 않으며 두란노 기관과 연계하거나 외부 강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두란노의 상담 관련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가정 사역학부, 상담학부, 결혼 예비 학교의 3개로 되어 있으며 가정 사역과 상담학부의 강의는 총 4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혼 예비 학교는 6회 과정으로 되어있다.

〈표 5〉 강의 내용

학기	가정 사역	상담학부
1학기	가정 사역 개론, 부부 문제 및 가정, 자녀 문제 해결	상담의 기본 개념, 인성 발달, 인간 심성의 이해, 방어 기제와 정신적 발달, 발달 심리 및 상담의 실제, 기독교 상담의 기본 개념
2학기	자녀 교육 1-6, 가족 치료 1-6	인간 성격의 이해 1·2, 이상심리와 정신 병리의 이해 1·2, 성상담, 가족 상담 등 각종 상담 내용
3학기	가정의 비밀과 내적 치유, 강박적 사고,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과 두려움, 상실감과 슬픔, 완벽주의의 치유 등 치유 사역	집단 상담
4학기	가족 관계 신학, 결혼과 치유 성장, 성경과 가정 사역 1-3, 목회와 가정 사역 프로그램 개발 등	기독교 신앙과 정신 건강 관계의 이해, 정신 치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성숙과 영성 발달, 기독교 상담

온누리 교회는 평신도 상담자 양성을 통한 실제 사역은 1년 6개월밖에 안되었으며 그 역할도 교회가 아닌 기관(두란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담을 통한 평신도 사역보다는 영성 위주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제 3 절 평신도 상담 사역에 대한 평가

연구자가 대형 교회 4곳을 중심으로 상담 사역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lt;표 6&gt; 교회별 평신도 상담자 현황

	영락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훈련된 평신도 상담자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지속교육	1달에 1번	매주	1달에 1번	없다
당회장의 지원	적극적	아주 적극적	적극적	상담전문가와 협력관계
평신도 상담사역 형태	전화상담원으로 봉사	모든 성도의 상담자화 도모	영성 위주의 상담 사역	전문가가 주도

또한 한국의 대형 교회 32곳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 상담과 평신도 상담의 현황과 각 교회는 이를 위해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손수현은 상담 사역만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자가 있는 교회는 7교회이며 그 중 상담 전문 목회자만 있는 곳이 3교회, 상담을 전공했거나 훈련을 거친 평신도 상담자가 있는 곳이 3교회였으며, 상담 전문 목회자와 평신도 상담자가 함께 있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교회는 이미 교육받은 상담원을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는 수준이었고 오직 한 교회만이 해마다 두 번씩 교인들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평신도 상담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sup>94)</sup>

연구자의 조사와 손수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평신도 상담 사역 전체를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현재 한국 교회의 상담 훈련 수준은 아직 초보적이며 특히 평신도 상담 사역은 더더욱 취약하다 하겠다. 그러나 소망스러운 것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들이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적극적이며 타 교

94) 손수현, “목회 상담에 있어서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99), 121-122.

회의 상담실 운영에 많이 기여했다는 점이다. 각 교회들의 이런 노력들이 서로 교류되며 자극되어 한국 교회의 평신도 상담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길 기대한다.

## 제 6 장

## 한밀 교회의 평신도 상담 사역

## 제 1 절 상담 사역의 과정

## 1. 상담 사역의 터닦기(1990-1996년)

한밀 교회의 첫 출범은 청장년 8명과 함께 상담 목회에 제자 훈련을 접목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일반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80년대부터 제자 훈련 사역을 계속해오면서 제자 훈련 중심 사역은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밀 교회가 창립(1990)되었을 당시 연구자(그 당시 강도사)는 목회에 상담을 접목하여 상처로 인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치유의 시간을 많이 마련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고 전인을 치료하여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상담 중심의 목회'를 교회 사역의 비전으로 삼았다.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치유해주는 도구로서 심리학이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으나 심리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켜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목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목회와 상담의 통합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상담 사역이 활성화되기까지의 초기 사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역 초기에는 첫째, 소그룹 중심으로 모여 소그룹 역동을 통해 '서로 돕는 사역'이 되도록 했다. 소그룹 내용은 신앙의 기초 및 신앙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구원의 확신 및 제자 훈련 시리즈(SCL) 과정,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한 기독교 서적 및 성경 강좌 개설, 그리고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었

다. 둘째, 성경적 상담 관련 서적 및 기독교 심리학자의 상담 시리즈를 요약, 발표, 토론하는 책 토론(book study)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매년 2회에 걸쳐 4-5일 정도 매회 3시간씩 열린 주제별 세미나는 지성 개발을 통한 정신 치유 및 영성 확립의 기회가 되었다. 세미나 주제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주제로 시행되었으며 10년간 약 18회 정도가 열렸다. 넷째, 년 1회 또는 2회의 합숙 캠프(3박4일 또는 4박5일)는 집단 공동체 경험을 통해 신앙 성숙 및 자신과 타인 이해, 그리고 전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집중적인 훈련의 장이 되었다. 또한 캠프 모임 중 하나인 집단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함으로써 서로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표 7〉 초기 상담 사역 프로그램

구분	목적	내용	특징
소 그 룹	· 신앙 성숙 · 삶의 당면 문제 해결 · 기독교 세계관 확립 · 공동체 생활 경험	· 기독교 상담 · 기독교 세계관 · 구원의 확신과 기쁨 · SCL(2-6권) · 금홀에 풍성한 하나님 · 하나님의 사람 다윗 · 하나님 나라 ·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 그리스도인의 은사 개발 · QT 나눔 · 영어 성경 공부	· 주일 오후 · 매 분기별로 강좌 계획을 세움(동아리 모임, 대청소, 전도, 산기도 등)
책 토 론	성경적 상담의 기초 확립	· 폴 투르니에의 심리학 서적 6권 · 헨리 나우웬의 서적 시리즈 · 제임스 도브슨의 서적 시리즈 · 게리 콜린스의 상담 시리즈 ·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밀라드 살) ·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잭 볼즈워) · 행복한 부부의 열쇠(노만 라이트) · 발달의 이론(윌리엄 C. 크레인) · 성경적 상담학(로렌스 J. 클랩) · 격려를 통한 상담(로렌스 J. 클랩)	참석하기를 희 망하는 모든 사 람

세 미 나	지성개발을 통한 정신치유 및 영성 확립	공동체,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하나님의 치유, 기도, 경제생활, 기독교 세계관, 가 정생활, 21C 교회와 리더십, 신학 세미나 등	봄, 가을에 4-5일, 하루 3 시간씩 진행
한 밀 캠 프	· 신앙성숙 · 자아발견 · 타인이해와 수용 · 인간관계 개선 · 전인격적 성숙	· 영성 훈련(말씀 묵상, 성경 토론) · 인간관계 훈련 · 공동체 훈련 · 리더십 훈련	· 1년에 2회 · 3박4일이나 4박5일 합숙

## 2. 상담 사역의 활성화(1996년-1999년)

연구자가 평신도 상담에 대한 문헌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좀더 통합되고 전문적인 상담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일반 상담 및 목회 상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였다. 이 어간에 연구자는 상담과 심리 치료에 대한 임상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그 결과 더욱 체계적인 상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도들도 상담 훈련을 통해 신앙과 인격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상담 사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점차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1996년 11월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외에 전교인 대상의 상담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1월에 교회 조직에 상담 사역 및 가정 사역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1월에 집단 상담을 시작으로 5월에 전교인 대상으로 치유와 성장 세미나와 성경적 상담 세미나를 시작하였고 6월에 2, 3, 4, 5차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등 상담 사역이 전교인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의 한밀 교회 상담 사역은 '평신도 상담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기보다는 성도들의 전인 건강(영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에 초점을 둔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평신도 상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의 상담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상담 사역을 계속 시행함과 동시에 상담 사역의 심화 학습으로 집단 상담과 집단 상담 캠프를 시행하였고 체계적으로 상담 이론을 공부하는 상담 학교 초·중·

고급 과정을 개설하였다.

〈표 8〉 상담 이론 강의 내용

집단 상담	· 자아발견 · 자신 및 타인 수용 · 문제해결능력 향상 · 감정인식	· 공감훈련 : 감정표현훈련 · 대화기술 및 상담기술 습득 · 성경과 상담심리학의 임상적 통합 · 자기치유 · 타인이해 및 수용훈련	· 1년에 2번-6번 개설 · 10주 과정 · 정원:10-15명
집단 상담 캠프	· 전인격적 성숙 · 집단경험학습	· 집단상담의 심화학습 프로그램	· 3박4일이나 4박5일의 합숙훈련
상담 학교	· 통합된 정서를 가 진 인격자 되기	· 성경과 심리학의 이론습득 및 통합 · 인간이해 · 상담의 기초이론 습득	· 초급, 중급, 고급 과정

초기의 한밀 교회는 청년 중심이었으나 양적으로 부흥이 되면서 부부를 위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정 사역 프로그램으로는 남성을 위한 아버지 학교, 결혼 준비 모임인 결혼 예비 학교, 부부의 성숙한 만남 및 성장을 위한 부부 모임 초·중·고급반을 개설하여 부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9〉 가정 사역 프로그램

구분	목적	내용	특징
아버지 학교	· 성경적 아버지상 에 대한 이해 및 좋은 아버지 되기	·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이해 · 아버지의 사명 및 역할 배우기	
결혼 예비 학교	· 하나님의 창조 원 리에 따른 올바른 결혼관 확립	· 성경적 결혼관 확립 · 자신 탐색 및 상대방 이해하기 · 갈등 해결법 · 남, 여의 성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 · 성격 검사 · 에고그램 분석표 · 문화적 기질에 대한 이해 ·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결혼 준비의 실제적 검토	· 정원 : 8명 이 하 · 결혼 약속한 커플 대상 · 8주 과정(or 6 주)



부부 모임 초급	· 부부의 기본 원리 이해	· 성경적 부부 역할에 대한 이해 · 서로에 대한 이해 · 성역할에 대한 이해 및 토론	· 정원: 12명 이하 · 전 단계를 이수 하여야 다음 단 계로 넘어갈 수 있다.
부부 모임 중급	· 부부의 자기 치유	· 부부의 자기 이마고 분석 및 자 기치유	
부부 모임 고급	· 가정 사역 지도자 양성	· 대화 기법 실습 및 발표 · 부부의 갈등 해결 기술 및 사례 연구 발표	

소그룹 활동은 교인의 성장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신앙과 상담 및 인간 관계 훈련 외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한밀 아카데미 사역으로 전환되면서 1년에 2회 8주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한밀 아카데미의 목적은 열린 교육을 지향하면서 전인적 신앙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한밀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내용	특징
신앙교육	·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기도 · 프리젠프트 성경연구 · 기독교 세계관 · 비전과 리더십 · 임산부 학교 · 결혼 예비학교	· 연 2회 개설 · 8주 과정 · 외부인도 참석 가능 · 상황에 따라 개 설과목이 달라 짐
상담 및 인간관계	·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 기독교 상담 · 대화학교 · 시간관리, 자기관리 · MBTI-자기발견과 이해	
외국어 과정	· 영어독해 · 영어회화	
예능과정	· 워십댄싱 · 컴퓨터-인터넷 · 찬양부르기, 음악배우기 · 기타교실	

## 제 2 절 평신도 상담자 양성

### 1. 평신도 상담자 훈련 과정

연구자는 1996년부터 상담 사역이 전교인 대상으로 확산되어 모든 신자가 격려하는 자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평신도 상담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였다. 상담 사역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활성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상담에 은사와 열정이 있는 지도자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상담 관련 대학원생이 배출되어 그들이 교회 내에서 상담 사역을 도와주는 등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서로를 도와 성숙케 하는 분위기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외부에서도 상담에 관심있는 지도자들이 한밀 교회의 상담 사역에 대해 알고 싶어 방문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99년 2월부터 박사논문을 위해 평신도 상담자 양성을 위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였고 평신도 상담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6장 2절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현재 상담실에는 상담을 전공한(석사) 평신도 상담자 2명이 있으며, 상담 기초 및 중급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훈련을 받은 3명의 평신도들이 격일로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 및 면접 상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의 인도 하에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 30여명이 매주 2~3시간씩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다시 주 1회씩 4-10여 명의 소그룹으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및 상담 사역에 종사하고 있다.

한밀 교회에서는 평신도 신학과 상담적 안목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평신도 상담자를 양성하려는 계획 하에 평신도 상담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총 5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평신도 상담 훈련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교인들에게 평신도 상담의 중요성 및 상담의 성경적 배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상담가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대해 동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평신도 상담 훈련을 시킨다. 상담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탄상양은 평신도 상담자의 기준으로 영적 성숙도(자질), 심리적 안정성, 영적 은사, 효율성과 교육 수용력, 비밀 유지 능력, 이해심, 객관성, 친밀감, 헌신의 태도 등을 강조하였으며 상담에 관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권면, 지혜, 지식, 영분별, 자비, 치유 등이 있다고 하였다.<sup>95)</sup> 연구자는 평신도 상담자를 선별할 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먼저 자원자로 하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기초 성경 공부 및 일대일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상담의 은사가 있고 상담 사역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은사 확인은 은사 네트워크<sup>96)</sup>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되 앞에서 밝힌 탄 상양이 제시한 것을 따랐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신앙 성숙 및 상담의 자질을 계속 키운다. 넷째, 훈련을 받은 후 상담의 은사나 자질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다른 은사를 계발하여 은사에 맞는 사역에 참여토록 권고한다. 다섯째, 지속 교육을 받았으며 상담의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상담하려는 열의가 있는 평신도 상담자를 세운다.

## 2. 5학기 훈련 과정 안내

탄상양은 각 지역 교회에서 평신도 상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형태에 맞는 평신도 상담 사역의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평신도 상담 사역을 위한 표본으로 자발적인 비공식적 모델, 조직화된 비공식적 모델, 조직화된 공식적 모델을 들면서 자신의 교회 현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작하라고 충고한다.<sup>97)</sup> 또한 평신도 상담 사역을 실시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로써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세 가지 표본을 파악하고 둘째, 상담 사역에 대한 지지를 얻고 셋째, 평신도 상담자를 선별하며 넷째,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하고 다섯째, 평신도 상담자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sup>98)</sup>

게리 콜린스(Gary Collins)는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훈련을 훈련 전 단계, 훈련 단계, 훈련 후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sup>99)</sup> 훈련 전 단

95)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10-111.

96) 참조. Bill Hybels, 네트워크 은사 배치 사역, 1997.

97)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87.

98) Ibid., 90-91.

99) G. T. Collins, "Lay Counseling within the Local Church", Leadership 1 (1980), 78-86.

계에서는 훈련 자료의 선별과 훈련 프로그램의 홍보, 참가자 선발, 돌봄의 기초 강의 실시, 영적 은사의 발견이 포함된다. 실제 훈련에서는 강의 듣기와 독서, 관찰, 경험(역할극, 또는 '실험적 내담자'나 친구의 활용 등)을 통하여 평신도 훈련생에게 상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훈련 후 단계는 계속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신참 평신도 상담자들이 다른 경우를 토론하고 지도하며, 격려하는 후속 단계이다.

또한 미국에서 잘 알려진 평신도 상담자 훈련의 모본에는 로렌스 크랩의 모본, 게리 스워튼의 모본, 호레이스 루큰의 모본, 케니스 호크의 모본과 스테반 시리즈<sup>100)</sup>가 있는데 그 중 호레이스 루큰의 모본은 모두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단계는 관계를 시작하고 정립하는 기술, 경청 기술 등 카커프의 핵심 조건을 포함한다. 제 2단계는 심리학, 발달 심리학, 비정상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다루며, 제 3단계는 자신들의 개인적 욕구와 동기를 살펴본다. 또한 심리 검사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은사와 재능, 강점과 약점, 기질 또는 성격 특성도 파악한다. 제4단계는 상담 기술을 더욱 더 개발하고 세련시키는 데 초점이 있으며, 실행에 옮기는 훈련, 나누고 가르치는 반응, 면접 기술, 문제의 정의, 상담 과정을 포함한다. 제5단계는 상담자 훈련생을 위한 상담 지도이다. 제6단계는 결혼과 가족 치료, 직업 평가나 상담, 재정 상담, 내적 치유와 해방이 포함된다.<sup>101)</sup> 연구자는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있어 호레이스 루큰의 모본을 참고하여 그 훈련 과정을 총 5학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평신도 상담자 훈련 내용

	주제	목적
1학기	평신도 상담의 기초	성경적 상담의 원리 및 실제와 기초적인 인간관계 훈련 배우고 익히기
2학기	부부 및 가족 상담	각 세대간의 발달위기와 일반위기 이해 및 위기에 따른 상담 방법 익히기
3학기	인간 발달 및 상담 이론	전인적인 인간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상담이론 공부하기
4학기	위기 상담 이론 및 상담 방법	부부치료 및 가족치료 이론공부 및 실습

100)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28-134.

101) Ibid., 131-132.



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최소치였던 필요 중심적 전도의 점수가 41점에서 60점으로 19점이나 향상된 것이다. 또한 사랑의 관계는 70점에서 97점으로 27점이 향상되었고 평균은 19점 높아졌다.

〈표 12〉 한밀 교회의 NCD 진단 결과

	2000년	2001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58	71
은사 중심적 사역	59	83
열정적 영성	45	70
기능적 조직	61	72
영감 있는 예배	49	60
전인적 소그룹	60	79
필요 중심적 전도	41	60
사랑의 관계	70	97
평균	55	74

넷째, 평신도 상담 활동을 조직적으로 활성화시켜 많은 평신도 상담자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아직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밀 교회의 평신도 상담 사역 - 상담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통계적 검증 작업 실시 및 지속 교육 실시 등 - 은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시켜 교회를 돕고 섬기고자 하는 한국 교회의 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목회자가 슈퍼바이저 사역을 감당할 때 임상적인 경험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점은 내담자의 정서적, 관계적, 행동적 문제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기에 통전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상담자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목회자가 내담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 슈퍼 비전을 받으러 온 평신도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를 잘 도와줄 수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목사에게 돌봄과 지지를 받기 원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슈퍼바이저로서 자신을 직면시킬 경우 교인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교인과 목사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목회자에게 과중한 짐이 더 부가될 수 있고 상담자와 슈퍼바이저인 목회자가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며, 상담자가 훈련 부족으로 인해 내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상담 목사를 따로 두어 슈퍼 비전을 받게 하고 연구자는 목회에 전념토록 하는 조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회 내에 상담실 조직을 만들어 상담 관련 전공자나 면허를 가진 상담 전문가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평신도 상담자를 계속적으로 돕거나 슈퍼 비전하도록 하고, 목회자는 상담 책임자를 관리, 감독하거나 돕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일반인 상담 전문가나 상담 목사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상담 센터를 세워서 상담 센터가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본 교회로 가서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센터가 교회와 협력하는 관계로 사역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현재 위의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미래에는 세 번째 방안을 고려 중이다.

## 제 7 장

###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

##### 1. 목적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목적 및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평신도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이 훈련은 평신도 상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상담 기술 및 태도 습득의 과정 제공으로써 이 훈련을 통해 훈련자들은 공감 능력 및 효율적인 의사 소통 기술을 경험할 것이며 실제로 인간관계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이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은 자기 발견과 자기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신자들은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은 상담 활동의 기회가 넓어지게 되어 실제 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 훈련은 성경적 상담에 기초한 것이므로 영적 성장이 촉진될 것이며 집단 경험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는 의사 소통 능력 검사,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 상담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 및 상담자 훈련 전체 평가서를 사용할 것이다.

##### 2. 과정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4단계 - 계획, 수립, 실시, 평가 - 에 따라 본 프로그램



램의 개발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03)</sup>

〈표 13〉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정

단 계	기 간	활 동
프로그램 계획	1996~1997년	평신도 상담에 대한 구상 및 연구
	1997년 1월 ~	평신도 상담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교회 분위기 조성
	1999년 2월 ~	관련 논문 및 자료 수집
	2000년 3월 ~	교회 제직들에게 훈련의 필요성 설득 및 상담 관련 석사들과의 토론
프로그램 구성	2000년 8~10월	프로그램 내용 연구 및 개발
	2000년 8월 ~2001년 1월	개발된 프로그램 실시 실시 후에 발견된 문제점 보완 및 수정 최종 프로그램 완성
프로그램 실시	2001년 1~3월	측정 도구 선정(공감적 반응 수준, 의사 소통 능력,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CTPQ)) 및 실험집단 과 통제 집단 구성 실제 평신도 상담자 훈련 실시
프로그램 평가	2001년 4월 ~5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평가 자료 처리 연구 논문 작성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방향 및 지침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가 있었다. 먼저 평신도 상담과 관련된 개인적인 구상 및 국내외 문헌 연구와 프로그램 진행을 돕기 위해 교회 제직 및 석사 출신의 상담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국내외의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이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터멜의 기초적인 수준의 동료 상담자 의사 소통 훈련 프로그램과 추석호의 의사 소통 기술 훈련, 심상권의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평신도를 위한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10회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해 본 결과 프로그램 내용이 집단의 응집력 및 자신의 성장과 타인 이해 증진의 효과는 높으나 상담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성경적

103) 김광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 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30.

상담에 대한 이해 습득에는 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 기술 습득에 필요한 인간 관계 훈련 기술을 좀더 보완하였고, 평신도 상담에 대한 개념 및 실제 외에도 상담 윤리와 수퍼비전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여 10회의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재수정 되었다.

또한 훈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실습 시간이 부족한 아쉬움을 지적하였고 훈련자와 보조 훈련자의 의견으로는 훈련 과정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시행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매회마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시간도 정하였다.

최종 완성된 프로그램 실시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위한 통계 작업을 위해 통계 및 심리학 연구 방법에 관련된 박사 학위 논문을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상담 관련 출신의 석사 2명과 함께 10여 회의 토론을 거쳐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할 측정 도구를 선정한 후 2001년 1월에 평신도 상담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때, 탄상양의 기준에 따른 선발 기준과 한밀 교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상담자 훈련의 선발 기준을 명시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8장의 논의 및 제한점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3. 선행 연구

평신도 상담자는 일반인들도 훈련만 잘 받으면 전문 상담가 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일반 심리학회 내에서 동료 상담자를 활용하여 상담한 것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로 먼저 일반 심리학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료 상담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반 심리학과 성경적 상담을 통합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대한 연구 보고가 국내에 보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동료 상담자 훈련은 상담 실습자 훈련의 한 형태로 이들의 훈련 내용이나 방법은 구조화된 절차와 활동,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과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 <표 14>는 동료 상담자 훈련을 실시했거나 이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 및 기법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sup>104)</sup>

출처	내 용	기 법	기 간
김정희 (1990)	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 인간관계 이론, 상담 기술, 지도성 훈련	강의 역할 연기	30시간-기초, 14시간-재교육
이수용 등 (1990)	의사 소통 기술: 관심 기울이기, 경청, 명료화, 공감, 주장, 직면, 가치 명료화	강의, 시범, 실습	20시간-기초 20시간-심화
장혁표(1986)	자기 각성, 대인관계 기술, 의사 소통 및 상담 기술	강의, 실습	20시간
추석호(1987)	의사 소통 기술: 공감, 온정, 자기 노출	강의, 실습	20시간
Chikering (1987)	의사 소통 기술, 전화 상담 요령, 의뢰	강의, 실습	15시간-훈련 15시간-실습
Campbell (1988)	경청, 정신 건강, 의뢰	소집단	
Frisz(1986)	대학조직 및 학사일정,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가치 명료화, 의사결정 기술, 면접 기법		2학기 (약 35-40시간)
Kehayan (1987)	의사소통 기술, 조력 역할, 자기평가	강의 지도감독	1학기
Mccarthy et al. (1975)	온정, 진실성, 공감, 자기노출, 경청	강의, 시범, 실습	18시간
Russel(1987)	면접기법, 대인관계 및 의뢰기술, 집단 역동, 약물, 스트레스, 성문제		10시간-기초

104) Ibid., 118.

Tindall 등 (1985)	*의사소통 기술: 경청, 관심 기울이기, 공감, 질문, 진실성, 요약, 문제해결 *고급: 약물, 스트레스 대처, 소집단 리더, 가치 명료화, 리더쉽 등	강의, 시범, 실습, 평가	각 훈련별 시간 다양
USAFA (1989)	기초 상담 기술, 위기 중재, 동기화		1학기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동료 상담자 훈련에서는 전문적인 상담 실습자 교육에서 선수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론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상담 기술 및 동료 상담자가 담당해야 할 실무적인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담 기술 및 실무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 비교적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의사 소통 훈련이며 이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 전화 상담, 의뢰, 위기 중재, 의사 결정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초 수준의 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되는 고급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문제 영역-약물 및 음주, 스트레스 대처, 소집단 리더 등-에 따른 훈련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sup>105)</sup>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상담 기술 및 태도 습득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채택한 의사 소통 훈련을 중심으로 그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인 의사 소통 훈련 모형의 기본은 카커프의 인간 관계 훈련 모형(Carkhuff's Human Relations Training Model)과 아이비의 미시적 상담 모형(Ivey's Microcounseling Model)이다. 이 두 모형의 공통된 특징은 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행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집중적인 실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카커프의 모형에는 인간관계 과정에서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여덟 가지 조건들, 즉 공감(empathy), 존중(respect), 온정(warmth), 구체성(concreteness), 진실성(genuineness),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직면(confrontation), 즉시성(immediacy)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적 기법 훈련과 시청각 매체를 통한 자기관찰에 강조를 둔 아이비의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법 및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① 초보 상담자의 기술: 관심 표명 행동, 개방형 질문 등, ② 경청의 기술: 감정의 반영, 바꾸어 말하기, 요약, ③ 서로 주고받는 기술: 검사 결과의 해석, 상호간의 직접적인 의

105) Ibid., 19.

사 교환, ④ 해석적 기술: 인지적 재구성, 대안의 제시 등이다. 턴델 등은 이 두 개의 모형을 통합하여 동료 상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초적인 의사 소통에 필요한 기술로 관심 기울이기, 공감, 요약, 질문, 진실성, 주장, 직면,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이수용의 관심 기울이기를 포함한 6개의 기술 중심의 의사소통 훈련도 카커프와 턴델 등의 모형을 기초로 한 것이다.<sup>106)</sup>

한편 동료 상담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T 그룹, 참만남 집단, 자아 성장 프로그램 등 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상담자로서 활동하게 하는 방법과 실제 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기술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단계별로 가르치는 방법이다.<sup>107)</sup>

턴델 등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서 전자의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후자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집단 상담과 동료 상담자 훈련은 그 목적이나 효과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집단 상담의 주목적이 자기와 타인의 긍정적 이해라면, 동료 상담자 훈련의 주목적은 효과적인 상담 기술과 태도의 습득이고 자기의 이해나 향상은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동료 상담자 훈련 방법은 집단 경험과는 별도로 이들의 수준이나 활동 영역에 따라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sup>108)</sup>

이러한 맥락에서 턴델 등은 동료 상담 기술 형성에 필요한 훈련 절차를 다음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강의, 시범, 실습, 평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 절차가 다음 행동의 학습으로 이어지는 순환 패턴으로 각각의 행동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형성을 위한 훈련 과정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집단 지도 프로그램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sup>10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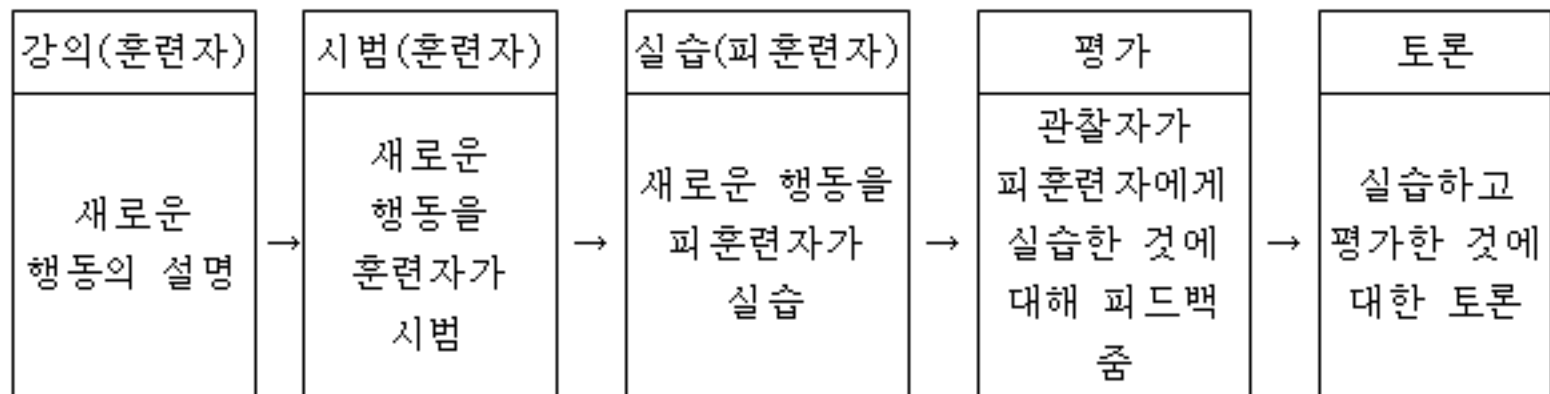
106) 이수용, 문길린, “대학생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료 집단 상담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도 상담, vol. 14, 계명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990), 1-48.

107) Ibid.

108) 김광은,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연구”, 20.

109) A. J. Tindall & H. D. Gray, Peer Counseling-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1985).

〈그림 3〉 기술 형성을 위한 훈련 절차(Tindall 등, 1985)



동료 상담자 훈련에 요구되는 시간은 훈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심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 수준에서는 15-20시간이 일반적이며, 재교육 및 심화 과정이 있는 경우 이 이상의 시간을 훈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알렌(D. A. Allen)은 비슷한 가치나 생활 경험의 공유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동료 상담의 특성상 장기간의 훈련으로 동료 상담자의 가치 체계가 변화되는 경우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sup>110)</sup> 중요한 것은 비록 단기간의 훈련일지라도 피 훈련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짜여져 있어야 하며 동료 상담자 훈련이 행해지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나.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미국에서 시행되는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예는 아주 다양하다. 게리 콜린스는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유용한 훈련 프로그램과 자료를 많이 집필하였다. 1976년 게리 콜린스는 평신도에게 12시간에 걸쳐 기초적인 돕는 기술을 훈련하는 교과와 실습서, 오디오 테이프를 한데 모아 조력자 꾸러미(People Helper Pak)를 만들어 평신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독교 상담: 종합 지침(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을 1980년에 처음으로 출판하였고 1988년에는 그것을 증보 개정하였다.

제이 아담스는 일반인들이 권면적 상담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권면적 상담에 관한 책을 몇 권 썼다. 찰스 솔로몬(Charles Solomon)은 '영적 치료'를

110) D. A. Allen, "Peer Counseling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Journal 21, (1973), 35-40.

시작하였고, 특히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의 ‘영적 치료’ 접근을 사용하고자 하는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하기 위한 책을 두 권 썼다. 윌리엄 헌트(William Hunt)는 개인적 상담과 전도에 관한 것으로 보통 일반인을 훈련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하는 데 사용한다. 폴 웰터(Paul Welter) 박사는 평신도 돕기와 상담 기술을 은퇴 센터와 요양원 직원에게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에밀리 오스본(Emily Osborn)은 문제나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전문적으로 돕는 평신도 또는 준전문 가족 상담자를 위한 15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sup>111)</sup>

여기서는 탄상양이 개발한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12시간 기초 훈련 프로그램과 그것을 일년으로 확대한 훈련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평신도 상담자 기초 훈련 프로그램

12시간 기초 훈련 프로그램은 격주로 모이므로 6개월이 걸린다. 매 훈련 시간은 3시간이다. 격주로 하는 대신 매주 3시간씩 하여 3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독교 상담 모본은 성경적 근거를 가진 인지-행동적 모본이다. 훈련 시간에는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강의, 구체적 상담 기술의 실습, 문제점에 대한 토론, 3-5명으로 된 소집단에서의 역할극과 그에 대한 보충과 토론, 각 훈련생이나 평신도 상담자가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탄상양이 개발한 12시간 평신도 상담자 기초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다.<sup>112)</sup>

제1강 : 통합된 성경적 모본

제2강 : 기본 면접

제3강 : 유용한 상담 방법

제4강 : 상담자의 개인적 성장과 탈진의 예방

제5강 : 우울증

제6강 : 분노

제7강 : 불안

제8강 : 성

111)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35-138.

112) Ibid., 138-140

제9강 : 결혼과 가족 문제

제10강 : 영적 문제

제11강 : 소개와 정신 의학의 조정

제12강 : 당신의 상담 기술을 사용하기 : 지역 교회에서 상담 활동을 시작하기

## (2) 확장된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탄상양은 12시간 기초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더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일 년간의 시간제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sup>113)</sup>

<표 14>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부	제목	시간	주제
1부	서론과 개인적인 문제	12주 또는 36시간	효과적인 상담의 성경적 모본, 지역 교회의 평신도 상담, 기독교상담에 있어서의 위기 문제(윤리적, 법적 문제와 소개의 필요), 기본 상담 기술과 상담 과정의 개관, 몇 가지 유용한 상담 방법, 내적 치유, 상담자의 인격적 성장, 불안, 고독, 우울증, 분노, 죄
2부	독신과 결혼, 가족문제	12주 또는 36시간	독신, 배우자 선택, 결혼 전 상담, 결혼 생활의 문제, 임신 문제, 가족 문제, 이혼과 재혼,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사춘기, 청년기
3부	성과 대인관계 문제 및 그 외의 문제	12주 또는 36시간	상호 대인 관계, 혼외의 성, 결혼생활에서의 성, 동성 연애, 폭력과 학대, 열등감과 자존심, 신체적 질병, 비애, 정신적 장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재정 상담, 직업 상담, 영적 문제, 그 외의 문제들, 상담과 상담자

위에서 기술한 평신도 또는 준전문 상담자를 위한 1년으로 확장된 시간제 훈련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3부가 모두 계속 실시된다면 36주 또는 1년 내에 마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신도 상담자나 훈련생은 총 108시간 동안 평신도 상담에 필요한 주제와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

113) Ibid., 141-144.



람들을 돕는 평신도 상담 사역을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4)</sup>

## 제 2 절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상담자 훈련의 1학기용으로 매주 3시간씩 10회에 걸쳐 총 30시간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다. 전반부의 내용은 평신도 상담의 기본 개념, 평신도 상담의 과정과 실제,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기초 및 원리, 성경적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이며 후반부는 경청 훈련, 감정표현 훈련, 공감훈련, 자기개방, 직면훈련, 위탁과 슈퍼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평신도 상담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었고, 후반부에서는 기초적인 상담 기술 및 태도 습득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하려는 훈련 내용 및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20명 내외의 집단을 중심으로 상담의 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청(5회), 감정 표현(6회), 공감 훈련(7회), 자기 개방(8회), 직면(9회), 그리고 위탁과 슈퍼 비전(10회)의 기술 습득에 비중을 둔다. 그러나 기술 습득에 있어 상담자로서의 훈련 경험이 없는 평신도가 상담한다는 점에서 평신도 상담의 기본 개념(1회)과 평신도 상담의 실제(2회)에 대한 시간을 훈련 초기에 마련하였다.

둘째, 평신도 상담도 일반 상담과 같이 상담 기술 외에 상담자적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경적 상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도와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에 더 큰 초점을 둔다. 따라서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원리’(3회)와 ‘성경적 상담과 인지행동치료’(4회)를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켰으며, 모임을 찬양 및 기도로 시작함으로 평신도 상담자로서의 자세를 갖게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설명, 강의, 시범, 실습, 토의 및 평가의 5단계를 고루 포함시켜 상담 기술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전체의 진행 절차를 구조화하여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다.

114)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44.

넷째, 본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주된 골격은 탄상양이 제안한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게리 콜린스의 사람 돕기, 래리 크랩(Larry Crabb)의 성경적 상담 그리고 노만 라이트(Norman Wright)의 성경적 인지 행동 치료적 관점을 그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1회 훈련을 하기 전에 준비 모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짐으로써 훈련의 목적과 내용, 방법, 훈련 일자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때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검사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 걸렸다).

다음 <표 15>는 10회의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이다.

<표 15>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회	제 목(주제)	목적
1회	평신도 상담의 기본 개념	일반 상담, 목회 상담 그리고 평신도 상담에 대한 개념 이해
2회	평신도 상담의 실제	평신도 상담의 실제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
3회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기초 및 원리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기초 및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상담 기법 숙지
4회	성경적 상담과 인지 행동 치료	성경적 상담과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이해 및 성경적 상담의 7단계 모델 숙지
5회	경청 훈련	대화의 기술 및 경청의 태도 익히기
6회	감정 표현 훈련	자신에 대한 감정 인식 및 감정 표현 연습
7회	공감 훈련	공감 훈련을 통한 수준높은 공감 익히기
8회	자기 개방 훈련	자기 개방에 대한 이해 및 실습
9회	직면 훈련	올바른 직면에 대한 이해 및 직면 연습
10회	위탁과 슈퍼 비전	위탁 및 슈퍼 비전에 대한 이해

#### 1. 1회: 평신도 상담의 기본 개념

##### 가. 목적

일반상담 및 목회상담, 그리고 평신도 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 나. 친해지기(30분)

첫째, 2명이 1조가 되어 한 조에 수건 1개씩을 주고 한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수건을 뺏도록 하며 다른 사람은 뺏기지 않도록 한다(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한다). 둘째, 4명이 한 조가 되어 수건 뺏기 한 느낌을 나누고, 이 과정에 참여한 이유와 이 과정이 끝날 때쯤 변하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눈다.

#### 다. 강의(70분)

상담자가 어떠한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담의 원리와 과정, 기법에 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러 상담 이론들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평신도 상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반 상담

현대의 주요 상담 이론들과 정신 치유의 이론들을 조사해 보면 모든 이론들을 종합하여 통일할 수 있는 공통된 철학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이해에 대한 차이와 상담 과정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가정의 차이에 따라서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 상담 이론의 커다란 다섯 가지 이론-정신 분석, 행동주의, 인간 중심 치료, 의미 요법, 절충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 (가) 정신분석 상담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분석 상담은 결정론적이며 환원적 시각에서 인간 본성을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의 무의식과 생물학적 욕구와 충동,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 사이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심리 역동 현상을 강조한다. 하지만 프로이드의 관심은 심리 성적 이론에 있다. 그것은 인간이 신체적 쾌감의 극대치를 얻으려 하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에너지와 리비도(libido)가 입, 항문, 성기 등 쾌락의 주된 근원이 되는 정해진 이행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비도의 이행은 부모나 주된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심리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심리 성적이란 용어는 심리적, 성적 발달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압축하고 있다. 이 발달 과정은 구강기(0-1세), 항문기(1-3세), 성기기(3-5세 경), 잠복기(7세-사춘기 시작 이전까지), 생식기(사춘기 이후-성인기) 등으로 나뉘어진다.

정신분석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강조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원초아와 초자아의 충돌로 인해 불안이 발생할 때 억압·합리화·투사(기만형 방어 기제), 승화·반동 형성·대치(대체형 방어 기제) 및 부정과 퇴행(도피형 방어 기제)을 사용하는 무의식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

정신분석 상담은 치료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 성격을 재구조화하며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켜 초자아에 덜 의존하여 원초아가 자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관찰과 참여를 적절히 하며 내담자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치유 계획을 세운다. 주요 기법은 과거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위해 해석을 사용하며 자유 연상과 꿈의 분석, 저항과 전이의 문제를 다루며 상담자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대처하고, 상담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혼습(working through)을 통해서 새 삶을 학습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깊이 있는 통찰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프로이드 심리학이 기독교 목회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는 벌과 관련시켜 죄인으로 보아왔으나, 이후부터는 그들을 죄인이 아닌 환자로 보게 되었으며 많은 문제들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깨닫게 되었다.<sup>115)</sup>

그러나 그의 이론은 자신의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병리적이고 추론적이며, 인간을 너무 성추동적 존재로 이해하였다. 또한 인간발달에 있어 초기 결정론적 주장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나)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 상담은 동물의 학습에 관한 소련의 생화학자 파블로프(I. L. Pavlov)의 조건 반사 실험에 감동된 왓슨(J. B. Watson)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었고 스킨너(Skinner)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1958년 래저러스(A. A. Lazarus)는 정신증 환자에 대한 조작적 조건화 원리와 적용과는 다른 행동 요법가의 역할을 개념화하였고 그는 행

115) 정태기, 나는 치유하는 목회자인가?, 179.

동요법을 정신 치료의 보조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인간의 행동 교정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임상에 응용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 수정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행동 치료라고 부른다. 행동 수정은 그 인간관이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S(Stimulus)-R(Response)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행동 치료는 인간의 자유와 의지적 선택을 강조하는 인지적 접근의 영향을 받았다(S-O(Organism)-R).

행동 치료는 파블로프로부터 스키너에 이르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기초한 학습 이론에 근거를 두고, 예리한 관찰과 정확한 측정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행동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고 부적응 행동 자체의 치료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 상담은 인간의 심층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이론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 행동주의 상담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담자가 되는 데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정할 행동이 무엇인지 그 목표가 뚜렷하고 소실되어 가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행동주의 상담은 모든 사회적인 행동의 표현은 그것이 건강하든 또는 부적응적이든간에 학습된 것이거나 또는 학습 과정에서 왜곡 또는 결함을 나타낸다는 전제하에서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행동의 왜곡과 결함은 새로운 학습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 역동적 정신 치료는 과거 경험에서 근원을 확인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에, 행동주의 상담은 '결과'를 통하여 행동의 조절에 중점을 두는 점이 서로 다르다.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상담 목표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상담 목표로는 부적합한 행동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정하며, 달성 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한다.

상담 과정은 첫째, 상담 관계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확실히 규명해야 하고, 셋째, 문제 행동이 규명되면 그 문제 행동과 관련된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느낌, 행동, 가치, 그리고 생각 등에 있어 약한 점뿐만 아니라 강한 점도 파악한다. 즉, 내담자에 의해

제시된 문제 행동과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장면, 동기, 발달 과정, 자기 통제력,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을 분석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된 자료나 문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접근한다.

상담기술은 '마치 ~처럼' 상상하는 것, 사고 통제, 폭발 기법, 주장적 훈련, 체계적 감각법, 혐오 요법, 대면 요법, 정서적 상상법,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토큰 요법, 모델 요법, 역할 연기 등을 사용한다. 상담의 종결은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상담 과정에서 배운 원리를 내담자의 다른 행동 변화에 전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상담을 종결해야 한다.

행동주의자들의 공헌은 첫째, 상담의 구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 기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다. 둘째, 치료자의 보따리 속에 굉장히 많은 구체적 행동 기법을 넣어주었으며, 세 번째는 치료 성과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강조로 상담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존엄성의 측면보다 기계적이며 비인격적 존재로 보는 경향 즉, 수동적인 강화의 산물로 보는 시각 등이 있다.

#### (다) 인간 중심 치료

인간 중심 치료는 칼 로저스(Carl Rogers)가 1940년대에 처음 개발한 인간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접근으로 계속 발전 중에 있는 치료 양식으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적 역동에 중점을 둔다. 1974년에 로저스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접근법의 이름을 '내담자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이 이름이 그들의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는 인간의 가치를 보다 적절히 설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의 중심 가설은 도와주는 사람이 진실성, 배려 그리고 매우 민감한 비판적 이해를 경험하고, 이런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장적인 잠재력이 방출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인간 본성이 직인이라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며 인간은 성장과 자기 실현을 향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유기체는 자신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

든 능력을 개발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본다.

행동주의에 있어 행동 변화는 자극과 보상이라는 외적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행동 변화는 개인 내부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행동 치료의 목표는 증상 제거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증상의 내적 경험이나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행동 치료는 학습 이론의 원리들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증상들을 제거하려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중심 치료와 아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인간-중심 치료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내적 경험에 의존한다고 믿는다.

인간 중심적 상담은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자와 치료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가 진솔성이나 일치성, 정확한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본다.

우선, 진솔함이란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함과 일치를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순간 순간의 느낌에 의존한다.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내담자가 보고하는 경험을 경험하며, 내담자의 경험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는 그 자신의 신체 내부 반응이 내담자가 겪는 그 상황 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상담의 과정에서 진솔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진솔한 상호 교류의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솔한 태도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속으로는 비판적이면서 겉으로는 수용적인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말이나 행동에 꾸밈이 없고, 내담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담자라는 역할 뒤에 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담자는 특히 느낌에 정직해야 하며 나쁜 감정 또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

둘째로 공감(empathy)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즉,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의 조망이나 말하는 구조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깨달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이며 그의 감정과 행동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인간 생존을 위한 심리적 영양소이며 심리적 산소로서 공감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자유롭게 숨쉴 수 있다.

셋째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담자가 외부적으로나 내부

적으로 판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가 불필요한 탐색, 승인이나 비승인의 표현, 해석 등을 하지 않고 내담자를 진솔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의 기초로서 그의 개별성에 대한 비소유적인 배려나 수용을 말한다. 이런 태도는 부분적으로 내담자가 실현화 과정에서 보이는 내적 지혜에 대한 상담자의 신뢰와 내담자가 스스로 자원 및 성장의 방향을 발견할 것이라는 상담자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상담자의 배려는 충고나 지시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상담자는 때때로 자신이 내담자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흔히 무비판적인 이해나 솔직한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한다. 인간 중심적 상담 치료 과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온다. 이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이다. 두 번째, 처음부터 상담자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그 자신의 해결책을 찾는 것임을 내담자에게 알려준다. 세 번째, 상담자는 문제에 관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한다. 이로 인하여 적의와 불안, 관심과 죄책감, 양가 감정(兩價感情, ambivalence), 우유 부단 등이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한다. 상담자의 유일한 목적은 적의의 감정이든 비판적인 것이든 이것을 물 흐르듯이 표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뿐이다. 네 번째, 상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명확히 한다. 다섯 번째,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표현되면 뒤이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총동이 다소 시험적으로 약하게 표현된다. 여섯 번째, 상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감정도 수용하고 인정한다. 여섯째, 통찰, 즉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전체 상담 과정 중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측면이다. 일곱 번째, 가능한 선택과 행동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 통찰의 과정과 혼재되어 나타난다. 여덟 번째, 약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적극적인 행위가 개시된다. 즉, 일단 통찰이 이루어지면 그 통찰에 의한 행동은 놀랍게도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낸다. 이런 통찰이 중요한 적극적인 행동을 낳는다. 아홉 번째, 자신에 대해 더 완전하고 정확한 이해를 한다. 열 번째, 내담자는 더욱 더 통합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열한 번째, 내담자는 처음으로 상담자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알고 싶어하고 매우 특



별한 우호적이고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토론하지만, 예전에 현저했던 의존심과 두려움은 더 이상 없다. 열 두 번째, 내담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점차로 없어진다고 느끼게 되고, 상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인식하게 된다.

상담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내담자가 자주 한다.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제는 더 이상 면담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감정도 명료하게 해준다.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는 아쉬움이 있지만 건전하게 끝내야 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상담을 종결한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은 지금까지 죄인으로만 보아오던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잠재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신뢰를 주었으나 반면에 인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것이 비판점이 되고 있다. 이 이론에서의 상담자는 전문가나 안내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고통을 깊이 들어주고 받아주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sup>116)</sup>

#### (라) 의미 요법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지나간 후 많은 유럽의 신학자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며,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생의 참 의미의 원천으로서 실존적 만남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기 시작했다. 키에르케고르의 후계자들은 그의 사고를 발전시켜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도 의미와 실존을 찾기 위해 투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의 바탕 위에 세워진 실존주의 심리학 이론은 현재 자유주의 교회와 신 정통주의 교회 목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과 롤로 메이(Rollo May) 등이 있다.<sup>117)</sup>

특히 의미 요법(logotherapy)은 빅터 프랭클에 의해 창안되었다.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를 둔 이 기법은 한마디로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건강해지고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되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미 치료의 인간관은 결정론

116) Ibid., 180.

117) Ibid., 181.

을 부인한다. 인간의 자유란, 결정되어진 어떤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그것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 프랭클 자신이 네 곳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고통과 자신을 분리시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심층 심리학보다는 고층 심리학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어느 순간이나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고,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즉, 자기를 묶는 상황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으나 결단을 위한 자유는 항상 남아 있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 해방을 뜻하는 자유가 아니라 태도를 선택할 자유인 것이다.

의미 치료는 본질적으로 실존이나 존재 이상으로 초월한다. 존재(ontos)뿐만이 아니라 의미(logos)에 까지 관여한다. 의미 치료는 다른 치료법과는 다르게 뚜렷한 생의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의 가정은 하나의 연쇄를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첫째, 의지의 자유(freedom of will)인데 이 단계의 특징은 어떠한 삶이든 삶의 상태가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자기 삶에 미칠 영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의미에의 의지(will to meaning)인데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힘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특수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의미에의 의지'는 사실이지 신념이 아니라는(fact, not faith) 것이다. 프랭클은 결국 패락에의 의지(Freud)와 권력에의 의지(Adler)는 본래 의미에의 의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락에의 의지는 결과를 목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며, 권력에의 의지는 목적에 대한 수단을 목적 자체로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의미를 지향하는 동시에 의미와 대면하여야 한다. 의미와의 대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제시되는데, 첫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의 정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의미와 존재는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의미는 반드시 존재의 전방에 있어야 한다. 의미는 존재에 보조를 맞추고 존재는 자체를 넘어서 향하는 초월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는 개인의 삶은 특수한 의미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각 사람은 유일한 존재이며 각 사람의 삶은 독자적인 것이다. 아무도 삶을 대신할

수 없고 반복할 수도 없다.

프랭클은 무의미감과 공허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라고 하였다.<sup>118)</sup> 이 용어는 매슬로우(Maslow)의 절정 경험(peak-experience)과 정반대 되는 경험으로 심연 경험(abyss experience)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존적 공허는 근본적으로 권태(boredom)와 무감각(apathy)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 정신적 질병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간 상실 현상인 것이다. 실존적 공허의 시대인 오늘의 교육은 전통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인간에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실존적 공허의 시대의 교육적 사명은 학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의미 치료에 있어 치료자는 환자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의미 치료는 첫째, 환자를 그들의 증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둘째, 삶의 태도를 수정하며 셋째, 환자가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의미 치료는 만병통치약이 되거나 실존적 신경증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 되려하지 않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정신적 안녕에 기여를 하려 한다.

이 이론의 단점은 인간의 의지를 주로 강조함으로써 감정 중심의 사람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 (마) 절충주의 상담

절충주의는 상담의 특정 학파나 접근 방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 방법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과 기법을 빌려와 사용한다. 즉, 자기 나름대로 상담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sup>119)</sup> 이는 과거처럼 한가지 이론이 모든 문제와 증후군을 위한 완전 무결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임상적 경험에서 얻음으로써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증후군과 내담자의 성격에 따라서 해결 및 치료적 방법과

118)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Books, 1974), 167-168.

119)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제석봉 외 역 (서울: 학지사, 1992), 468.

접근이 유연하고 다양하다. 이런 유연한 접근을 소위 절충적 접근(Eclectic Approach)이라고 한다.<sup>120)</sup> 실존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상담자라 하더라도 행동주의 상담이나 객관적·합리적 인지 요법들이 개발한 기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상담 이론을 완전한 진리라고 주장하기 보다 각 방법과 이론의 관점을 통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sup>121)</sup> 그러나 효율적인 절충주의가 되려면 여기저기서 개념이나 기법을 단순히 빌려온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전체 과정에 일관성을 띌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2)</sup>

## (2) 목회 상담

목회 상담은 교회의 맥락에서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고난당하는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나 갈등, 상처, 혹은 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즉, 교인들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극복하여 바람직한 회복과 변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목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23)</sup> 이러한 목회 상담에 대해 반피득(Peter van Lierop)은 전인적 성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숨은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며, 또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다.<sup>124)</sup>

그뿐만 아니라 목회 상담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관계적 인간성’을 제공한다.<sup>125)</sup> 목회자는 상담 중에 있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관심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목회자가 제공하는 것은 인격적인 현존과 유효성, 즉 교인

120) 심상권, “목회 상담과 심리 치료의 실제”, 숭실대학교 제8회 전국 목회자 신학 세미나(2000), 49.

121) Gerald Corey, 상담학 개론, 오성춘 역 (서울: 장로회 신학 대학 출판부, 1990), 311.

122)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468.

123) 김만풍, “전인 치유에 있어서 목회 상담의 역할”,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94.

124) 반피득, 목회 상담 개론 (3판;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12.

125) John Patton, “Pastoral Counseling”,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Rodney J. H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20-22.

이 목사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공감적인 이해를 경험하는 관계이다. 상담은 단 한번의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훌륭한 목회 상담에는 문제 제기와 경청만이 아니라 인격들의 만남이 포함된다.<sup>126)</sup> 이러한 목회 상담 사역은 영적인 측면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목회 상담자는 일반 상담자들과 같이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하여 인간의 정서장애나 성격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행동 수정 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결함을 치유하면서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능력과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삶으로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상담자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하는 자요,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돌보는 자이다. 목회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대화하는 중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마 18:19-20). 그래서 윌리엄스(Daniel Day Williams)는 상담 대화의 제3자(the third person)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즉, 예수님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친히 오셔서 대화를 들으시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도우시며, 내담자를 치유하시는 참여적 제3자가 되신다.<sup>127)</sup> 이런 경우 상담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가 그 대상이 같으며 상담 원리와 실체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담의 목표와 상담 자원에 있어서 그 특징을 달리한다. 일반 상담은 1차원적 인간의 내면 또는 횡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문제/증후군들을 그 상담과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수평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증후군들을 상담과 치료의 대상으로 하면서 수직적인 인간의 종교 욕구에 대해서는 그 치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목회 상담은 우선적으로 상담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평적 심리적 병리 현상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적인 관계까지 그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의 종교 자원(religious resource)을 치료 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인 것이다.<sup>128)</sup>

126) John Patton,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역 (서울: 은성 출판사, 2000), 297-298.

127) 오성춘, 목회 상담학, 375.

128) 심상권, “목회 상담과 심리 치료의 실제”, 송실대 기독교 문화 연구소 편, 송실대 전문 목

### (3) 평신도 상담

#### (가) 평신도 상담의 목표

평신도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영적 탄생을 목표로 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거나 한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상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골 1:28-29).<sup>129)</sup>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러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배경은 영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 상담은 그들의 삶의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뿌리와 가치의 뿌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 첫째, 내담자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둘째, 내담자의 의식 영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의식 상태를 자각하고 자신의 문제나 죄된 본성을 발견하여 올바른 삶의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내담자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수용'의 태도를 갖게 한다. 자신의 신체 조건이나 성, 결혼 생활, 부모, 자녀, 직업, 배우자 등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게리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평신도 상담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sup>130)</sup>

① 필요할 때 지원해 준다. ② 감정의 표현을 격려해 준다. ③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지적인 통찰을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④ 죄, 무책임,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행동, 생활의 모순 등 문제를 직시하도록 내담자를 면박한다. ⑤ 사고 요령을 가르친다. ⑥ 내담자가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쓸 때 그 내담자를 격려하고 인도한다. ⑦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 이를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⑧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버리도록 도와준다. ⑨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⑩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고 있는 이들을 인도한다. ⑪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제자로서 성장할 것을 권고한다. ⑫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회자 세미나 (2000), 45-46.

129) Norman Wright,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Eugene: Harvest House Publishers, 1977), 19.

130) Gary Collins, 훌륭한 상담자, 91.

는 내담자를 전문가에게 위탁한다.

#### (나) 평신도 상담의 인간관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본질상 부패한 악의 구조, '타락한 구조'가 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다는 의심에 그 뿌리가 박혀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도 선하심은 신뢰하지 못하는<sup>131)</sup>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그 틀에 스스로 얽매어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되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다. 그러나 죄는 즉각적으로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그의 대답은 첫째, “두려워하여”(아담의 핵심적인 감정), 둘째, “벗었으므로”(핵심적인 행동), 셋째, “숨었나이다”(핵심적인 방어 수단)의 세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담의 감정의 핵심은 두려움이다.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의 두려움이며, 배척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다.<sup>132)</sup> 이 두려움을 덮고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나름대로의 방어층을 형성한다.

이 방어층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진실한 만남을 열망한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지만 소유욕과 집착으로 인해 실망하며 관계가 파괴되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된다. 둘째, 돈, 명예, 권력, 지위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농담, 거만한 태도, 남을 속이는 눈물, 위장된 회개와 겸손, 침묵, 각종 중독증에 빠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각종 방어기제<sup>133)</sup>로 위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거듭난 거룩한 구조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자유롭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해낼 용기가 있어야 한다.<sup>134)</sup> 첫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모습을 스스로가 깨닫고 중심에서 회개하는 고

131) Larry Crabb, 당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 1999), 85.

132) Larry Crabb, 격려를 통한 상담, 오현미, 이용복 공역 (서울: 나침반, 1986), 37.

133) 참조. 이금만, 발달 심리와 신앙 교육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2000), 41-47.

134) Larry Crabb, 당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197-198.

통을 느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친 해를 직시하며 받은 실망과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거절의 두려움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느끼며 무언가 분명히 옳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으로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한다.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인간의 타락한 구조와 거룩한 구조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표 16〉 기독교적 인간관

	타락한 구조	단계	거룩한 구조
삶의 결과	안전감의 파괴	5	열매맺는 생활
나의 욕망	“성공할 거야”(교만)	4	“순종할 거야”(겸손)
자아상	자기혐오(내가 싫어)	3	자기 사랑
대인관계	자기 중심	2	타인 중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존	지나치게 의존(집착)	1	사랑으로 자유함
하나님의 선택	의심함(두려움, 분노)	토대	신뢰함(평강, 예배)

#### (다) 평신도 상담의 자원

평신도 상담은 성경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가 상담의 자원으로 활용된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사랑과 구원, 치유, 소망, 용서, 새로운 삶을 주셨는지를 보여준다.<sup>135)</sup>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삶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결과 가르침을 제시한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초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워주신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관여하시는 제3자가 되신다. 기도중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주의깊게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sup>136)</sup> 셋째, 평신도 상담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135) Kenneth C. Haugk, Christian Caregiving - a Way of Lif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118.



를 위하여 공동체의 지도하에서 상담한다. 그러므로 평신도 상담자는 교회라는 맥락에서 상담하는 자이다. 따라서 교회는 평신도 상담자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며 돕는 평신도 상담의 진정한 자원이 된다.

#### (라) 평신도 상담의 전략

첫 번째, 예방 상담(preventive helping)으로 평신도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방 상담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 예방 상담은 보통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차적 예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혼 전 상담은 이러한 예방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예방 상담은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사로잡거나 막으려고 시도한다. 이는 이차적 예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문제의 지속 기간이나 심각도를 차단시키는 일을 포함한다. 결혼한 부부를 위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때, 교회는 흔히 이차적인 예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3차적인 예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예방 상담은 문제의 영향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정신병 환자였거나 죄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직업을 구하려 할 때 보통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심과 편견, 그리고 거절과 불신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는 그 사람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전환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복귀하는 사람을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지도 모르는 주민의 배척을 예방해 줄 수 있다.<sup>137)</sup>

두 번째, 단기 상담으로 평신도 상담은 그 특성상 단기 상담으로 접근된다. 단기 상담은 영어로 'short-term counseling, brief therapy' 등으로 부른다. 'short-term'이란 상담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고 기간이 짧다'는 의미이고 'brief'란 '치료의 목적을 구체화, 단순 명료화시켜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이다.<sup>138)</sup> 이렇게 단기 상담이란 시간적, 전략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을 말한다. 단기 상담 모

136) Ibid., 106-107.

137) Gary Collins, 훌륭한 상담자, 162-163.

138)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연사, 1990), 225.

델은 교육적 단기 상담, 치료적 단기 상담, 지지적 단기 상담, 문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 있다.

첫째, 교육적 단기 상담은 내담자가 한 가지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로 다른 문제들과 복합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성격이 단순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 적합하다. 둘째, 치료적 단기 상담 요법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자료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건, 상호작용 과정, 그 과정 중에 내담자, 상담자, 당사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치료 자료로 사용되며 더 나아가서 상담자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일반화하여 반복성, 유형성 등을 발견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셋째, 지지적 단기 상담 요법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지지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한다. 단기적인 지지요법이 처방될 수 있는 사례는 상황적으로 위기를 맞는 내담자,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내담자, 타인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입은 내담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문제 해결 중심의 단기 상담 요법은 의사 결정, 진로 선택, 일시적 고충 등 명확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에서 시도된다. 단, 이때 주의할 것은 의사 결정이나 선택을 상담자가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sup>139)</sup>

#### 라. 토의 및 평가(30분)

전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나눈 후 기도로 끝마친다.

#### 마. 과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하신 장면을 묵상하고 배움과 느낌을 써오고 상담 이해 질문지에 O, X로 체크해온다.

---

139) Ibid., 232-238.

〈표 17〉 상담 이해 질문지140)

다음 질문지를 읽고 맞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표기하십시오.

	질문 내용	
1	상담에 있어 직면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여 그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	성경은 조력 모델보다 상담의 직면 모델을 더 많이 가르친다.	
3	우울은 죄이다.	
4	상담 방법으로 경청은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방법이다.	
5	충고는 부적절한 상담 방법이다.	
6	성경만이 상담에 있어 합법적인 정보원이다.	
7	모든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다.	
8	심각한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 가지 않고 기도나 성경을 통해 치료 가능하다.	
9	심각하게 혼돈 된 사람이 도움을 받으러 당신에게 왔다. 지역적으로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닐 경우,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목회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정신병은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생긴다.	
12	어떤 사람의 정서가 안정적일 때 영적인 삶도 안정적이다.	
13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개념은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억압해야 함을 말한다.	
14	당신의 영적 은사가 자비라면 상담이 자연스런 사역이 될 것이다.	
15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각각 다른 영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는 상담자가 될 수 없다.	

## 2. 2회: 평신도 상담의 과정과 실제

### 가. 목적

평신도 상담의 과정과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

140) Norman Wright,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Eugene, Oregon : Harvest House Publishers, 1977), 7.

## 나. 강의(80분)

### (1) 평신도 상담의 과정

여기서는 상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초보 상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 (가) 상담 신청 및 예약

일반적으로 상담의 시작은 상담의 신청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예약으로 이루어진다. 두 경우 모두 내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의뢰인, 내담자의 성별 및 연령, 문제유형, 연락처, 접수자 서명 등)를 확보해야 하며 내방신청인 경우 상담신청서를 준비하여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평신도 상담은 내담자를 찾아가 돌보는 상담을 할 때가 더 많다. 이때 평신도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일반적인 상담의 틀보다는 내담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 (나) 상담의 시작 및 초기

일반적인 상담에 있어서 첫 면접은 상담자와의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는 기회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첫 면접의 목표로는 상담에 대한 기대 확인 및 상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기대 조성,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이해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상담의 초기 과제는 첫째,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상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도록 자극하며, 둘째,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구조화 및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요약 및 명료화해야 한다. 넷째, 상담자와 내담자는 합의하에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 (다) 상담의 중기

중기의 과제는 첫째, 자각과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사고의 촉진, 둘째, 저항 다루기,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실천 행동의 계획, 실천 그리고 직면과 평가 등이 있다.

### (라) 상담의 종결기

일반적으로 상담의 종결은 당초에 세웠던 목표에 비추어 상담의 진행 결과가 성공적이었거나 실패했을 때에 이루어진다. 상담 과정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우선 상담의 진행 과정과 내담자의 변화 정도를 검토하며 내담자와 충분히 논의한다. 종결의 과제는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며 내담자의 감정 및 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상담 종결 후의 자신감 및 전이 학습을 정리하고 상담자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며 또한 추후 상담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상담을 마무리할 때의 대화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내담자의 현재 감정을 알아보는 대화의 기술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난 현재의 감정을 알아준다.

예)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난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감정으로 와 닿습니까?”

둘째, 내담자가 상담을 정리하도록 돕는 대화의 기술로 많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정리된 기분이 들도록 돕는다.

예)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셋째, 내담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대화의 기술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배운 내용을 강화를 통해서 다음 시간을 대비하도록 한다.

예)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 평신도 상담의 실제

### (가) 치유 관계 형성

이 모델은 사람의 문제를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본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억압된 감정이나 마음의 고민을 두려움 없이 털어놓도록 격려하는 것이다.<sup>141)</sup> 이

과정에서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경청(잠 29:20)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집중을 해야만 상대방의 찌푸린 얼굴, 축 쳐진 어깨, 은밀한 한숨, 생기 없는 목소리, 물기어린 눈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감(잠 25:11)으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에 적셔지면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사랑을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면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격려의 말은 위력을 지니고 있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의해 유발된 말이다.

공감의 방법은 첫째, 경청과 같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손짓, 몸짓, 신체적인 접촉, 시선의 접촉, 그리고 얼굴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도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 셋째, 상대방이 말할 때의 목소리와 비슷한 톤으로 말한다. 넷째, 상대방이 말할 때는 물론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응한다. 다섯째,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실제 말로 표현한 내용보다도 말로 표현하지 않은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42)</sup> 공감의 유익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로부터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하며 진실한 공감을 통하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있다.

세 번째, 명료화(잠 12:18)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어우러져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게 한다. 명료화 및 요약의 능력은 상담 중에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점을 요약하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도전하게 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명료화는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산발적으로 드러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특정 주제를 종결짓게 하고, 특정 주제를 보다 철저하게 탐색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sup>143)</sup>

141) 참조. Larry Crabb, 기독교 상담 심리학, 오현미 역 (서울: 나침반, 1993), 123-129.

142) 이형득 퇴임 기념집 간행 위원회 편, 집단 상담 프로그램 (대구: 한국 발달 상담 연구소 출판부, 1999), 355.

### (나) 심리 역동적 접근

의료적 접근 또는 정신 역동적 접근으로서 대화식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병으로 규정한다. 문제 행동의 뿌리는 과거, 어린 시절에 잠재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라기보다는 혼돈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는 타락함이란 환경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희생자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을 하는 이들은 상호 관계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관심을 쏟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본인이 고통받고 있으나 왜 아픈지 모르고 있으니 상담적 대화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진단해서 치유받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sup>144)</sup>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접근한다.

첫 번째, 질문 기법이 있는데 상담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러나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흔히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실수를 범한다. 따라서 질문은 아끼는 것이 좋으며 묻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면 유익하다. 첫째,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내담자는 자기 의견이나 더 많은 정보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등이다. 둘째, 둘 중의 하나를 요구하는 양자택일식의 질문은 피해야 한다.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독신으로 남고 싶습니까?” 등이다. 셋째, 간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라. “결혼이 파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니 기분이 어떻습니까?”가 직접적인 질문이라면 “결혼 파탄을 앞에 둔 심정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는 간접적인 질문이다. 넷째, 질문을 연달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받을 때 어떤 질문부터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질문은 내담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마지막으로 “왜?”라는 질문은 아껴서 하라.<sup>145)</sup>

두 번째, 탐색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이다. 탐색은 대부분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탐색은 또 다른 탐색을 해 나가도록 도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공감과 도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탐색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탐색은 구체성과 명료성을 띠게

143)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64.

144) 참조. Larry Crabb, 기독교 상담 심리학, 123-129.

145) Gary R. Collins,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96), 34-36.

한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전체 그림에서 빠뜨린 부분을 채우게 한다. 탐색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경험이나 행동이나 감정 중 빠뜨린 부분을 볼 수 있게 함으로 문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셋째, 문제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탐색은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게 한다. 넷째, 탐색은 상담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탐색은 내담자로 하여금 속내를 드러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결코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묻게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게 통찰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탐색을 통해,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 계획을 토대로 삼고 있는지 상담자 자신이 새로운 변화 계획을 토대로 삼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할 수 있다.<sup>146)</sup>

#### (다) 신학적 접근

일반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델로써 영적 접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권면적 접근은 대개 지시적인 상담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본다. 완악하고 교만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혼돈보다는 완악하다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행동 수정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들은 의지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행동 뒤의 동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세속적 상담자들 중 생각, 감정, 의지 3가지 분야를 다같이 강조하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 감정, 행동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참조. 빌 4:5-9). 그러므로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sup>147)</sup>

#### (라) 통전적인 접근

내담자를 대할 때 먼저 관계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으로 배려해 그와 친화감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 심리 역동적 대화로 그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통찰을 얻게 한 후, 마지막으로 신학적 접근을 통해 스스로 회개케 하여 변화와 치유를 경험토록 하

146)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56-164.

147) 참조. Larry Crabb, 기독교 상담 심리학, 123-129.



는 것이 통전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럴 때 그의 삶은 빛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sup>148)</sup>

#### (마) 상담자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대부분의 경우에 상담은 단기 과정으로 끝낼 수 있다. 특히 평신도 상담은 그러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상담자의 도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상담 과정이란 내담자로 하여금 특정 문제 상황이나 놓쳐버린 기회를 잘 다루어 나가도록 도울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도전을 받게 되면, 이행 단계와 그 이후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상담이 끝나고 난 뒤, 상담 과정 중에 정한 목표를 계속 추구하거나 상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내담자에게 달려 있다. 둘째, 이행 단계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난다. 셋째, 내담자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상담자와의 일대일의 개인 상담과 함께 공동체의 자조 집단에 참여한다. 넷째, 내담자는 자기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지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를 발달시킨다.<sup>149)</sup> 이때 하나님을 통한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도움이 필요하다.

### (3) 상담자 윤리

#### (가) 비밀 유지

비밀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말한 것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내담자의 허락 없이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면담 자료가 본인의 허락 없이는 강의나 설교의 예화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담자의 비밀 정보는 내담자나 지역 사회를 일촉즉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지역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내담자의 서면 동의와 원함을 따르기 위해서 등의 경우에만 밝힐 수 있다. 적당한 교회 지도자에게 고백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기

148) Ibid.

149)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447.

위하여 장려해야 하지만, 교회 양육의 유익을 위하여 치료 관계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sup>150)</sup>

#### (나) 호기심 금지

상담자 자신의 호기심이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해주기를 바라는 욕망 등이 상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다. 때때로 우리는 상담 과정에서 잠시 내담자의 필요를 망각하고 주로 우리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한다. 상담자는 이러한 경향을 스스로 삼가고 이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sup>151)</sup>

#### (다) 성적 자극

성적 자극은 피차간에 오고 갈 수 있는데(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 측에)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채로 또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상대방을 자극할 수가 있다. 내담자를 위로할 목적으로 팔로 어깨를 감싸주는 남자 상담자는 그의 내담자가 포옹의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sup>152)</sup>

#### (라) 가치관 공개

상담자의 믿음(신념)은 그의 상담은 물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상담자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알도록 해 주는 것이 공평한 처사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투명성에 오해를 받을 것이다.

#### (마) 이중 관계

동료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 상담자와 교인이 이중적 관계를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상담 관계에서 필요한 신뢰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 평신도 상담자는 교회 양육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sup>153)</sup> 그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객관성을 잃어 내담

150) W. W. Becker, "The Paraprofessional Counselor in the Church: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6, no. 2 (1987), 78-82.

151) Gary Collins, 훌륭한 상담자, 93.

152) Ibid., 94.

153) W. W. Becker, "The Paraprofessional Counselor in the Church: Legal and Ethical

자와의 공적 및 사적 관계의 얽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관계를 종결하고 다른 상담자에게 소개해야 한다.

#### (바) 영적 균형

상담자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적인 면을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영적인 면을 경시하는 경우, 내담자는 성경이나 기도의 자원을 못받을 수도 있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상담자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내담자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져 마침내 인격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의 영적인 면은 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상담 과정에 거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히 활용되어야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도 안 된다.<sup>154)</sup> 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영성도 부단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 (4) 평신도 상담자의 고통과 위로

일반적으로 평신도 상담자들이 사랑의 격려를 계속할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은 남의 필요를 채워 줘야겠다고 결심하면 할수록 상담자 자신도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상담자들은 봉사받고 싶다는 내면적 욕구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깊은 외로움, 고독, 허탈감을 경험하게 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 이 때 평신도 상담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상처입은 치유자’란 헨리 나우웬(Henry J. Nouwen)이 말한 개념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상처입은 치유자’였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 몸에 지니고 죽은 상처의 인생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럼으로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sup>155)</sup> 평신도 상담자

Considerations”, 78-82.

154) Gary Collins, 출중한 상담자, 95.

155) 참조. Henry J.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험과 섬김을 본받아 나를 감싸안아야 한다.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은혜가 되며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내담자를 돌아본다면 상담자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의지하면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홀로 있음으로 전환되고, 상담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sup>156)</sup> 한편 상담자 자신도 격려와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상담이 어렵게 진행될 경우 더더욱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sup>157)</sup> 이때 슈퍼바이저를 통해 지원과 격려를 받음으로 초보 상담자도 상담시 경험하는 불안감에서 놓임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 다. 활동(30분)

세속 상담과 평신도 상담의 차이가 무엇인지 적게 한 다음 3-4명으로 나누어 서로 토론하게 한다.

#### 라. 토의 및 평가(20분)

오늘 전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전체 앞에서 나누고 기도로 끝마친다.

#### 마. 과제

데이비드 씨맨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고 느낀 점 써오기.

### 3. 3회: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기초 및 원리

#### 가. 목적

평신도 상담의 성경적 기초 및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상담 기법 숙지

156) 참조. Henry J. Nouwen, 영적 발동,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1992).

157) Gary R. Collins, 훌륭한 상담자, 88.

## 나. 강의(80분)

### (1) 상담의 성경적 기초

성경에서 언급하는 상담의 경우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wonderful counselor: 모사)라고 묘사되었으며(사 9:6) 신약의 경우 제자들은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심리적 필요를 해결해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마 10:7, 8). 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치유를 위한 목회 상담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살전 5:14).

신약에는 상담에 관한 동사로 파라칼레오(παράκαλεω), 뉴데테오(νουθετεω), 파라류데오마이(παράλυθεομαι), 그리고 마크로θυ메오(μακροθυμεω)가 나타난다. 첫 번째 파라칼레오(παράκαλεω)의 의미는 '간청하다, 권하다' 혹은 '격려하다, 위로하다'이다. 이 단어는 다음에 사용되는 '훈계하다(νουθετεω)'보다 부드러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비슷한 동사는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로마서 15장 3절에 언급되고 있다.<sup>158)</sup> 두 번째는 뉴데테오(νουθετεω)이다. 이 동사는 상담이라는 문맥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통 '기억하다, 경고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것은 제멋대로 하는, 훈련되지 않은, 혹은 충동적인 것을 훈계한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59)</sup> 세 번째 동사는 파라류데오마이(παράλυθεομαι)이다. 이것은 '힘이 나게 하다, 격려하다'이다. 이것은 누군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sup>160)</sup> 네 번째 동사는 마크로θυ메오(μακροθυμεω)로서 이것은 '인내하거나 인내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6절, 18장 29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수동형 동사이다.<sup>161)</sup> 따라서 성경에는 상담에 관한 한가지의 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단어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통하여 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능동과 수동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상담의 원리

158) Norman Wright,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22.

159) Ibid.

160) Ibid., 23.

161) Ibid.

상담의 원리에는 경청, 공감적 이해, 솔직함, 직면, 무조건적 사랑, 존경, 섬김, 용서, 절대적인 소망, 적절한 타이밍, 신뢰 유지, 돕고 선도하기 등이 있다. 이중 경청(5회)과 공감(7회)과 직면(9회)은 따로 다루었다.

#### (가) 솔직함(잠 27:5; 28:23)

솔직함이란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상담의 과정에서 진솔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진솔한 상호 교류의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솔한 태도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속으로는 비판적이면서 겉으로는 수용적인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말이나 행동에 꾸밈이 없고, 내담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담자라는 역할 뒤에 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담자는 특히 느낌에 정직해야 하며 나쁜 감정 또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 솔직함과 관련하여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자기 개방이다. 자기 개방이란 상담자의 사적인 생활이나 개인적인 비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거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상담자가 진솔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62)</sup>

#### (나) 무조건적 사랑(고전 13:7)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것은 어떤 조건들 즉, 인간의 복종이나 행위가 아름답거나 선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소유적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한다. 소유적 사랑은 사랑한다는 그것 자체를 스스로의 목적과 업적으로 삼고 우상으로 높여 그것 자체를 절대화한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까닭에 원수를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힘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 (다) 무조건적 존경

162) 김진욱, “집단 상담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제1차 집단 상담 workshop (1999. 11).

무조건적 존경이란 인간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인격과 신분에 합당한 예로 그를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가 비록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지라도 상담자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사람을 도와 주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울러 그를 철저히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깊고 자상한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로 아비가일을 찾을 수 있다. 나발은 다윗의 보호와 사랑을 입었으나 그를 무시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적개심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삼상 25:23-35).

#### (라) 무조건적 섬김

선한 사마리아인(눅 10:30-37)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주인에게 그를 맡기면서 부족한 비용은 돌아올 때 더 줄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무조건적 섬김의 아름다운 모델이다. 섬김이란 갓 태어난 아기를 부모가 무조건 돌보는 것과 같다. 아기가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 부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나 자아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현대인이 무조건적 섬김의 도리를 깨닫고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할 때만이 무조건적 섬김이 가능하며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상담의 진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 상담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여야 하며 다시 그것을 내담자에게 전해 주는 자이다.

#### (마) 무조건적 용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하신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기억하도록 한다. 평신도 상담은 상호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허물, 과오, 죄, 악행, 부도덕, 비인간성 같은 것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주요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도 내담자의 허물과 죄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내담자가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해야 한다.

(바) 적절한 타이밍(언제 말하고 침묵해야 하는지 알기: 잠 15:23)

적절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이나 시기 적절한 반응은 내담자에게 신뢰감과 안전감을 준다. 따라서 상담 중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경우에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얘기해 주세요”라고 물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즉시 대답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서로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줄 것이다.<sup>163)</sup>

(사) 신뢰 유지(잠 20:19; 21:23)

우리들 대부분은 무슨 얘기 거리가 있으면 남과 나누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담자와 내담자간에는 신뢰와 우정이 깨지게 되어 피차에 많은 손상을 줄 수 있다. 평신도 상담자는 비밀스런 정보는 깊이 묻어 두고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의도적으로 내담자의 비밀이 튀어나오거나 무의식적인 동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상담의 기법

(가) 지금 여기의 원리

지금 여기(Here & Now)란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를 두지만, 게스탈트 상담의 창시자인 펄스(Perls)에 의해 확산되었다. 펄스는 상담자가 과거 사건에 초점을 두는 상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 자신의 현재 문제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증상 완화를 방해한다고 믿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현재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삶이란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며, 현재에서만 가능하다.<sup>164)</sup> 다음의 표는 지금-여기 원리와 일반 원리를 비교해 놓은 것이

163) Norman Wright,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31.

164) 전종국, “집단 상담에서 ‘지금-여기’ 개입의 정당화 및 적용”, 집단 상담 연구 창간호



다.

〈표 18〉 지금-여기 원리

지금 여기 원리	NO	일반 원리
경험 중심	1	이론 중심
실제 중심	2	개념 중심
현재 중심	3	과거 중심
실증 중심	4	추측 중심
느낌 중심	5	생각 중심
직면 중심	6	회피 중심
감정의 정직 중심	7	생각의 정직 중심
현실 중심	8	이상 중심
현상 중심	9	동기 중심
의식 세계 중심	10	무의식 세계 중심
표현 중심	11	억압 중심
I - message	12	You - message

#### (나) 피드백

피드백은 타인의 특정 행동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이나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면과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면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게 함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행동 패턴을 각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165)</sup>

피드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확인(confirmatory) 피드백으로 상담자, 친지, 친구, 동료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은 내담자가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목표를 향해 행동 프로그램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는 수정(corrective) 피드백으로 중요한 타인들은 내담자가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길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수정 피드백을 줄 때는 상담자든 주위 사람이든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야 한

(1998), 101-102.

165) 김성희, “집단 상담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집단 상담 연구 제2호 (1999), 92-93.

다. 첫째,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둘째, 피드백은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다 띠어야 한다. 셋째, 피드백은 간결하고 적절해야 한다. 넷째, 피드백은 포착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성격 특성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피드백은 적절한 수준에서 주어야 한다. 피드백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전체 과정의 목적이 실패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내담자로 하여금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up>166)</sup> 아래의 내용은 효과적인 피드백과 비효과적인 피드백의 예이다.

〈표 19〉 효과적 피드백과 비효과적 피드백<sup>167)</sup>

효과적 피드백	비효과적 피드백
“김 집사님, 조금 전에 이 집사님께서 당신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집사님에 대해서 별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당신의 얼굴은 별로 편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소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번도 이 집사님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내용과 속으로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른 것 같군요... 내적으로는 긴장하고 있거나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군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에게 유감이 있어요? 제대로 말을 좀 하세요... 무엇 때문에 유감을 갖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이 집사님이 했던 피드백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마음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 다. 활동(30분)

상담의 원리 중 당신에게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 2-3개를 적어보고 왜 그런지 마음의 역동을 살펴보고 나누어 보고 4명씩 한 조가 되어 전체 상담의 원리를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 요약해 본다. 요약한 것을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라. 토의 및 평가(20분)

전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전체 앞에서 나누고 기도로 끝마친

166)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449.

167) 설기문, “집단 상담에서 저항과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집단 상담 연구 제2호 (1999), 49.

다.

마. 과제

상담의 원리를 완전히 숙지하기

#### 4. 4회: 성경적 상담과 인지 행동 치료

가. 목적

성경적 상담과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이해 및 성경적 상담의 7단계 모델 숙지

나. 강의(80분)

##### (1)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당시의 실정법에 위배되어 체포될 것이며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법과 체제를 인정하시는 것이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제3의 선택을 하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요구하시면서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가 묻고 난 다음,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문제 해답을 아주 명쾌하고 놀랍게 제시하신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차이를 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가이사가 요구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요구를 수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만 황제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만 허락되는 것이다.<sup>168)</sup>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심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때때로 사람들의 고통이 이것이다.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선 것처럼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 아픔이 이것이다. 이

168) William Handrickson, 마태복음 하, 핸드릭슨 성경 주석, 김경래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4), 175-176.

때 사람들은 보통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체계 안에서 문제와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체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도 도달하는 지점은 늘 같다. 즉 ' $1 \times 0 = 0$ '이고, ' $10 \times 0 = 0$ '이다. 어떤 수와 곱해도, 동일하게 '0'이 나오는 것처럼 체계 안에 속하는 요소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도를 1차원적 접근이라 부르며 체계 내의 변화, 체계에서 체계로의 변화라 한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접근법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체제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2차원적 문제 해결이라 부른다. 1차원적 변화는 항상 상식을 기초로 나타나지만 2차원적 변화는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은 비상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 접근은 결과를 다루지 원인을 다루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변화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사랑과 지혜의 충만이다. 이것이 3차원적 문제 해결의 접근이다.

이렇게 2차원적이거나 3차원적인 접근이 있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쉽게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변화라 할 수 없다. 바울은 변화(transformation)란 감정이나 환경을 일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롬 12:2).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이해의 자리인 마음, 즉 중심의 거듭난 인격이 변화됨을 의미한다.<sup>1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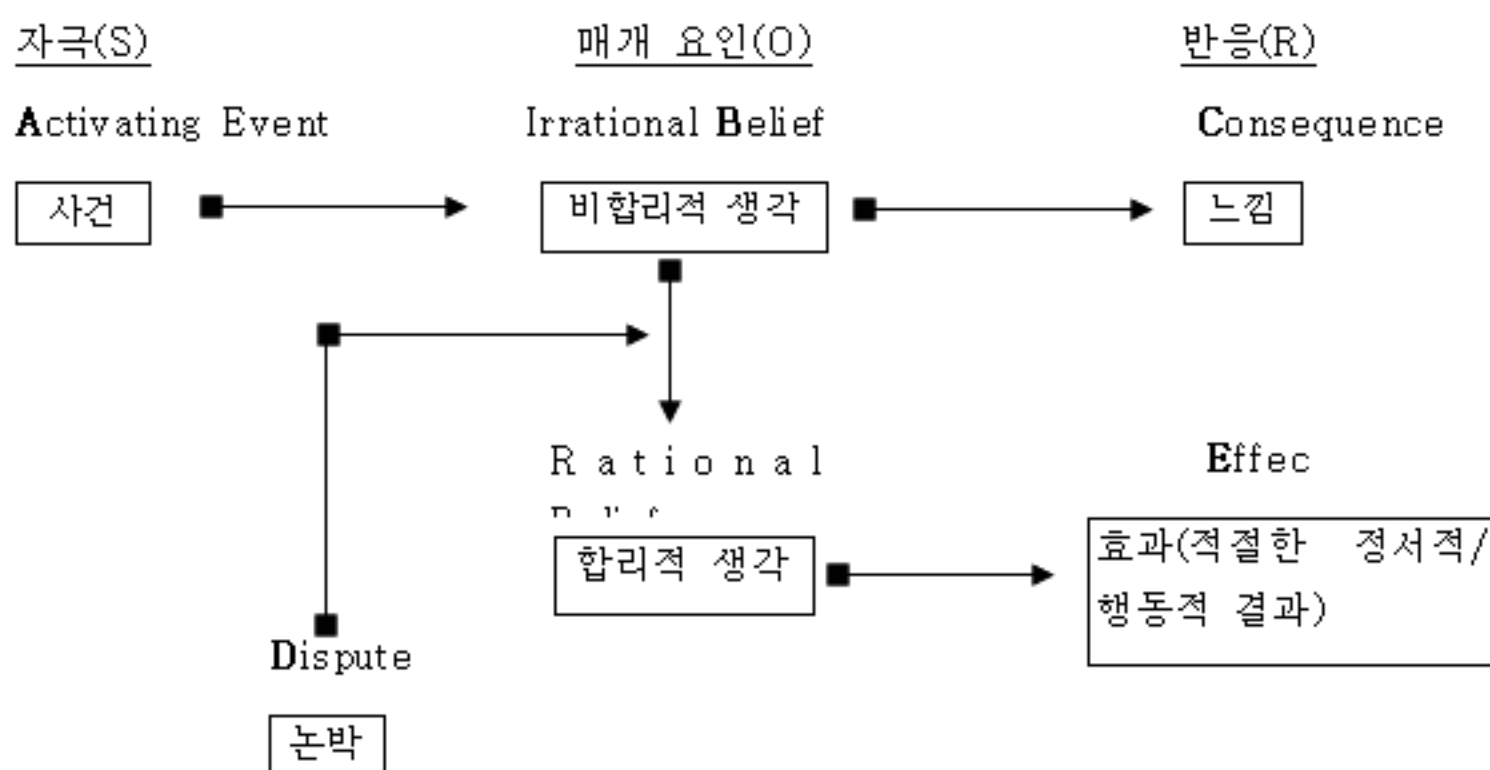
## (2) 인지 행동

앨버트 엘리스(Albert Ellis)는 인간의 내적 암시(internal sentences, 실제로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는 행동을 지배할 뿐 아니라 감정도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끔찍하다', '훌륭하다'는 등의 주어진 사건을 평가하는 태도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박 집사가 죽었을 때 유 집사는 슬픔을 느낀다.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박 집사의 죽음으로 친구인 유 집사가 불행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69) John Marray, 뉴 인터내셔널 로마서(하),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223.

유 집사가 평소에 김 집사를 경멸했었다면 유 집사는 박 집사의 죽음에 대해 반가운 기분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 집사는 그 사건을 다른 입장에서 평가했기(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사건 그 자체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변한다. 엘리스는 이것을 A-B-C 정서 이론이라고 했다. A(activating event: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는 C(consequence: 자신의 느낌)를 통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C는 B(belief: A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sup>170)</sup>

〈그림 4〉 A-B-C-D-E 모형<sup>171)</sup>



- A. 사건(분노 혹은 거절 등)
- B. 우리의 믿음 혹은 태도(사고 반응)
- C. 감정 반응(분노, 거절, 우울을 느낌)
- D. (신념과 생각에 대한) 질문, 논쟁, 도전
- E. 논박과 대안의 효과 평가

내담자의 사고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자각의 수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중 핵심인지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상담자는 상담 과정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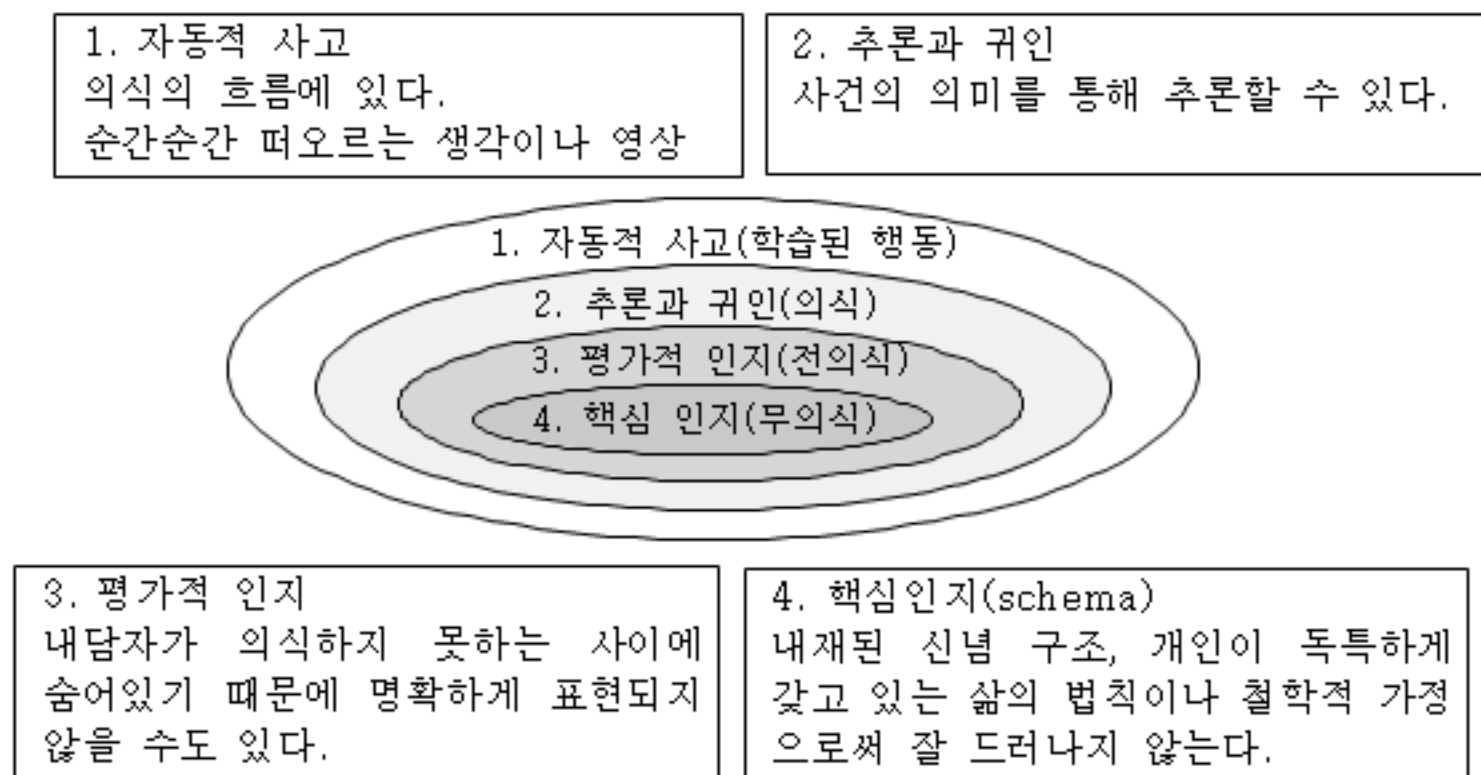
170) 박경애, 인지, 정서, 행동 치료 (서울: 학지사, 1998), 68.

171) Ibid., 197.

해 내담자의 내재된 신념 구조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지 행동에서는 합리적 사고는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하고 비합리적 생각은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다음은 엘리스가 제안한 12가지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sup>172)</sup>을 성경적 신념과 비교해 보았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해명하며 발견하도록 돕고 합리적인 선택 사항들과 좀더 현실적인 생각을 배우도록 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생각과 태도는 감정을 불러오므로 더 좋은 패턴의 생각과 태도를 개발함으로써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를 계속적으로 논박하여 재교육에 성공했을 때 내담자가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지 행동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비합리적 사고 수준에는 자동적 사고, 추론과 귀인, 평가적 인지, 그리고 핵심인지가 있다. 이것을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173)</sup>

<그림 5> 사고의 수준



<표 20> 신념의 차이

172) 박경애, 인지, 정서, 행동치료, 77-88.

173) Ibid. 219.

	비합리적 신념(사고)	합리적 신념(사고)	성경적 신념(사고)
사랑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받고, 이해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는 끔찍한 일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실제적인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악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반드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들을 비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지만, 죄인이기에 늘 회개하며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일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다.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끔찍할 이유는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래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걱정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괴로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일이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있는 삶을 살겠다.
실수	어떤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성공해야만 가치있는 인간이다(완벽주의).	자신이 인간적인 제한점이 있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간은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의존함을 배워야 한다.
너무	인간의 문제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고 만약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다(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세상은 불확실한 세계이다.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 나는 아무런 보장이 없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무릅쓰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삶을 맡기셨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최선을 다해 주도적으로 살겠다.

정의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경우가 자주 있다. 불공평한 경우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과 용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겠다.
고통	나는 항상 고통이 없이 편안해야만 한다.	고통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불편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며 새 체험을 위한 것이다.
대응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부딪치기보다 피해 가는 것이 편하다.	피해가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더 어려운 삶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맞서보겠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랑과 지혜로 도전하겠다.
의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의지할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사람을 의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만 내 생활을 도와줄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다. 내 자신을 믿고 나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협력하겠다.
과거	나의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운명주의).	과거의 일들에 대한 나의 시각과 과거의 영향에 대한 나의 해석을 재평가함으로써 과거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용서와 치유를 통해 현재를 새롭게 만나고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책임	행복이란 외부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종속적인 삶).	현재에 내가 겪고 있는 정서적인 괴로움은 주로 나의 책임이며, 내가 사건들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성경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



## (3) 인지 행동과 성경적 상담의 차이

〈표 21〉 인지 행동과 성경적 상담 비교

	인지 행동	성경적 상담
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여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려 하지만 합리적 신념의 근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며 그것이 옳으나 그르나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뜻에 따르며 상담자 개인의 가치나 기준에 합리성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
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욕구 신념이 있으나 인간의 잘못된 이기적인 욕구에 대해 아무런 한계를 지어주지 않는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시각과 나그네 의식과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맡기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점	내담자의 생각이 초점이 되며 사고의 변화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다룬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 시각인 사고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의 전인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 (4) 성경적 상담

성경적 상담의 근본적 토대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가피한 분리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간격을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분과 함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는 것을 믿는다.<sup>174)</sup>

진정한 ‘기독교적’ 심리학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동일하게 간주하거나 신경증 또는 정신적 결함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죄의 결과는 분리이다. 인간의 의도적 반역(willful rebellion)에 의해 빚어진 전적인 타락을 네 가지 분리 상태로

174) Larry Crabb, 성경적 상담학 개론, 전요섭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5), 16-17.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영적 문제). 둘째,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간에 분리되었다(사회적 문제). 셋째,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었다(생태학적, 육체적 문제).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정신적 문제).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다.<sup>175)</sup> 상담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터득한 틀에 박힌 유형으로 인간 세상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유형에 집착하고 그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내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자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중요성과 확신감)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죄악된 행동(범죄)과 감정(원망, 불안)을 유발하는 그릇된 신념을 찾아내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에 있음을 알고 그 사고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 다. 활동(30분)

래리 크랩은 성경적 상담의 과정을 7단계로 정리하였으나 연구자는 좀 더 세분화하여 9단계로 나누었다. 성경적 상담 9단계는 첫째, 사건(상황, 환경), 둘째, 문제 감정, 셋째, 문제 행동, 넷째, 기인(형성)의 근원, 다섯째, 문제 사고(가치관, 가정), 여섯째, 성경적인 사고, 일곱째, 회개, 여덟째, 성경적 행동 수행 방법, 아홉째, 성경적 감정(결과)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의 9단계를 익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성경적 상담 9단계 모델에 따라 정리한 후, 4명이 한 조가 되어 토론한다. 아래의 <표 22>는 성경적 상담의 9단계를 적용한 실례이다.

<sup>175)</sup> Ibid., 64.

〈표 22〉 성경적 상담의 9단계의 실제

1) 사건(상황, 환경)이 무엇이었나? (설거지, 집안 청소, 육아 등 가사일로 아내와의 갈등)	
2) 부정적인 행동과 맞물려 있는 부정적인(죄악된) 감정인 문제감정을 찾아낸다. (짜증스러움, 미움, 속상함)	3) 그릇된 관념에 의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야기되는 부정적인(죄악된) 행동인 문제행동을 찾아낸다 (아내가 바쁘게 일하고 있음에도 TV시청을 하고 아내가 부탁해도 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가끔 할 때도 있으나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해 준다는 느낌이다.)
4) 어디서 기인(형성) 되었는가? (한국의 유교적 관습과 부모님의 생활을 보면서 은연중에 배우고 체득되었다.)	
5) 문제 사고(가치관/기본적인 가정)는 무엇인가? (유교적 관습, 남성 우월주의, 권위적 태도)	
6) 성경적인 사고는 무엇인가? (부부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은 베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7) 회개(잘못된 행동과 사고에 대해 고백하며 회개한다.) (아내에게서 받으려고만 하고 베품에 인색하였고, 한국의 유교적 관습을 무기삼아 이기적으로 생활하였다.)	8) 성경적 행동, 즉 올바른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올바른 행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기꺼이 내 일처럼 일한다.)
9) 위의 결과로 성경적 감정, 즉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족스러운 감정을 확인한다. (감사, 행복, 보람)	

## 라. 토의 및 평가(20분)

새롭게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전체 앞에서 나눈 후 기도로 마친다.

## 마. 과제

성경적 상담 9단계 모델 숙지하고 1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갈등을 겪은 문제를 상담의 9단계 모델 적용 양식에 따라 해본다.

## 5. 5회: 경청 훈련

### 가. 목적

경청의 정의 및 태도에 대해 이해하고 경청의 내용 익히기

### 나. 강의(70분)

#### (1) 경청이란 무엇인가(잠 18:13; 약 1:19)

상담자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식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물러나서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조용히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요 8:9) 침묵 가운데 상황을 파악해 가는 자세를 배울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제3의 귀'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경청이다.

경청이란 첫째,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대화에 귀기울여 듣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파악함은 물론, 상대방의 몸짓, 표정, 그리고 음성에서 섬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진정한 경청이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상대방을 발견할 뿐 아니라 비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을 듣고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온전한 경청은 선입견이 없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청은 편견이 적을 수록 좋다. 따라서 정확한 경청을 위해 편견을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경청이 어렵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생리적인 면 때문이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5배 빨리 듣기 때문이다. 즉 1분에 120단어를 말한다면 1분에 600단어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하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의 차이는 여러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들으며 생각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상대방의 말보다 앞질러 가서 그 다음에 할 말을 짐작하게 된다. 둘째, 이런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지루하거나 분위기가 산만해지면 듣는 입장에서 생각이 딴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대화의 분위기가 깨어져서 의욕을 잃을 수 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챈다. 셋째,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원만한 속도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만일 그 속도가 둘 다 같든지 아니면 반대로 말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것이다. 이처럼 대화시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 집중이 요구된다.

## (2) 경청의 유익

경청을 통하여 첫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하는 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기도 한다. 둘째, 사람을 얻게 된다. 진지한 경청은 사람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는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에 심리적 통장인 '감정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76)</sup>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구축하게 되는 신뢰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청으로 인하여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다.

## (3) 경청에 방해되는 요인

첫째, 골라서 듣는 경우이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다. 이것은 말한 사람의 내용을 위축시키며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다. 특히 말꼬리 잡는 것은 골라서 듣는 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불신감이 크고 성미가 급하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멋대로 듣는 경우이다. 이것은 왜곡해서 듣는 것인데,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열등 의식이나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말을 가지고 '저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곤 한다. 셋째, 멍하게 듣는 경우이다. 듣기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생각 없이 듣기에 말하는 내용을 모른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소리는 그냥 흘려 버린다. 이런 경우는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나친

176) Stephen R. Covey,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1998), 75.

걱정 근심 등 자기 문제에 몰두해 있을 때 생기므로 들을 때에는 겸손히 들어야 하며 늘 자기 귀를 의심하며 자기가 들은 것이 정확한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 (4) 경청의 태도

첫째, 내담자를 바라본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진지한 자세를 취한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은 관심이나 도울 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품게 만들 수 있다. 상담자의 진지한 자세는 내담자와 내담자가 하는 말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따금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상체를 약간 기울이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과 당신이 하는 말에 관심이 많다'는 뜻을 전달한다.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자세는 '당신에게 별 흥미가 없다' 또는 '파분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십상이다. 넷째, 좋은 시선 접촉을 유지한다. 내담자와 좋은 시선의 접촉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에게 관심을 느끼고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준다. 다섯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편안한 자세는 조바심하거나 주의를 흘뜨리는 표정을 짓지 않으며 몸짓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내담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177)</sup>

#### (5) 경청의 내용

##### (가)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와 경청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 즉 언어적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 속에는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과 정서가 배어 있다. 만약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한다면 그 내담자는 경험을 자기가 처한 문제 상황으로 보는 것이며 담배와 술을 많이 한다고 말하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으로 보낸다고 말한다면 그는 행동을 자기의 문제 상황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약혼자와 말다툼을 한 뒤 얼마나 우울했는지 말한다면 그는 문제 상황과 연루된 자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sup>178)</sup>

177)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01-102

178) Ibid., 106.

여기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내담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문제 상황을 기술할 때 드러내는 경험과 행동과 감정, 그리고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빼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sup>179)</sup>

#### (나) 내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와 경청

내담자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확대시키지 않고 ‘읽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내담자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목소리의 톤, 신체적 반응이 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러비안(Mehrabian)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의사 소통에서 말은 7퍼센트밖에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목소리는 38퍼센트, 얼굴 표정은 55퍼센트나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얼굴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보다 얼굴 표정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밑줄과 같이 언어적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다음은 비언어적 메시지의 유형을 소개한 것이다. 첫째, 비언어적 행동은 말로 한 것을 확인하거나 반복하는 기능을 한다. 자신의 말을 상담자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여긴 내담자가 “맞아요”라고 말하면서 눈을 반짝 뜨고, 몸을 상담자를 향해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가 밝아진다면 이것은 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비언어적 행동은 말로 한 것을 부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말로는 당황스럽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말을 더듬거리고 입술이 떨렸다면 이 때 비언어적 행동이 바로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셋째, 비언어적 행동은 말한 내용을 강화시키거나 강조하기도 한다. 넷째, 비언어적 단서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대화 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숙련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방법으로 통제 또는 조절하려는 단서를 보내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상담자는 상담할 때 전체 상황을 다 경청하며 세세한 부분에만 얽매이지 않고 비언어적 메시지의 체계를 알고 활용하면서도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다.<sup>180)</sup>

179) Ibid., 109-110.

180) Ibid., 112-114.

### (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의 경청

인간의 행동을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로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깊이 경청한다는 말은 내담자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몸담고 있는’ 상황이 미치는 영향까지 경청하는 것을 말한다.<sup>181)</sup>

### (라) 냉철한 경청

숙련된 상담자는 상담하는 동안 내담자의 경험, 행동, 정서를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비치는 독특한 관점이나 경향까지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 타인 및 이 세상에 관해 가진 비전과 감정이 거짓이 아니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각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내담자가 실제로는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추하다고 느끼는 내담자의 경험이 사실이며, 이를 경청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경험은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것 역시 경청하고 이해해야 한다.<sup>182)</sup>

다. 활동(40분, 훈련자나 보조 훈련자가 역할 놀이에 대한 시범을 보여준다)

#### (1) 경청하지 않는 역할 놀이

한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임의로 만들어 열심히 하도록 하라. 그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가능하면 과장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체 한다(예를 들면 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걸어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책을 펴서 읽기도 하라. 그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은 말을 계속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 중단하거나 성급한 사람이면 상대방을 끌어 당겨 억지로 자기 말을 듣게 할 것이다).

#### (2) 경청하는 역할 놀이

역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에게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한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듣는 편에서 경청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힘쓴다. (예를 들면, 부

181) Ibid., 114.

182) Ibid., 117.



드럽게 상대방을 쳐다보거나 진지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요? 등으로 반응을 보인다). 다음에는 서로가 역할을 바꾸어서 경험하게 한다. 역할 놀이가 모두 끝나면 서로 했던 행동에 대해 느낌을 나눈다.

#### 라. 토의 및 평가(20분)

강의와 활동이 끝난 후 오늘의 강의와 활동에서 특별히 깨닫고 느낀 점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고 기도로 끝마친다.

#### 마. 과제

휴 미실다인의 몸에 밴 어린 시절 읽고 느낀 점 써오기

### 6. 6회: 감정 표현 훈련

#### 가. 목적

감정 표현의 두려움과 원인에 대한 이해 및 자유로운 감정 표현 방법 배우기

#### 나. 강의(70분)

##### (1) 감정 표현(시 31:7-10)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죄로 인하여 너무 괴로운 나머지 눈이 나빠지고 혼이 상했다고 말한다. 그는 근심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비극을 앞에 놓고 떨고 있는 소심한 모습, 또한 기도하며 자기의 생명이 행여나 어떻게 될지 몰라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다”(5절)라고 하는 비장한 최후를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나 다윗과 같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다.

감정이란 체험되는 느낌, 기분(희로애락)이다. 감정은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신체 내에서 다양한 생화학적 변화-호흡의 불규칙, 맥박의 빨라짐, 근육의 경직-를 일으킨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기분을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 표현이다. 감정 표현이 잘 이루어지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인 심리적 만남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감정 표현이 자제되

어 심리적으로 과묵하든지 자신을 억압하게 되면 생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인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어 대인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 (2) 감정 표현의 두려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감정 표현을 불편하게 느끼는 원인은 첫째, 감정을 직면하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감정은 자신의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알면 부끄러운 것이고, 셋째, 감정을 드러내서 말한다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넷째, 감정은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전통과 문화 때문이다.<sup>183)</sup>

특히 한국인들은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경박하고, 점잖지 못하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 생기면 즉시 억눌러 버린다. “화를 내지 말아라”,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크게 웃지 말아라”, “울면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은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될 목록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무더간다. 오랫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면 퇴화한다.<sup>184)</sup> 예를 들어 화나는 감정을 늘 억제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가 난다는 것을 느끼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 교육이 주로 지성만을 발달시켜 왔고 마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들을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하루를 살면서 언제부터 우울해했는지, 왜 우울해하는지, 언제부터 무기력에 빠졌는지, 왜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 (3) 일반적으로 감정 표현을 회피하는 경우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부인해 온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회피하고 도망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감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

183)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화사, 1990), 114-115.

184) 김인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서울: 사람과 사람, 1997), 340.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185)</sup>

(가) 감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처리함

지식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대화 가운데 느끼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정리하여 감정을 없애버리는 방법이다.

(나) 의미를 축소시킴

이것은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난폭한 사람이야, 매일 밤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지. 그는 언제나 우리를 멍청이들이라고 불렀어. 그러나 최소한 우리를 때리지는 않았잖아. 나는 매맞는 친구들을 많이 보아 왔는데 그들보다는 우리 집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 정말 기뻐”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 감정을 부인함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때는 시체실의 널빤지 위에서였어. 그는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살해당했거든.”

“아버지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사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아버지와 별로 가깝지 않았거든.”

이런 경우 자신의 실제 감정을 부인함으로써 고통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라) 자신을 고립시킴

정서적인 고통을 느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린다.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몸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마) 감정을 삼켜버림

울 것만 같고 분노를 느끼는 순간 탄식을 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으로써 감정

185) Tim Sledge, 가족 치유 · 마음 치유, 37-38.

을 삼켜버린다. 또한 육체적인 일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바) 다른 사람들을 돌아봄

자신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 (4) 감정 표현의 과정

감정은 겉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내부에 억압된 감정은 탈출구를 찾게 된다. 감정이란 그것이 부인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의 농도는 더욱 커져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감정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위한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 사소한 감정, 유치한 감정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불쾌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감정이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격해지고 끝내 폭발하고 만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면 영원히 그런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한다. 감정에는 윤리성이 없다. 윤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 나쁜 줄 알면서도 택한 감정적 행동이다.<sup>186)</sup>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라 해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해 주고, 소중하게 다루면 긍정적 힘이 될 수 있다.

둘째, 파악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부정적 감정들을 겉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 고통이 한결 가벼워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 안의 부정적 감정을 정확히 보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표현할 때에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실제의 감정을 보여주기보다는 본심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sup>187)</sup> 예를 들면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진짜 감정은 분노가 아닐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두려움이나 슬픔, 후회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186) 김인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215.

187) John Gray,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울: 친구, 1995), 296.

화를 냄으로써 위장하기도 한다. 잘 우는 사람들도 진짜 감정은 슬픔이 아닐 수 있다. 가슴속은 분노로 끓고 있지만 화를 낼 용기가 없어 대신 눈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분이 언짢거나 실망하고 있거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감정 표현을 할 때 파괴적이어서는 안 된다. 감정 표현이 파괴적이라는 것은 야비한 말만 골라서 한다든가, 상대를 비난한다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아무 데서나 총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정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것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대화 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가정 중 태반은 폭력이 아닌 침묵 속에서 관계가 죽어가고 있다. 화를 표현하는 가정에서는 최소한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화가 끊어진 부부 관계에서는 상대의 내면세계를 알 수가 없다. 입을 달아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는 화를 억누를 때 보여지는 전형적 행위이다.<sup>188)</sup>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화를 표현하면 갈등이 빚어지고, 갈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갈등이란 인간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갈등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필연적인 것이기에 갈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사기꾼, 위선자’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고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화를 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결코 화를 억누르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셋째, 부정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가 불같이 화가 난

188) Martin H. Padovani, Healing Wounded Emotions, Overcoming Life's Hurts (Mystic: Twenty-third, 1993), 30.

다 해도 그 화가 내 자신은 아니다. 지금 내 안에 짙은 슬픔이 있다 해도 그 슬픔이 나는 아니다.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들려주어야 한다. “화는 나지만 그 화가 내 자신은 아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외로움이 내 자신은 아니다.” “지금 내가 실망하고 있지만 실망이 내 자신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부정적 감정과 자신을 동일화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주면 온 세상을 얻을 듯이 기뻐 날뛰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면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처럼 주눅이 든다. 감정과 자신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유와 해방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은 매 행위 때마다 깨어 있으면서 선택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반응하는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잃는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덜 받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5) 감정 표현의 유익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첫째, 마음과 마음의 만남으로부터 인간관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둘째, 감정 표현은 묘한 마력과 창조력이 있어서 마음을 표현하면 억압이 사라지며 마음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지성과 정서가 개발된다. 셋째, 감정 표현을 통해 인격과 인격의 진실한 만남이 일어나 사람을 얻게 된다. 넷째, 수직적 차원에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내 중심의 감정을 토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통이 일어나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된다. 다섯째, 정화(catharsis)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마음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 때로 특정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 두통, 위궤양, 고혈압 등의 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나면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 다. 활동(40분)

훈련자나 보조 훈련자가 역할 놀이에 대한 시범을 보여준다.

#### (1) 감정 표현 연습

다음의 경우를 읽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몇 개의 형용사나 구문으로 표시해 보고 말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그러한 감정을 추론하게 하였는지 연습해보자.<sup>189)</sup>

33세의 이 집사는 어제 고향의 모친을 방문하고 와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대체 왜 일이 그렇게 뒤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이 왜 좀더 자주 내려오지 않느냐고 추궁하듯 말씀하셨지요. 그러는 동안 저는 속에서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그는 눈을 돌려 바닥을 내려다본다). 마침내 나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꾸했습니다. “제 처지가 되어 보라고요.” 내가 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머리를 저으며) 무려 10번씩이나 그 말을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어머니의 면전에서 문을 뚝 닫아 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어쩔 줄 모른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수치심, 마음을 가누지 못함, 충격을 받음, 자신에 대해 극도로 실망함, 양심의 가책을 느낌)? 두 번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내가 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일이 그렇게 뒤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등의 말이나 바닥을 본다든지,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머리를 젖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보고도 알 수 있다)?

#### (2) 감정 나누기 연습

첫째,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의 생각을 차단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현재 감정을 느낌의 단어로 한마디 전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고 다시 자기의 감정을 느낌의 단어로 전달한다. 이때, 느낌의 단어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고 궁금해도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느낌의 단어를 전해 듣고 떠오르는 자신의 느낌을 전달한다. 십 여

189) 이장호, 금명자, 상담연습교본 (서울: 법문사, 1992), 42.

이장호, 금명자의 상담연습교본에서 인용하였으나 교회실정에 맞게 호칭이나 상황을 수정하였음(이후의 모든 사례에 적용됨)

차례 반복한 다음 소감과 궁금한 점을 나눈다. 둘째, 다시 역할을 바꾸어 반복적으로 연습을 진행한다.

#### 라. 토의 및 평가(20분)

오늘 강의와 경험에 대하여 느낌을 교환한 후에 가슴 깊이 담겨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을 기도를 통해 표현한 후 마친다.

#### 마. 과제

이장호, 금명자의 상담 연습 교본 36-48의 감정 자각 연습을 하고 김계현의 카운슬링의 실제 중 107-112의 감정의 단어를 공부해 와서 테스트를 받는다.

### 7. 7회: 공감 훈련

#### 가. 목적

공감 이해 및 공감 훈련을 통한 수준 높은 공감 익히기

#### 나. 강의 (70분)

##### (1) 공감의 정의(롬 12:15)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세계와 접촉하게 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이다.<sup>190)</sup> 공감(Einführung)이란 속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sup>191)</sup> 즉,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의 조망이나 말하는 구조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깨달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이며 그의 감정과 행동을 알게 되는 것이다.<sup>192)</sup> 이러한 공감은 인간 생존을 위한 심리적 영양소이며<sup>193)</sup> 심리적 산소로서 공감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자유롭게 숨쉴 수

190)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29.

191) Gary R. Collins, 훌륭한 상담자, 43.

192) Norman Wright,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32.

193) H. Kohut, "The Psychoanalyst in the Community of Scholars", In P. H. Ornstein(ed.), The Search for Self: Selected Writings of H. Kohu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8), 705.



있다.

일반적으로 공감적 이해는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정서적 의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감적 이해에서 감정이나 정서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 수준으로 간주한다. 공감적 이해는 이것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이며 가능성이 있는 내면적 동기를 찾아내어 그 동기가 현실의 세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임재하여 격려하며 자극하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의 숨어있는 내면적 마음의 동기(1퍼센트라도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자리한 선한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동기의 고통을 알아주고 치유적 어루만짐으로 돌보되, 긍정적인 동기에 초점을 두어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깊은 감정 속에 들어가서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상황에 관련된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내담자와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sup>194)</sup> 이는 바로 상담자가 지녀야 하는 공감적 이해의 능력인 것이다.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명료화시키면 시킬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의 필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sup>195)</sup>

## (2) 공감 사용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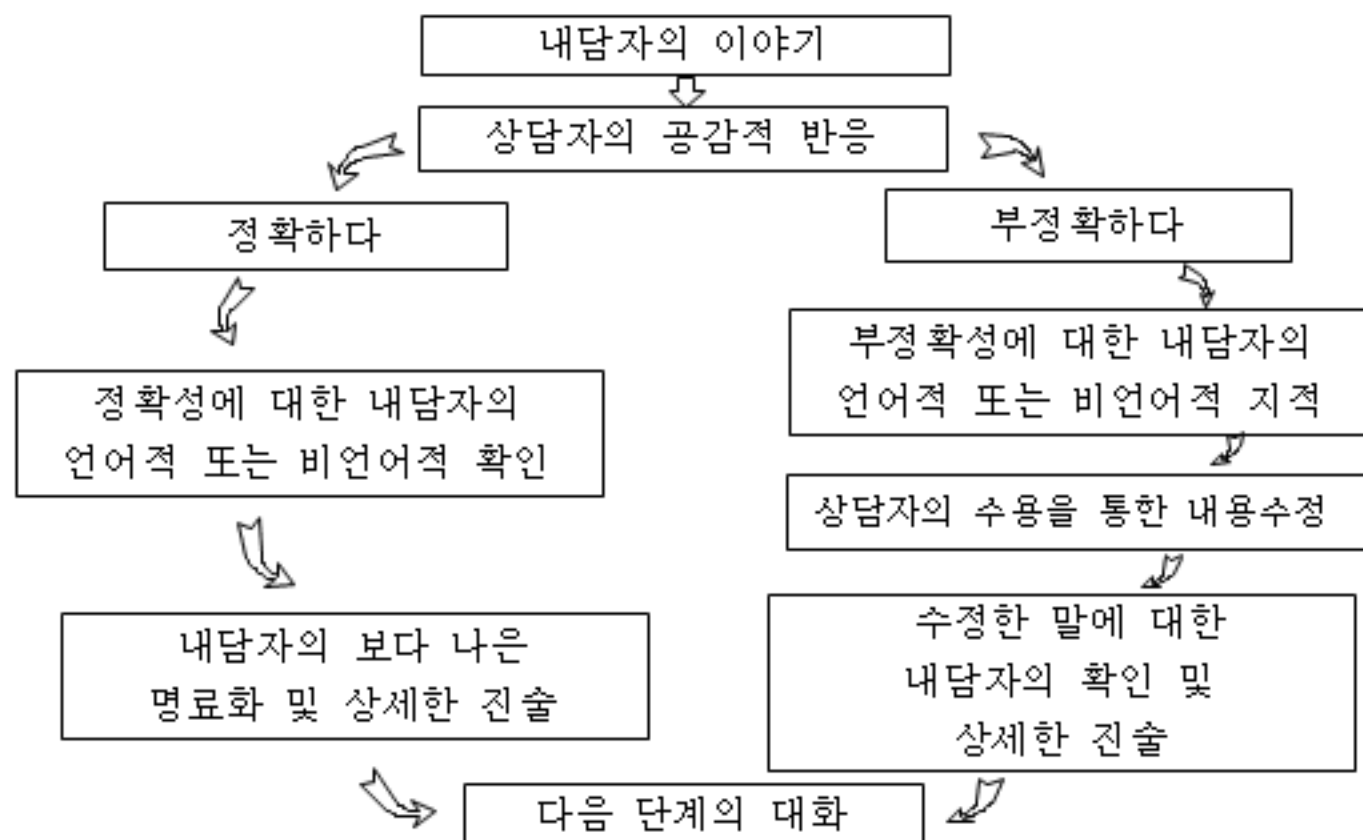
첫째, 상담 과정 중에는 항상 공감을 사용해야 한다. 공감은 사람들과의 접촉 양식이자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대화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지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에게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공감은 상담 과정 전체를 통해 내담자를 지지해 주는 방법이다. 이때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핵심 메시지에 대한 선별적 반응이 필요하다.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에 다 공감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핵심 메시지, 다시 말해 내담자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 중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찾아 여기에 반응해야 한다. 셋째, 말보다 상황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 좋은 공감적 반응은 내담자의 직접적인 말이나 비언어적 행동에만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담

194) 오성춘, 목회상담학, 387.

195) Ibid., 385.

자가 놓인 상황,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고 내담자의 말에 스며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담의 촉진을 위한 공감이어야 한다. 공감은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이며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한다. 따라서 공감의 유용성은 내담자로 하여금 앞으로 얼마나 나아가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섯째, 상담자의 공감이 정확한 것인지 부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부정확한 경우엔 수정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에 따라 상담의 진행 경로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sup>196)</sup>

<그림 6> 정확 및 부정확한 공감에 의한 진행<sup>197)</sup>



<그림 6>은 두 가지 경로를 보여준다. 하나는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이 정확했을 때이고 하나는 부정확했을 때 수정한 경우이다.

### (3) 공감의 주의 사항

첫째, 이해한 척하지 말아야 한다. 내담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주의가 산만하고 걱정을 느낄 때가 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196)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37-143

197) Ibid., 144.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해한 척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상담자는 이를 인정하고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와 같이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 무반응이다. 문화권에 따라 침묵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겠지만<sup>198)</sup> 상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내담자는 자기가 한 말이 반응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쉽다. 셋째, 주의를 분산시키는 질문을 삼가야 한다. 이것은 상담자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다. 넷째, 빈말처럼 여겨지는 상투적 어구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어투는 상담자를 지시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하찮게 여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공감과 동감을 구분해야 한다. 공감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나타내지만, 동감이나 동정은 공감적인 이해라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정은 동의를 나타내며 내담자와의 공모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sup>199)</sup> 이 외에도 해석, 충고, 의미 없이 되뇌이는 것 등은 공감이 아니다.

#### (4) 공감 전략

첫째,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상담에 처음 임하는 사람들은 내담자가 말을 멈출 때 지나치게 빨리 공감적 반응을 하려고 덤빈다. ‘지나치게 빨리’ 한다는 것은 핵심 메시지를 찾기 위해 내담자가 한 말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반응은 짧게 한다. 처음 상담에 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지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응이 더디거나 뜸을 많이 들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짧으면서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반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내담자에 맞게 반응을 하되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내담자는 자기 삶에서의 성공담을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활기차게 말하는데 상담자가 반응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밋밋하고 단조롭게 대답한다면 충분한 공감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와 똑같은 어조로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내담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와 정서적 어조를 나눈다는 뜻이다.<sup>200)</sup>

198) D. W. Sue, "Culture-Specific Strategies in Counseling: A Conceptual Frame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6) (1990), 424-433.

199)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45-148.

200) Ibid., 149.

#### 다. 활동(40분)

훈련자나 보조 훈련자가 역할 놀이에 대한 시범을 보여준다.

##### (1) 공감적 이해의 다섯 가지 수준

첫째 수준은 동문서답으로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 및 의사 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소통하는 수준이다. 둘째 수준은 중요 감정을 외면한 것으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지만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감정을 제외시키고 의사 소통하는 수준이며, 셋째 수준은 일반적 공감으로 상대방이 표현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여 상호 교류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수준이다. 넷째 수준은 내면의 감정을 만나는 수준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 소통하는 수준이며 여기부터 의사 소통이 촉진된다. 마지막 다섯째 수준은 내담자의 성장 동기를 격려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에 첨가하여 더 깊은 자기 탐색을 하도록 의사 소통하는 수준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여 표현한다. 가장 높은 수준인 5수준에는 성장 동기를 외현화시키는 반응이 포함되는데 이 말은 성장, 발달, 생산 및 문제 해결과 같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sup>201)</sup> 따라서 다섯 가지 수준의 공감을 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부정 속에서 1퍼센트라도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내도록 해야 된다.

다음은 이장호, 금명자가 제시한 공감적 이해의 다섯 가지 수준의 예이다.<sup>202)</sup>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긴 내 방인데...”

5 가.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1 나.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맘대로 못 들어가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3 다. “네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구나.”

2 라. “네가 화가 난 모양인데,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도 꼭 노크를 해야

201) 이장호, 금명희, 상담연습교본, 48-49.

202) Ibid., 51.

하니?”

4 마.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언짢았구나.”

(2) 세 사람씩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끼리 집단을 형성하게 한다

A, B, C 세 사람 중 임의로 순서를 정하여 A는 화자가 되고 B는 청취자가 된다. C는 관찰자로서 A가 B에게 하는 말이 약속에 따라 말하는지 관찰한다. 관찰자는 지켜보다가 언제든지 규칙을 범했을 때는 개입해서 교정해 준다.

말하는 약속은 다음과 같다. A는 지금 자신의 희로애락 중 제일 큰 감정을 표현한다. 그때 B가 첫째, 그의 말을 요약하고, 둘째, 그의 느낌을 전달하고, 셋째, 청자인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순서를 적절히 진행한다. 이때 상대방의 느낌에 비중을 두고 대화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지 모르나 이런 활동을 통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라. 토의 및 평가(20분)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물어보고 싶은 점 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 특히 연습할 때 공감 평가표에 적어 놓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다. 기도한 후 마친다.

마. 과제

7회기까지 공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복습해 보고 1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갈등을 겪은 문제를 상담의 9단계 모델 적용 양식에 따라 실시해 보고 이장호, 금명자의 상담 연습 교본 50-63 연습하기

## 8. 8회 : 자기 개방(self-disclosure)

가. 목적

자기 개방에 대한 이해 및 자기 개방 훈련

나. 강의(70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 나단

선지자의 직면을 받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고백시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가슴 깊이 숨겨온 죄를 노출하며 참회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정직과 찬양과 믿음으로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기 개방을 통해 사람은 더 인간다워지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sup>203)</sup>

### (1) 자기 개방의 의미

#### (가) 자기 개방이란

자기 개방이란 다윗처럼 개인적인 삶과 속마음을 타인과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기 개방은 관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우리들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상호간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고 담을 쌓을 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이란 스스로 내어 보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개방이 없을 때 상호간에 진정한 만남 또한 어렵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개방하여 자신의 동기와 생각을 공개해야 하며 이럴 때 서로가 신뢰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sup>204)</sup>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가 자신의 비밀을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주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기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 개방은 만남의 수준을 더욱 깊어지게 하며 신뢰의 발판이 되어 인간관계를 촉진시키는 기회가 된다.

#### (나) 잘못된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이 깊은 인간관계를 촉진시켜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방하는 것

203) Eugene H. Peterson, 다윗 :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1999), 221.

204) 추석호, “의사 소통 기술 훈련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대구: 한국 발달 상담 연구소 출판부, 1999), 365.

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의 경우는 잘못된 자기 개방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첫째, 단지 과거 일에 대한 사실의 보고 형식으로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개방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이다. 내담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이 현재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생각과 느낌도 함께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정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명 아래 필요 이상의 자기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개방으로 잘못 알고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비난도 자기 개방의 일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이다.

#### (다) 자기 개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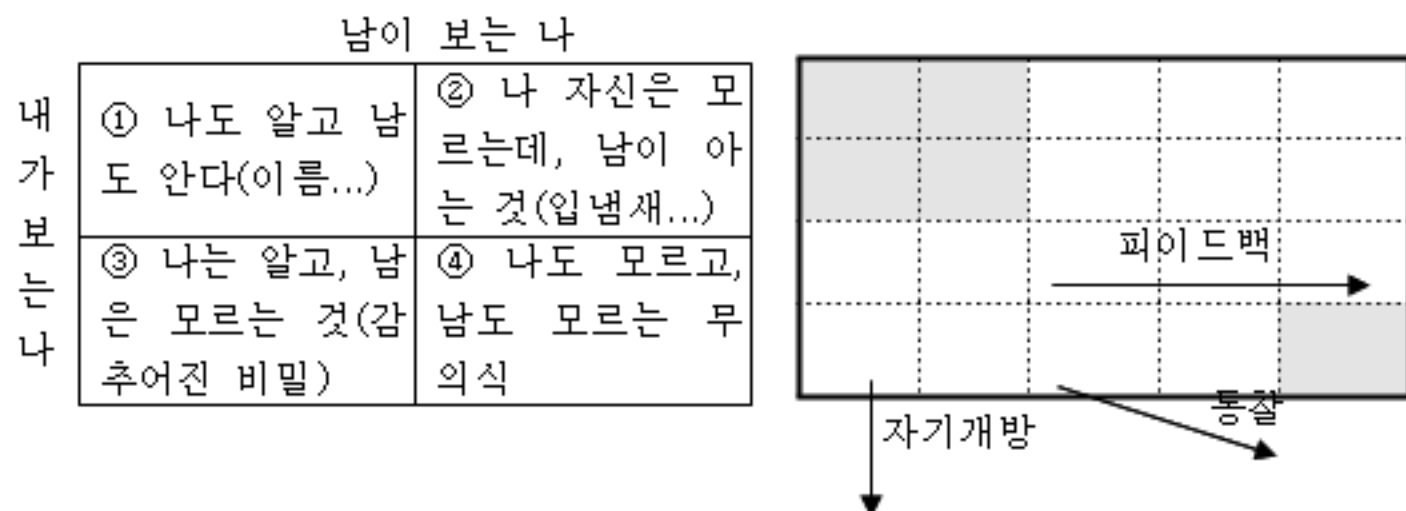
자기를 개방하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상대방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기 개방을 해야 한다. 상대방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하게 되면 간혹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둘째, 자기 개방을 위해서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 남에게 말한 적이 없는 내용, 그리고 남에게 알리기 싫어했던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이야기 해주면 상대방은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어 신뢰 관계가 더욱 촉진된다. 셋째, 자기 개방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 정서를 표현하면 의사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기 개방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깊은 자기 개방일지라도 의미 있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

#### (라) 자기 개방의 유익

자기 개방에는 상담자의 유익과 내담자의 유익이 있는데 상담자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자기 개방이 적을수록 자신의 에너지 중 자기 성장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가 적어진다. 즉, 자신에 대한 비밀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누가 그 비밀을 알까 두려워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많은 양을 그

비밀을 갈무리하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든다.<sup>205)</sup> 둘째,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자유함은 자신을 더욱 자신되게 함과 아울러 당당하게 자신을 이끌어 가게 할 수 있다. 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햄(Harry Ingham)은 '남이 볼 수 있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창으로 표현하였다.<sup>206)</sup>

〈그림 7〉 조하리의 창(The Johari Window)<sup>207)</sup>



①, ②, ③, ④의 영역의 크기와 형태는 상호간의 신뢰와 피드백의 교환과 자기 개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내가 남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거나 자기 개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 자기 통찰이 일어나면서 자아의 영역이 확장된다. 이러한 통찰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진정한 삶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자기 개방으로 인한 내담자의 유익은 첫째,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내담자에게 공감과 위로가 된다. 둘째, 내담자의 자기 개방은 그것 자체로 친밀감이 확대되고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셋째, 관계의 폭발이 일어나 뜨거운 성령의 나눔을 하게 되고 넷째, 상담자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 (2) 자기 개방의 전략

다음은 내담자의 적극적인 개방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205) 김성희, “집단 상담에서의 문제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제1차 집단 상담 Workshop (대구: 한국 집단 상담학회, 1999), 80.

206) Ann Ellenson, 사회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이근 후, 박영숙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0), 62.

207) Ibid.



### (가)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찾기 위한 자기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관심사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문제상황을 해결해야 하는가?208) 등이다.

### (나) 핵심 주제의 명료화

명료화란 구체적인 경험, 행동 및 감정을 통해 문제 상황과 아직 활용하지 않은 기회에 관해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면 아무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209)

### (다) 문제의 심각성 평가

내담자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서로 다르다.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내담자 자신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대수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내담자가 심각하게 여길 때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경우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사실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것 자체를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매러비안(Mehrabian)과 리드(Reed)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시하였다.

$$\text{심각성(S)} = \text{고통(D)} \times \text{통제 불가능성(U)} \times \text{빈도(F)}$$

$$(S: \text{severity} \quad D: \text{distress} \quad U: \text{uncontrollability} \quad F: \text{frequency})$$

공식에서 곱하기 표시를 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을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불안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없거나 지속된다면 내담자의 삶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상담이란 어떻게 보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담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빈도를 줄이거나 내담자가 문제 상황

208)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82.

209) Ibid., 182.

을 통제할 능력을 증대시키면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 수 있다.<sup>210)</sup>

#### (라) 과거에 대한 생산적 이야기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이야기하게 한다. 이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sup>211)</sup>

#### (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능력 찾기

보통 경험이 부족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숙련된 상담자는 그들이 가진 결함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관찰하면서 내담자가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탐지해 낸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를 구축할 주춧돌이 된다.<sup>212)</sup>

#### (바) 활용하지 못한 기회의 탐지와 개발

현대 심리학이 처음 발달하던 초기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자기가 가진 능력 중 10퍼센트 이상을 발휘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제임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비율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말을 했고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한 심리학자는 거의 없었다.<sup>213)</sup> 사람들이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정서 장애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sup>214)</sup>

#### (사) 행동을 자극

지극히 중요한 계획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다 진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상담

210) Ibid., 184-185.

211) Ibid., 187-188.

212) Ibid., 189.

213) A. H.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68).

214)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192.

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상담 시간이 말만 많이 했지 행동이 없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215)</sup>

#### 다. 활동(40분)

추석호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의사 소통 기술 훈련에서 자기 개방의 척도를 4 단계로 구분하였으나<sup>216)</sup> 여기서는 이장호와 금명자의 5수준 척도<sup>217)</sup>를 소개하여 실습할 것이다. 첫째 수준은 상대방과 의식적으로 격리되려고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에 관하여 아무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을 노출시키더라도 상대방과는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수준이다. 둘째 수준은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것 같지는 않으나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결코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는 수준이며, 셋째 수준은 상대방의 관심과 일치하는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때때로 모호하여 자기의 특성을 별로 나타내지 않는 수준이다. 넷째 수준은 상대방의 관심, 흥미와 일치되는 자신의 개인적 생각,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수준은 자신의 성격에 관한 매우 친근하고 상세한 소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어 자기를 공개한다. 상대방이 당황하게 될 수도 있는 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표현하는 수준이다.

다음의 예를 보고 각각의 반응들이 자기 개방 차원에서 몇 수준에 해당하는지 연습해보자.<sup>218)</sup>

영길이는 교회에서 대단히 총명하고, 착실하며 발표력도 뛰어난 중학교 2학년생이지만 어설픈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식당에서 음식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고 성경책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허다하다. 그는 설교 시간을 좋아하고 자기반 교사인 유 선생님을 따르며 좋아한다. 유 선생은 키가 크고 운동 선수같이 우람하게 생겼다. 영길은 친구들이 자기하고 잘 놀아주지 않는 것 같아 유 선생님께 상담하러 찾아갔다.

215) Ibid., 194-195.

216) 추석호, “의사 소통 기술 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 365-369.

217) 이장호, 금명자, 상담 연습 교본, 119-120.

218) Ibid., 120-121.

“저, 선생님.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늘 저는 잘 끼어주지 않아요. 애들은 제가 만사에 서툰고, 같이 놀아봤자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속상해요. 저는 같이 놀고 싶은데, 애들이 제게 잘 대해 주지를 않아요.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키가 크고, 또 아이들도 제가 서툰다 하더라도 저를 좋아해서 같이 놀아주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섯 가지 수준 척도>

- 3 가. 나 역시도 외롭게 지내왔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도 난 그런 일에 개의치는 않아.
- 1 나. 글쎄, 난 모르겠구나. 누구나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단다.
- 4 다. 나도 한 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지.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식이 너에게도 도움이 될 지 모르겠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해주면 좋겠구나.
- 2 라. 너 누구에게 노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더 잘 놀 수 있겠지. 아마 내가 도움이 될 지도 몰라.
- 5 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도 나를 야구팀에 끼어주지를 않았단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네 나이 때 겪었던 실망감과 똑같은 감정을 지금 너도 느끼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2) 다음의 활동들은 자기 개방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을 자기 파트너와 서로 이야기해 보거나 소집단 혹은 전체 집단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인 시절, 현재, 미리 써 보는 묘비의 문구 등), 자신의 열등감 나누기, 자신의 신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곳 이야기하기

라. 토의 및 평가(20분)

활동이 모두 끝나면, 오늘의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학습한 점, 특히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을 나눈 후 기도하고 마친다.

마. 과제

상담 연습 교본에서 자기 개방 연습(122-127)을 해온다. 한 사람을 내담자로 선정하여 상담하고 부록에 있는 상담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

9. 9회: 직면 훈련

가. 목적

올바른 직면에 대한 이해 및 연습

나. 강의(70분)

(1) 직면(롬 15:14)

직면이란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는 것이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 상황에 묶여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기존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으로<sup>219)</sup> 내담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신 예수의 모습을 닮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하는 비판과는 다르다(마 3:1-3). 비판은 율법주의(도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기의 악을 덮고 의를 내세우며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지적하여,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직면을 받는 그 순간에 불안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직면을 수용하게 된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기 때문이다. 또한 직면은 훈계나 충고와도 다르다(마 25:50; 26:21). 훈계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상대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

219)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213.

## (2) 직면의 목표

직면이 필요한 인간의 행동으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 즉 역기능적 정신 자세와 시각, 자기 제한적인 내적 행동, 그리고 외적인 문제 행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맹점이다. 맹점이란 내담자가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 제한적인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하고 자기 제한적인 정신 자세와 역기능적 시각을 자신을 해방시키고 강화시킬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게 해야 한다. 둘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제한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내적 행동'들을 바꾸게 해야 한다. 셋째,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자기 패배적인 외적 행동들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sup>220)</sup>

## (3) 직면의 내용

내담자 각자의 요구와 생활양식에 따라 직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직면할 때 필요한 공통적인 태도와 행동은 다음과 같다.

### (가) 책임 인정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는 비난을 잘한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221)</sup>

### (나) 해결 가능성 찾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한' 태도와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이다.<sup>222)</sup>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는 지나간 것이기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그의 태

220) Ibid., 217-218.

221) R. R. Carkhuff, The Art of Helping (Amhers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1987).

222)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231-232.

도는 바꿀 수 있으며, 현재의 결과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찾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는 부모를 비난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돌이킬 수는 없으나 앞으로 건설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sup>223)</sup>

#### (다) 그릇된 해석의 수정

내담자들이 문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기회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 집사가 유능한 사람이지만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공격적이면서 때때로 과격한 박 집사는 자신이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그릇된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sup>224)</sup>

#### (라) 삶의 부정직성에 대한 직면

첫째, 불일치에 대한 직면이다. 불일치의 종류에는 내담자의 생각 또는 느낌과 말의 불일치, 내담자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내담자 자신의 입장과 타인이 보는 입장의 불일치, 현재 모습과 되고 싶은 모습의 불일치, 내담자가 말한 목표와 행동의 불일치, 내담자가 말한 가치와 실제 행동의 불일치가 있다. 둘째, 왜곡에 대한 직면이다. 어떤 내담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곡해서 보려고 한다. 왜곡은 자기 잇속을 채우려는 행위이다. 셋째, 게임, 책략 및 연막 전술에 대한 직면이다. 내담자가 자기기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담자는 자신이 삶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막을 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담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려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때 내담자가 게임을 포기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변명에 대한 직면이다. 변명은 게임이나 왜곡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능한 상담자

223) Ibid., 232-233.

224) Ibid., 233.

는 따뜻하고 공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속는 것은 아니다.<sup>225)</sup>

#### (마) 내담자의 도피

직면이 내담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내담자는 어느 정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상담자가 직면해 나갈 때 아무리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내담자들은 여전히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담자가 취하는 다섯 가지 방식을 살펴보자.

첫째, 직면시키는 사람을 불신한다. 직면시키는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둘째, 직면시키는 사람의 입장을 바꾸도록 종용한다. 이 경우엔 직면시키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따진다. 셋째, 문제를 무시한다. 이것은 합리화의 한 형태인데 빈정대고 있는 어떤 내담자가 직면을 받으면 자신은 결코 빈정댄 일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놀린 것'은 단지 재미 때문에 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농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넷째, 직면하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지지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며 상담자를 바꾼다. 그러나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를 떠나지 않고 상담자의 견해와 상반되는 주장을 들이대면서 자기 전략을 고수하려 한다. 다섯째, 상담 장면에서 인정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외면하는 것으로, 일단 벗어나기 위해 상담자의 말에 수긍을 한다. 그러나 직면의 목적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226)</sup>

#### (바) 상담자의 도피

내담자 중심 상담을 포함하여 어떤 상담에서든 내담자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이 왜 직면하기를 주저하는지(아니면 직면하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상담 훈련을 받는 사람이 남에게 직면을 시킬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나는 남에게 직면케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의 대인관계 양식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식이다. 다른

225) Ibid., 234-238.

226) Ibid., 238-241.



사람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편치 않다. 둘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면케 한다면 나 또한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상처를 받거나 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배출구가 열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넘쳐흐를지 모른다. 나는 가슴 깊이 분노를 감추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다. 넷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두렵다. 어설픈 직면으로 인해 나 자신이 상처받은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 속으로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서 그들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직면케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담자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sup>227)</sup>

#### (4) 직면의 기술

직면을 촉진시킬 커뮤니케이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28)</sup> 첫째, 보다 깊은 공감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맹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행동, 감정, 인지에 대한 예감을 내담자와 함께 나눈다. 다음은 그 예이다.<sup>229)</sup>

최 집사님은 오늘 모임이 시작된 이래로 어느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바닥을 보거나 벽쪽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 모임이나 누군가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나 보죠(행동).

박 집사님은 오늘따라 신경질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특히 조금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은 과도하게 높았던 것 같고 얼굴까지 붉어졌으니 말이에요. 남편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은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감정).

한 집사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사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상담에서 얻을 것이 없고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인지).

둘째,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을 질문이나 대화기법을 통해 직면할 수 있다.

227) Ibid., 241-243.

228) Ibid., 271.

229) 설기문, “집단 상담에서 저항과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46.

#### ① 내담자의 감정을 직면시키는 대화의 기술

내담자는 자신의 무서운 감정, 두려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등을 직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므로 주의깊은 반응이 필요하다.

예) “지금 하는 말이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지 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표현하고 싶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말을 한다.

예) “지금 감정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모양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말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감정을 말하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 ② 내담자의 생각을 직면시키는 기술

내담자가 한쪽으로만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질문 형식으로 전달한다.

예) “장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모습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셋째, 정보의 나눔이다. 내담자가 문제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행동할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찾게 한다. 넷째,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다. 비방어적인 자기 개방의 모범을 보여 주고 내담자가 자기의 맹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나의 경험을 내담자와 함께 나눈다. 다섯째, 관계 점검(또는 즉시성)이다. 내담자와의 작업 동맹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내담자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토의한다. 여섯째, 권고와 제안이다.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보다 잘 처리하고 기회를 개발하고 또 상담 과정의 각 단계에 더욱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한다. 일곱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면하게 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직면할 수 있는 탐색 기회와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성공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의 약점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강점에 직면한다. 실패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아홉째, 구체적으로 직면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직면해야 할 대상이 모호하다면 성공할 수 없다. 내담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활동(40분)

훈련자나 보조 훈련자가 역할 놀이에 대한 시범을 보여준다.

##### (1) 직면의 다섯 가지 수준

이장호와 금명자는 직면 반응을 다음과 같이 5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up>230)</sup> 첫째, 언어 및 행동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이상과 현실, 통찰과 행동,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간의 불일치)을 전부 무시하는 수준, 둘째, 언어 및 행동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을 상당 부분 무시하는 수준, 셋째, 상대방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접근되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언어 및 행동 표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수준, 넷째, 언어 및 행동 표현에서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 마지막으로 다섯째, 언어 및 행동 표현에서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을 날카롭게 계속적으로 직면시키는 수준이다. 다음은 다섯 가지 수준에 따른 직면 반응의 예이다.<sup>231)</sup>

“저는 김 집사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고 해서 속상해요. 그러나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요.”

4 가. 김 집사하고만 친하고 싶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요?

1 나. 김 집사님하고 절친한 사이시군요.

3 다. 모든 사람하고 사귀고 싶기는 하지만 특별히 김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단 말씀이군요.

2 라. 당신과 김 집사 사이에 방해꾼이 끼어든다는 말이군요.

230) 이장호, 금명자, 상담 연습 교본, 109.

231) Ibid., 110.

- 5 마. 당신과 김 집사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속상해 하면서 아무하고 나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네요.

## (2) 직면 실습

직면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직면을 어렵게 하는 것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눈 후 자기 직면을 해본다. 먼저 자신의 삶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자각된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때 타인들은 경청과 공감으로 그를 격려하며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를 방어적 경청 기법으로 위로하며 격려한다.

## 라. 토의 및 평가(20분)

활동을 마치면 각자의 느낌과 경험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기도로 끝마친다.

## 마. 과제

자신의 장점 100가지를 작성해 온다(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 이장호, 금명자의 상담 연습 교본 110-116 연습해오기.

# 10. 10회: 위탁과 슈퍼 비전

## 가. 목표

위탁 및 슈퍼 비전에 대한 이해

## 나. 강의(90분)

### (1) 위탁 상담

목사들이 그들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모든 사역을 혼자 도맡아 하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며 사람들을 활용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현명한 위탁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봉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 어

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훈련이나 지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돕는데 관심이 있다면 내담자를 더 유능한 사람에게 위탁한다는 생각에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sup>232)</sup>

#### (가) 성경의 위탁

성경에 등장하는 위탁의 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광야 여행 도중에(출 18장) 호렙산 기슭에 진치고 있을 때 일어났다. 모세는 민원을 듣고 분쟁을 해소하는 가운데 그의 시간 전체를 백성을 재판하는 데 보내고 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의 상담자로 기진맥진할 정도로(출 18:18) 과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이드로는 자신의 충고로 이 상황에 개입했다. 이드로는 유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력자, 진실되고 정직하며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으며 상담으로 남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이드로의 이 제안을 모세는 수용하여 우리에게 위탁의 본을 보여주었다.

#### (나) 위탁의 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도움의 기초를 넓히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법률상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경우, 둘째, 극심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셋째, 의료상의 도움을 요하는 경우, 넷째,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 다섯째,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여섯째, 다른 상담자에게 바꾸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 일곱째,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여덟째, 마약이나 알코올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 아홉째, 강한 증오감이나 성적 자극 또는 상담자에 대한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마지막으로 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sup>233)</sup>

#### (다) 위탁의 종류

첫째, 위기 위탁으로 교인의 안전이 위협 당하거나 교인으로 인하여 타인의 안전

232) Gary Collins, 출중한 상담자, 152.

233) Ibid., 157-158.

이 위협 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 둘째, 의료적 위탁으로 심각한 식욕 부진증, 약물중독, 성적인 문제, 신체적 요인에 기인한 정신병 증상들이 해당된다. 셋째, 약물중독 위탁으로 약물 중독자들은 의료 기관과 단주 클럽 등에 의뢰되어야 한다. 넷째, 문제가 상담자의 능력 한계를 넘어선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상담자 자신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로 지나치게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이다.<sup>234)</sup>

#### (라) 위탁 기관

목사들과 전문 상담자들은 보통 내담자들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의 목록을 지니고 있다. 동료 상담자는 보통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이 또한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235)</sup> <표 23>과 <표 24>에는 위탁기관 및 대표적인 위탁기관 전화번호를 소개하였다.

<표 23> 위탁 기관<sup>236)</sup>

문제	위탁을 고려할 수 있는 곳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 방지 협회, 일반 병원, 내과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 구세군
어린이 학대, 어린이 문제	시청의 아동 및 가족 담당 부서, 아동 복지 협회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안, 초조, 혼동 등	심리학자, 신경정신과 의사, 정신 건강 진료소
마약 문제	종합병원, 상담 진료소, 신경 정신과 의사
재정 문제	정부 및 시청의 복지국, 교회, 은행, 단자회사
장애자	맹인 협회, 정박아 협회, 사회사업 단체, 봉사 단체

234) 엄예선, "Family Crisis and Pastoral Care", 82.

235) Gary Collins, 훌륭한 상담자, 153.

236) Ibid., 155.

법적 문제	변호사, 가정 법률 상담소, 법조인 협회
결혼 문제	결혼 상담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상담 진료소, 목사
사람을 잃어버림	경찰서, 파출소, 방송국, 신문사
신체적 문제	내과 의사
중독	종합병원
임신	산부인과 의사, 목사
영적(신앙) 문제	목사
자살 위협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정신 건강 진료소, 목사
직업 문제	개인 직업 소개소, 교내 생활 지도 담당, 심리학자, 상담자

〈표 24〉 주요 상담기관 및 전화번호 안내

구분	기관	전화번호
가정 (부부)	가정 선교 교육원(원장 양은순)	644-1494
	사랑의 집 가정 문화 연구원	444-2212
	아가페 가정 사역 연구원	765-0903
	아버지의 전화	3473-4702
	행복의 전화	887-1690
	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소장 송길원)	031-905-1009
	한국 기독교 상담 문화 연구원(소장 심상권)	549-5909
	두란노 정신건강상담실(실장 이만홍)	556-4702
	나눔의 전화	0351-876-7544
	두란노 가정상담연구원	797-5942
	한국목회상담연구소(소장 이관직)	3413-5254, 5255
	한국심리치료연구소(소장 이재훈)	532-9705
	단기가족치료센터	393-7745
	가족성장상담소(소장 고병인)	587-8771-2

여성	여성의 전화	263-6464
	부산 기독교 상담센터 쉼터	051-817-6464
	광주 여성 복지관	062-672-6464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상담	445-3550
	애란원(미혼모)	392-9933
	미혼모 도움코너	700-4833
	한국 성폭력 상담소	529-4272
	홀트 아동 복지회	552-7420-1
아동, 청소년	아동 학대 신고 센터 아동 상담소	813-7740
	열식 따르릉 전화친구	365-1223
	킹스키즈(King's Kids KOREA)	929-8240
	YMCA 청소년 상담실	732-8291
	십대들의 쉼터	365-0400
	기독교 청소년 상담실	900-2593
	그루터기 선교회(청소년 직업훈련)	0342-43-8030
	로템 청소년의 집(불우청소년 기능교육)	0443-45-7732
	청소년 정보 문화 센터 상담실	793-2000
	청소년 성문화 센터 상담실	677-9220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701-0098
	가출 청소년 쉼터	747-7417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쉼터	877-7942
	YMCA 나눔의 집	475-2867
약물중독	청소년 약물 상담소	383-0036
	안양 계요 병원 내 청소년 의료 센터	031-55-3333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586-7803
	연희 신경 정신과	323-9197
	약물 중독자 도움 코너	700-4403
	단도박 상담소	295-1728
	광주 요한 병원	062-529-0041
	한국 알콜 중독자 선교회	3672-9511
노인	영락 노인 복지 센터	0342-792-2155
	평화의 집(무의탁 노인)	0339-57-0242
	공동생활의 집	0339-58-0276



노인	노인 치매 가족 전화	396-9007
	은빛 전화	577-9007
	노인의 전화	365-2272
	임종의 전화	207-0044
	한국 노인의 전화	722-8007, 723-8007
정신과	축령 복음 병원(김진 선생님)	0346-592-6661-5
	베드로 신경 정신과(김영진 선생님)	0431-67-7771-2
비행	광주 소년 분류 심사원	062-375-2285
	대구 소년 분류 심사원	053-952-9988
	대구 소년원	053-323-0658
	대전 소년 분류 심사원	042-861-3162
	부산 보호 관찰소	051-508-3964
	제주 소년원	064-56-0497
	청주 소년원	043-62-8102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	031-51-2686
	부산 소년 분류 심사원	051-971-8502
	서울 소년원	031-55-6112
	서울 청소년 상담실	855-0625
성	청소년 성 전화 상담실	634-2000
	부산 청소년 상담실	051-624-5584
	한국 성폭력 상담소	576-5513
	한국 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646-8858
	서울 YMCA 성 문화 센터	677-9200
	서울 청소년 상담실	855-0625
장애인 상담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727-4905
	한국 장애인 부모회	595-4986
	대한 안마사 협회	752-6173
법률상담	국세청 민원 상담실	720-2100
	봉사의 전화	814-8114
	서울지검 상담실	530-5577
	각 구 세무서 봉사실	482-2180
	대한 법률 구조 공단	571-7801
	정해복지회	516-2654

법률상담	법률 소비자 연맹	575-9101
	서울 YMCA 시민 중계실	734-3904
	서울 지방 변호사회 무료 법률 상담소	522-9100
	국제 인권 옹호 한국연맹 인권 상담실	776-4733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784-3427
	동서울 합동 법률 사무소	755-8580
의료상담	대한 가족 협회	467-8213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355-8003
	한국 성인병 예방 협회	588-1411
	대한 간질 선교회	2238-1482
	장미회	394-2325
	알콜 중독 방지 협회	718-7504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706-0101
	의료 보험 관리 공단	3270-9001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362-0377
	대한 의사 협회 부설 의료 상담소	792-2520
	한국 건강 관리 협회	2601-7161
	한국 심장 재단	414-5321
	서울시 의사회 의료 상담소	676-9751
	나눔의 전화(카톨릭 사회 복지회)	752-4411
	간병인 협회	543-2078

#### (마) 위탁 방법

첫째, 위탁 결정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지역사회 의 상담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 비용이 얼마나 드나, 대기해야 하는 상태인가 등을 미리 알아봄으로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 비록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내담자가 새로운 상담자와 직접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셋째, 위탁이 이루어진 후 다음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상의한다. 전문 상담가들 사이에서는 이전 상담가는 새 상담자가 인계받은 다음부터 보통 “손을 완전히 떼는 것”이 상례이다. 그

러나 목회 상담이나 평신도 상담에서는 이러한 관계 단절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상담자나 그룹이 주요 상담 책임을 진다 해도 접촉은 계속할 수 있는데 특히 친구로서 또는 목사로서 지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sup>237)</sup>

## (2) 상담자를 위한 슈퍼 비전

평신도 상담에 관한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평신도 상담 사역을 시작한 평신도 상담자들에게도 후속 훈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슈퍼 비전이 필요하다.<sup>238)</sup>

### (가) 슈퍼 비전의 정의

슈퍼 비전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료적 역량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집중적이고 대인 관계에 초점을 둔 일대일 관계이다. 그러므로 슈퍼바이저(supervisor)는 상담자의 기술, 역량, 효율성을 더욱 개발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담자를 감독하고 교육 지도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다. 초기 시점에서 슈퍼바이저는 상담 실습생의 교육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상담 그 자체가 상담 실습생에게는 매우 두려운 경험이다. 따라서 숙련된 임상가의 안내가 없다면 상담 실습생은 너무 구조화된 임상적 접근법에 매달리게 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상담 실습생이 지속적인 슈퍼바이저 없이 상담을 계속할 경우, 몇 개월 후에는 상담 기술이 처음보다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훈련 과정은 반드시 슈퍼 비전의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슈퍼 비전은 정기적이며 상담 실습생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좋은 슈퍼 비전은 기술 훈련과 상담 과정에 관한 초점이나 역동에 대한 토론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sup>239)</sup>

### (나) 슈퍼바이저의 역할

기능을 잘하는 슈퍼바이저는 높은 수준의 공감, 존중, 진지성, 융통성, 배려, 투자, 솔직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 또한 훌륭한 슈퍼바이저는 지식과 경험이 많으며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적절한 가르침과 목표-설정, 피이드

237) Ibid., 159.

238)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48.

239) Ibid., 149-150.

백 기술 등을 이용해서 슈퍼 비전을 이끌어 나간다.

슈퍼바이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찾아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상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부단히 자기의 맹점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토론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어려운 사례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하며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하게 한다. 그래서 상담자가 강박적인 경향을 피지 않으면서 상담 관계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자기 자신을 부단히 살피고 도전해 가도록 돕는다.<sup>240)</sup>

훌륭한 슈퍼바이저라면 다음 네 가지 경우는 피해야 한다. 그것은 ① 치료나 상담에 있어서 상담 실습생이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 ② 불분명한 지침이나 불충분한 지시를 하는 것 ③ 냉담하거나 거리를 두고 돌보지 않으며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 ④ 상담 실습생을 환자나 내담자로 삼아 그의 성격 구조에 초점을 두고 슈퍼 비전 시간을 상담 실습생을 위한 치료 시간으로 전환하기 등의 태도이다. 이 시간에는 상담 실습생의 자기 발견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상담 실습생이 가장 반감을 갖는 경우는 네 번째 경우의 슈퍼바이저이다.<sup>241)</sup>

상담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담 실습생이 제시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슈퍼바이저가 유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그 슈퍼 비전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슈퍼바이저는 자신과 실습생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가 ‘실습생이 말을 삼가는가?’, ‘자신을 슈퍼바이저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슈퍼바이저가 특정 방법으로 상담 과정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자기들을 감시할까봐 주의를 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봄으로 보다 효과적인 슈퍼 비전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 다. 활동(40분)

상담해 온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중에서 훈련자가 1, 2개 선정하여 슈퍼

240) Gerard Egan, 유능한 상담자, 243-244.

241) A. Rosenblatt and J. Mayer, “Objectionable Supervision Styles: Student's View”, Social Work 18 (1975), 184-189.

비전을 해 줌으로써 슈퍼 비전의 실재를 보게 한다.

라. 토의 및 평가(20분)

오늘 전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전체 앞에서 나눈 후 기도로 마친다.

마. 마무리

지금까지 훈련한 평신도 상담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 그리고 학습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작성한다. 그후 사랑에 관련된 복음성가를 함께 조용히 부르고 지도자가 기도한다. 다함께 따뜻하게 축복함으로써 상담 훈련을 모두 마친다.

## 제 8 장

##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제 1 절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실험 집단으로는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서울의 한밀 교회 청장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발 기준의 원칙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기초 성경 공부나 일대일 제자 훈련을 마친 자에 한하여 훈련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상담자로 사역하고 싶은 훈련자 중 선발 조건에 미흡한 사람은 훈련 도중이나 훈련 후에 기초 성경 공부나 일대일 제자 훈련을 마치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으로는 상담자 훈련을 받고 싶은 지원자 중에서 실험 집단과 비슷한 조건의 청장년 30명을 두었다. 통제 집단 20명에게는 실험 집단의 훈련 과정이 끝난 후 상담자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지원자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하였고 통제 집단은 실험 기간에 평상시와 같이 일반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한밀 교회 청장년 30명을 모집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3시간씩 총 30시간을 교육하였다. 상담자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이 훈련의 목적과 훈련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는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CTPQ), 의사 소통 능력 검사로 하였다. 통제 집단에도 똑같이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 10주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사후 검사

를 실시하였다. 훈련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때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 3. 측정 도구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첫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신도 상담자가 습득한 상담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와 둘째, 평신도 상담자의 영적 성장을 포함하여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평가가 있다. 탄상양은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일차적인 초점은 상담지식과 기술 습득에 두어야 하며 이차적인 초점은 평신도 상담자의 영적 성장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성장에 있다고 하였다.<sup>242)</sup>

연구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으로서 성경적 상담 지식과 상담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척도를 가지고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그 차이를 통하여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로써 상담자에게 기본으로 요구되는 자질인 공감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둘째, 의사 소통 능력 검사로는 상담 훈련을 받은 후 상담의 기초적 기술인 의사 소통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나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CTPQ를 통하여 훈련 프로그램에서 실시했던 상담 기술(상담 지식, 기독교 상담 지식, 경청, 공감, 감정 표현, 자기 개방, 직면) 각각에 대하여 실시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향상되었나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가. 의사 소통 능력 검사

카커프의 인간관계 척도를 동료 상담 훈련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턴달 등의 의사 소통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의사 소통 능력을 고-중-저의 3 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호소문에 따라 객관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유형과 주관식으로 기술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유형만을 채택했으며 상황을 평신도들에게 맞게 몇 군데만 바꾸어서 사용하였고 각 문항을 1점씩으로 채점하여 맞은 개수를 합했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보고되어 있

242)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77.

지 않다. 객관식 문항의 정답은 부록 2에 함께 첨부되어 있다.

#### 나.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

카커프의 내담자 진술에 포함된 10문항 중 우리 나라 문화적 상황과 맞지 않은 두 문항을 제외시키고 신경일이 제작한 문항(5, 6번)을 추가시켰다. 채점 방법은 내담자의 진술 일부분에 대해 반응자로 하여금 자신의 반응을 주관적으로 기술하게 한 후 그 반응을 수준 1에서 수준 5까지 평정하도록 했다. 카커프의 5단계 척도를 6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신경일이 제작한 전체 10 문항 중에서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문항 6개를 선택하여 사전 검사에 사용하였고, 사후 검사 시는 사후 검사용으로 수정된 문항 4개를 바꾸어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크론바흐(Cronbach)  $\alpha=.55$ 이며 피어슨(Pearson) 적률 상관 계수 2주 간격 검사 .66이고, 채점자간 신뢰도 .90이다.

평정자는 상담 전공의 석사 출신 2명이 공감적 언어 표현의 평정 기준표를 보고 3시간 정도 연습하였다. 평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은 서로 토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였다. 연습이 끝난 후 실험 집단 20명에 대해 각각 채점을 하였다. 그것에 대해 일치율을 비교한 결과 .90이 나왔기에 통제 집단에 대해서도 각각 평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평정자 2명이 채점 점수를 합한 것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다.

#### 다. 상담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

탄상양이 개발한 평신도 상담 훈련 프로그램 평가지로서 평신도 상담자들이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 지식과 상담 능력 및 기술에 대한 여섯 항목을 자기 보고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전, 사후 설문지이다. 이것은 상담 지식, 기독교 상담 지식, 상담의 능력(기술성), 상담 역량에 대한 자신감, 기독교 상담 능력(기술성), 기독교 상담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의 여섯 항목을 자기보고 형식으로 하는 척도로 사전, 사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탄상양은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면 여섯 항목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섯 중 네 항목(질문 1, 2, 3, 5)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 항목 중 본 프로그램의 평가 목적에 맞도록 3, 4, 5, 6, 7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3.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공감 능



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감정 표현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자기 개방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직면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도 0-100의 척도를 10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부록 참조).<sup>243)</sup>

####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모든 통계 처리는 윈도우용 한글 SPSS 7.5 version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실험에 응한 30명 중에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 2명과 10회 훈련을 모두 마치지 못한 2명과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다. 통제 집단으로는 사전 사후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이 20명이었기에 최종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 20명 씩 총 40명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였다.

가. 3가지 척도를 가지고 통제-실험 집단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나. 다음으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의사 소통 능력과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과 상담 평가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에 대하여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 검사 점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다. 실험 집단의 훈련이 끝난 후에 작성한 상담자 훈련 전체 평가서를 요약, 정리해 봄으로써 훈련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았다.

### 제 2 절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교

다음의 <표 25>에서 <표 28>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별, 나이, 학력, 생

243)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78-179.

활 수준 그리고 세례받은 시기에 대한 비교이다.

〈표 25〉 성별 비교

성별	집단 분류		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남성	5	6	11
여성	15	14	29
계	20	20	40

〈표 26〉 나이별 비교

나이	집단 분류		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20대	4	8	12
30대	7	7	14
40대	4	3	7
50대	5	2	7
계	20	20	40

〈표 27〉 학력별 비교

학력	집단 분류		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중졸	1		1
고졸	6	9	15
대졸 이상	13	11	24
계	20	20	40

〈표 28〉 생활 수준 비교

생활 수준	집단 분류		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중상	2	1	3
중	10	13	23
중하	4	5	9
하	4	1	5
계	20	20	40

〈표 29〉 세례받은 시기

세례 시기	집단 분류		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1-5년	3	2	5
6-10년		3	3
10-15년	7	9	16
16년 이상	9	5	14
세례 안 받음	1	1	2
계	20	20	40

위 도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별, 나이, 학력, 생활 수준, 세례받은 시기 등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거의 비슷한 집단이며 나이에 있어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 2.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의사 소통 능력과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과 상담자 평가 수준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30〉와 같다.

〈표 30〉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 집단(n=20)		통제 집단(n=20)		t	p
	M	SD	M	SD		
의사 소통 능력	11.75	3.01	11.15	4.30	.51	.61
공감적 언어 표현	41.10	12.70	39.90	14.09	.28	.78
상담자 평가 질문지	41.95	6.04	38.55	8.31	1.48	.15

〈표 3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사이에 평균 점수를 비교한 t검증 결과를 보면 의사 소통 능력과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과 상담자 평가 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을 적용하기 이전의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해석된다.

## 3.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의사 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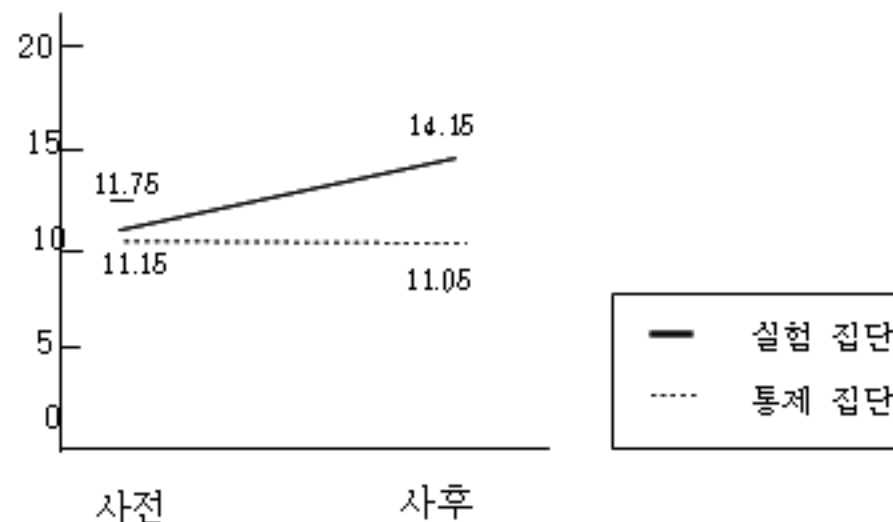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실험 집단에게 실시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의사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1>이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8>이다.

<표 31>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p
	M	SD	M	SD		
실험 집단(N=20)	11.75	3.01	14.15	2.25	-4.37	.00*
통제 집단(n=20)	11.15	4.30	11.05	2.95	.15	.88

(점수범위 0-20점) ( $p<.01$ )

<그림 8> 의사 소통 능력의 집단별 사전, 사후 변화



<표 31>과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 소통의 경우,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는 11.75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는 14.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통제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이 11.15에서 실험 집단과 비슷하였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11.05로 그 정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훈련 후 의사소통 지수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온 틴델(Tindall) 등의 연구와 공감, 온정, 자기 개방 면에서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한 추석호의 연구 및 사관 생도를 대상으로 동료 상담자를 훈련하여 의사 소통 능력 면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인 김광은의 연구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평신도 상담자들의 의사 소통 능력 배양에 매우 효과적이며 의사 소통을 비롯

한 상담 기술은 집중적인 훈련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 4.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공감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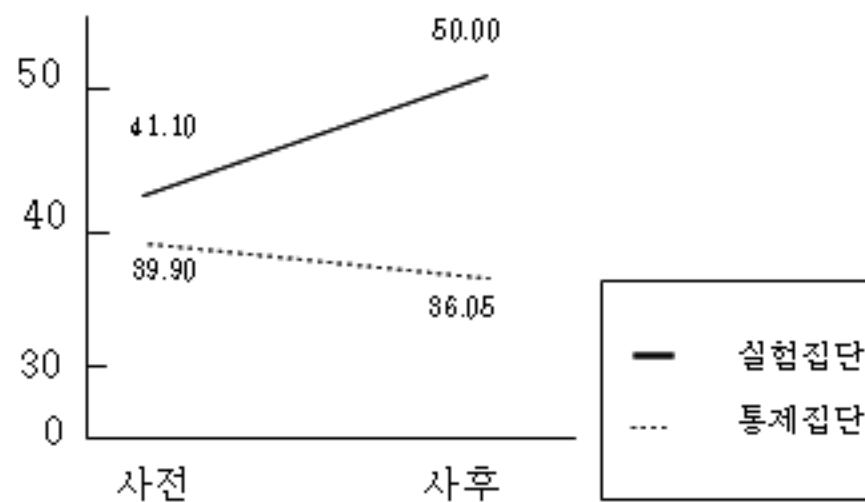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가지고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 32>와 <그림 9>와 같다.

<표 32> 공감적 언어 표현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p
	M	SD	M	SD		
실험집단	41.10	12.70	50.00	10.71	-4.75	.00**
통제집단	39.90	14.09	36.05	12.06	2.77	.01*

\*  $p < .01$

<그림 9> 공감적 언어 표현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 변화



<표 32>와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 41.10에서 훈련받은 후 50.00으로 매우 의미 있게 향상되었으며 통제 집단은 사전이 39.90에서 사후 검사에서 36.05로 오히려 낮게 평가되었다. 통제 집단의 경우 사후에 공감적 언어 표현 점수가 감소된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 검사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고 문항에 따라 상황 설정도 각각 다르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공감해 주

어야 하는데 통제 집단의 경우 상황에 맞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력이나 동기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잠정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 없이 평가 대상으로만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통제 집단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저항을 유발해 낸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실험 집단의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은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상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공감적 이해나 공감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초심 상담가들도 훈련만 잘 받으면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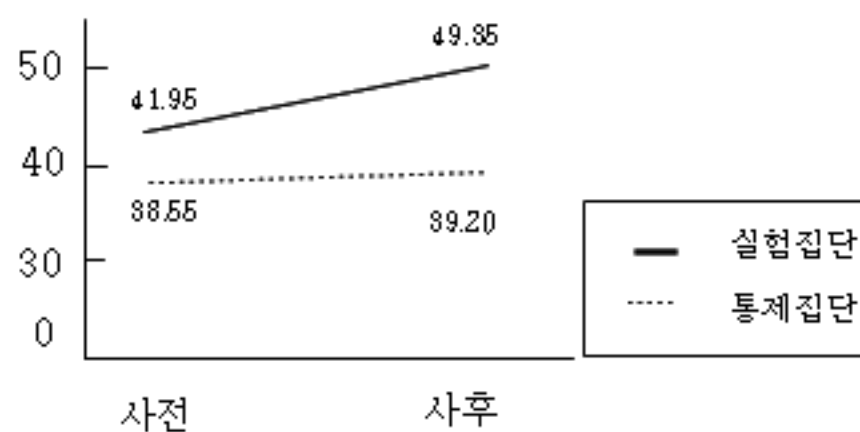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가지고 t검증을 하였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33>과 <그림 10>과 같다.

<표 33> 상담자 평가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실험집단	41.95	6.04	49.35	9.43	-4.00	.00**
통제집단	38.55	8.31	39.20	7.73	-.43	.67

\*  $p < .01$

<그림 10> 상담자 평가에 대한 집단의 사전 사후 변화



위의 결과를 보면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 41.95에서 훈련받은 후 49.35로 매우 의미 있게 향상되었으며 통제 집단은 사전이 38.55에서 사후 검사에서 39.20으로 거의 변화가 없던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 집단은 평신도 상담자 훈련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자 평가 질문지는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표 34> 상담자 평가의 하위 요소의 집단간 평균 비교

하위 변인	실험 집단				t값	통제 집단				t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상담 지식	5.40	2.21	6.75	1.44	-3.00*	4.70	1.62	5.00	1.52	-.97
기독교 상담 지식	4.65	1.81	6.80	1.43	-4.67*	4.35	1.38	4.80	1.64	-1.30
경청 능력	6.75	1.16	7.55	1.60	-2.13*	5.90	1.61	5.85	1.69	.18
공감 능력	6.60	1.14	7.25	1.44	-2.09	5.65	1.34	6.05	1.27	-1.25
감정표현 능력	6.60	1.72	7.30	1.68	-1.70	5.75	1.83	5.65	1.98	.24
자기개방 능력	6.25	1.11	7.50	1.46	-3.68*	6.50	1.90	6.10	1.37	.98
직면 능력	5.70	1.08	6.20	1.85	-1.22	5.70	1.97	5.75	1.71	-.17

\*p<.05

<표 34>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7가지 요인 중에서 상담 지식, 기독교상담 지식, 경청, 그리고 자기 개방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공감, 감정 표현, 직면 능력에서는 실험 집단의 변화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전체 결과와 하위 요소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신도 상담자 훈련은 상담 기술 습득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대한 전체 평가서

평신도 상담자 훈련을 마치고 난 후 참가자들에게 전체 평가서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무기명으로 작성케 하여 당일 집단의 도우미가 수집하여 연구자와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한 반응

이번 훈련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면 훈련(6명), 성경적 상담(5명), 공감(5명), 경청(4명), 감정 표현 훈련(3명), 합리적 신념, 자기 개방, 상담의 기술(3명), 감정을 잘 들어주자, 상담은 예술이다 등 아주 다양하게 응답했다.

나. '당신이 배운 교훈 중 상담자가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6명). 이외에 '동조하지 말 것'(5명),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 것'(4명), '충고하거나 가르치려 하는 것'(3명), '말 많이 하는 것', '내담자가 상담자 의존하게 하는 것', '필요 이상의 자기 개방', '미리 답 주기', '지나친 개입', '상담 중 판 생각' 등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 진행 방법과 훈련자의 훈련 및 시범 그리고 강의 전달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아주 불만족의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 평신도 상담자 훈련에 대한 전체 평가서(응답자 24명)

내용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아주 불만족
진행 방법	6	17	1	0	0
훈련 및 시범	7	17	0	0	0
강의 전달	11	13	0	0	0
계	24	47	1	0	0

전체 응답자 중 진행 방법 및 훈련에 대해서는 6-7명이 아주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명이었고 진행 방법에 대해 1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전체 진행에 대해서 24명 중 23명이 만족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강의 전달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이 11명, 대체로 만족이 13명으로 진행



방법에 비해 많은 수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강의 전달 방법 및 내용 전달이 아주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라. 가장 도움이 된 점과 안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도움이 된 점에 대한 반응은 아주 다양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발견 및 내적인 문제 발견(9명)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경청 및 공감의 기술 습득(2명), 상담자의 자질 및 이해(2명), 실습(2명), 체계적인 강의(2명), 통합적 사고(2명), 문제 감정에서 올바른 감정 찾기(2명), 인도자의 자세, 공감과 동조의 구별 등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도움이 안된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19명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5명의 내용은 과제가 도움이 되었지만 부담스러움(2명), 실제 상담하기에 아직 역부족, 배운 내용 검증해 볼 기회 없음, 좀 어려웠다고 보고 하였다.

마.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표현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별 나눔 및 실습 부족(4명), 과제에 대한 부담(3명),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 상담 실습에 대한 어려움, 시간 부족 등의 내용을 적어 주었고 무응답이 9명이었다.

상담자 훈련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를 요약해 보면 훈련을 통해 먼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고, 상담의 이해 및 기술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훈련자의 진행 방법과 훈련 및 시범 그리고 강의 전달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워했으며 불만족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상담자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여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엿보여 전체적으로 이번 훈련이 평신도를 상담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 3 절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10회의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상담자로서 필요한 의사 소통 능력 및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 그리고 성경적 상담에 필요한 요소

중 상담 지식, 기독 상담 지식, 경청, 공감, 감정 표현, 자기 개방, 직면 능력에 있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의 과정은 먼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의사 소통 능력 및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 그리고 상담자 평가 질문지를 가지고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 집단의 훈련이 끝난 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이 상담자 훈련을 받는 동안 통제 집단은 평상시와 같이 자신이 하던 대로 교회 예배 및 다른 훈련은 받도록 하였고 그 외의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실험 집단은 훈련이 끝나는 날 전체 평가 질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신도 상담자 훈련은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01$ )를 보여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피훈련자의 경청, 관심 기울이기, 공감, 질문, 진실성 등을 포함한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관 생도를 대상으로 한 김광은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턴델 등의 객관식 문항(1985)은 검사 내용이나 채점 방식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제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상담은 문장에 의한 간접적인 의사 전달이 아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상담 장면을 녹음, 촬영하거나 전문가들의 직접 관찰에 의한 평정의 방법이 도입되고 검토되어야 하겠다. 둘째, 평신도 상담자 훈련은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01$ )를 보여 평신도 상담자 훈련이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하위 요소 중의 하나인 공감 능력도 같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의사 소통 능력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를 사용한 것은 본래 의사 소통 능력 검사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김광은은 이것에 대해 주관식 문항은 사관 생도의 생활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된 것인 만큼 다른 집단에 적용할 때는 그 소재를 집단 특성에 맞게 적

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sup>244)</sup> 따라서 의사 소통 능력 검사의 주관식 문항 대신에 공감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카커프의 공감적 이해 척도를 우리 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신경일이 새롭게 제작한 공감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척도 사용에 있어서 카커프는 자신의 5점 척도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1점 ~ 1.5점 수준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카커프의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을 경우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변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에 대해 카커프의 5단계 척도의 내용을 일반 피험자들에게 맞도록 약간 수정하여 7점 척도로 신경일이 바꾸었는데(부록 4 참조)<sup>245)</sup> 본 연구에서는 신경일의 7점 척도 기준에 따라 평정하되 6점과 7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7점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6점과 7점을 합하여 6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셋째, 평신도 상담자 훈련은 상담 지식, 기독 상담 지식, 경청, 공감, 감정 표현, 자기 개방, 직면 능력에 대한 자기 보고식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 $p < .001$ )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7가지 요인 중에서 4가지(상담 지식, 기독 상담 지식, 경청, 자기 개방)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그 외의 공감, 감정 표현, 직면 항목에서는 향상되지 않았다.

CTPQ 검사지는 평신도 상담자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탄상양이 개발한 것으로서 그는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면 자신이 개발한 여섯 항목(부록 참조)중 최소 네 항목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는데<sup>246)</sup>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가지 요인의 상승을 보여 준 위의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상담자 훈련에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검사 도구가 자기 보고식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대한 보고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자가 이번에 개발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상담자의 자질 향상 및 의사 소통 능력과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 그리고 상

244) 김광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64.

245) 신경일,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49.

246) Siang-Yang Tan, 평신도 상담자, 180.

담자의 기술(상담 지식, 기독 상담 지식, 경청 능력, 공감, 감정 표현, 자기 개방)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평신도를 상담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공식화된 프로그램이 없던 때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비전문가라도 지속적인 상담 훈련을 통하여 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평신도와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었다는 것도 본 논문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본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많은 검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제 9 장

### 결 론

상담은 개인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활력소를 계속적으로 갱신해 가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 상담은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관계 안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참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sup>247)</sup>

이제 21세기의 목회 상담은 그 방향이 더욱 다양해지고 내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복지 문화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전인 건강, 영성 제고를 위한 건강 관리,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명상 요법 등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상담 분야의 요청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또한 여기에 동원되는 기법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치료, 음악 치료, 무용 치료 등으로 다양해 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와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은 생태 요법을 발전시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영성적 통전성(spiritual wholeness)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복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 공학의 결과들은 상담의 윤리적 내지는 도덕적 신실성과 관계된 종교적, 가치 지향적 상담의 빈도를 높여 줄 것이다. 특히 신경 심리학적인 상담 모형이 구체화되면서 감정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도덕 지능(moral intelligence)등과 관계된 분석적, 감성적 상담 모형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담 모형은 여성 심리학에 기초한 여성 해방적 상담 모형을 풍요롭게 계발하여 우뇌적이며 여성적 상담으로 수없이 잠재된 인간 잠재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회중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는 행위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지 않고 교회 쇼핑(church shopping)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될 것이므로 20세

247) 고병인, 목회와 상담 (서울: 도서 출판 예인, 1996), 159.

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삶을 영위할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촉발해 주고 신앙을 끊임 없이 유지해 주려면 다양한 서비스의 목회적 자원이 될 상담적, 치유적 구조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sup>248)</sup>

따라서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하여 활용하기만 한다면, 점점 다양해지고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회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 상담 사역의 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신도 상담자들의 상담 사역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적인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며 전문 상담 치료사로서의 신뢰도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신도 상담이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평신도 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신도 상담자의 역할 및 임무를 분명하게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평신도 상담자들은 상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이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평신도 상담자나 이들에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관장하는 부서 모두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제반 문제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신도 상담은 그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전문적이고 비직업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구체적인 상담 장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나 기술에 관한 사전 교육은 반드시 계획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신도 상담자를 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료 상담에서는 그 효과에 있어서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평신도 상담에 관한 연구도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평신도 상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합하여 평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된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평신도 상담이 전문 상담 못지 않게 상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도된 것이었으며,

248) 이기춘, “목회 상담과 새로운 목회”, 목회 상담 세미나 강의안,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삼남연회 전남 동부 지방 선교부, 2001), 6-7.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임상 경험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 실험, 다양한 척도에 의한 평가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또한 평신도 상담자를 훈련시키려는 훈련자는 프로그램의 실시예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성경적 상담은 새로운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과 성숙성을 계속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신학 자체의 유산과 인접 학문과의 관련성에서 신학적인 기반을 심화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당한 인간을 돕기 위하여 학문적 체계를 이론과 임상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둘째, 아직까지 교회의 공동체에서의 평신도 상담은 그 시도가 초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적 상담 이론과 성경적 상담 이론과의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상담 목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이 인간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보조 수단이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중심의 사역이 가장 으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있어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기본적인 상담 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이 프로그램을 훈련한 후 평신도 상담자가 실제로 내담자를 상대로 상담을 하였을 때 상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훈련 효과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필식 검사와 훈련 대상자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동 관찰을 위한 녹음이나 좀더 객관적인 평가 방법들이 실시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비록 효과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검증하여 표준화시키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훈련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6개월이나 1년 후의 상담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평신도 상담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로서 훈련 후의 평신도 상

담자의 영적 성장 및 개인적 성장에 대한 연구도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참가자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설문지를 돌리거나 전화나 직접 면접 등을 통하여 시도해 보거나 훈련이 끝난 후 소집단 토론이나 면접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상담과 일반 상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평신도 상담 이론 및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등 평신도 상담에 대한 연구는 초보 단계인 만큼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상담 모델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성육신을 시행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상담하며 다른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어설픈 잔재주나 지식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열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평신도 상담자를 치유하며 세우며 다듬어 저들이 또 다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담 사역을 돕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순수하고 고귀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표출하여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1

## 설 문 지

다음 사항을 읽으시고 해당란에 O표 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남 / 여)

2. 연령(만 세)

3. 결혼 유무(미혼 / 기혼)

4. 학력

1) 국졸 이하( )      2) 중졸( )      3) 고졸( )

4) 대졸 이상( )

5. 생활 수준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

6. 직업

1) 자유업(판매원, 노동 등)

2) 자영업(약국, 잡화상 등)

3) 관리직 및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4)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목사 등)

5) 기타

7. 교회를 나오게 된 시기

1) 모태 신앙( )      2) 유년 시절( )      3) 초등학교 시절( )

4) 중고등학교 시절( )    5) 그 이상(만 세)

8. 세례를 받은 기간

1) 1-5년( )      2) 6-10년( )      3) 10-15년( )

4) 16년 이상( )    5) 세례 안 받음( )

9. 교회에서의 직분

1) 직분 없음( )    2) 집사( )    3) 권사( )

4) 장로(    )                      5) 교사(    )                      6) 기타(    )

10.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

1) 부모 또는 친척의 권유(    )                      2) 친구 영향(    )  
3) 성직자 및 기독교인의 전도로(    )                      4) 본인의 의사(    )

## 부록 2

##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사전)

\* 다음은 열 가지 진술문에 관한 당신의 반응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는 특별히 더 낫다거나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문병을 하고 돌아온 한 부인이 :

나는 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을 문병하러 갔었어. 우린 정말 서로 반가와 했었지.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고 그분은 눈물까지 흘렸었어. 나는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우리의 만남은 그분에게 평소와는 다른 그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야.

반응 :

## 2.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한 남학생이 :

내 방 친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자기의 생활에서 그 어느 누구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방의 모든 일을 그 애는 모두 자기 방식대로 처리해 버려요.

반응 :

## 3. 한 친구가 :

내 생각에 아무래도 그녀는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제 밤만 해도 그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갑자기 자기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반응 :

## 4. 한 청년이 :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일이나 사회사업 같은 일은 저에게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반응 :

## 5. 공장에 다니는 한 노동자가 :

난 요즘 우울해. 난 당신도 잘 알고 있는 내 젊은 날들을 생각해 보았어.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시절... 그땐 그렇게도 희망적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렇게도 바라던 대로 되었어. 그러나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아. 나는 가족이 있고, 집도, 그리고 좋은 직업도 가졌어. 일상적으로 만나는 몇몇 친지들도 있고. 그런데 무엇인가,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아.

반응 :

## 6. 한 내담자가 :

선생님의 충고는 정말 엉터리예요. 전 저의 과장님에게 가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저에게 “당신은 자기 일이나 충실히 해. 건방떨지 마”라고 말했어요.

반응 :

## 부록 3

## 공감적 언어 표현 검사의 사후 검사 중 수정된 문항

## 2.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이 :

저는 저희 집이 정말 싫어요. 하루 종일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일만 해야하니, 저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반응 :

## 3. 한 청년이 :

제 여자 친구는 정말 성격이 이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는 것 같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반응 :

## 4. 한 전화 교환원이 :

저는 제 일이 좋아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보수도 안정된 편이고... 그러나 발전성이 없어요. 저는 좀더 제가 나아질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반응 :

## 10. 한 사장이 :

요즘은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직원들은 월급 인상 투쟁이고 경쟁은 높아만 가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요.

반응 :

## 부록 4

## 공감적 언어 표현의 평정

1점 : 비난, 위에서 하는 듯한 비판적인 충고, 방어적 표현

‘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애.’ ‘나 같으면 이런 큰 병원에 오지도 않겠어.  
무엇 때문에 괜히 이 병원에 와 가지고.’, ‘그 과장이 잘못이야’

2점 : 조력의 동기가 있는 충고, 해석, 일반화, 정보 요구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렴’

‘그녀는 약간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

‘그럴 땐 누구라도 그럴 거야’,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3점 : 같은 입장이 되는 것(동조), 판단의 유예, 격려

‘정말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참 잘하셨어요.’

‘부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그럴 것 같군요’

4점 : 화자가 표현한 내용의 이해를 보면

‘그 친구와 함께 지내기가 정말 곤란하겠구나’

‘오래 기다리셨군요’

5점 : 화자가 표현한 느낌까지 이해하였음을 표현

‘무척 속상하시겠어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6점 : 화자의 동기, 내적 욕구까지 표현

‘당신은 정말 그 부인을 돕고자 하셨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져서...’

7점 : 심층적 감정의 표현, 언어를 넘어선 존재의 공유

## 부록 5

## 카커프의 척도와 신경일 연구 척도의 비교

	카커프의 척도	신경일의 척도
1점	화자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은 충분히 주의 집중을 받지 못한다. 반응자의 언어, 행동 표현에 의해 오히려 산만해진다.	비난, 위에서 하는 듯한 비판적인 충고, 방어적 표현
2점	화자가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지만 현저한, 중요한 정서를 빼고 표현을 해준다.	조력의 동기가 있는 충고, 해석, 일반화, 정보 요구 같은 입장이 되는 것(동조), 판단의 유예, 격려
3점	화자가 표현한 느낌, 의미만큼 꼭같이 하나도 빠지 않고 그대로 표현, 상호교환 가능한 반응을 한다.	같은 입장이 되는 것(동조), 판단의 유예, 격려
4점	화자가 자신을 표현한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그의 감정을 표현해 준다.	화자가 표현한 내용의 이해를 표현
5점	화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래 더욱 심층적 수준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깊은 자기탐색의 순간에 충분히 상대방과 함께 한다.	화자가 표현한 느낌까지 이해했음을 표현
6점		화자의 동기, 내적 욕구까지 표현
7점		심층적 감정의 표현, 언어를 넘어서 존재의 공유

## 부록 6

## 탄상양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

1. 상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 기독교 상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당신 자신이 얼마나 상담에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전혀 자신이 없다				적당히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4. 당신의 상담 역량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전혀 자신이 없다				적당히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5. 당신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 상담에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전혀 유능하지 않다				적당히 유능하다				매우 유능하다	



6. 당신의 기독 상담 역량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전혀					적당히				매우
자신이 없다					자신있다				자신있다

## 부록 7

## 수정된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상담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점수의 높고 낮음에 신경쓰지 마시고 솔직하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통					많이

2. 기독교 상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통					많이

3.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통					많이

4.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통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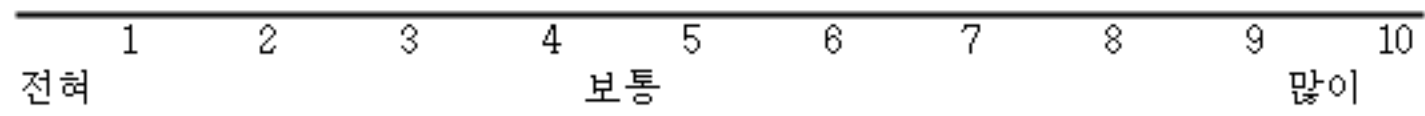
5. 감정 표현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통					많이

6. 자기 개방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통					많이

7. 직면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록 8

## 의사 소통 능력 검사

다음 다섯 개 진술문을 잘 읽고 질문에 대한 각 반응이 매우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고’, 약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중’,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에 표시하십시오.

진술 1 : “우리 부모님은 내가 밤에 나다니도록 두질 않아. 내가 그런 아이들이랑 어울리면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거지.”

## 반응 1

내 용	저	중	고
가. 너 무슨 일 저질렀구나? 부모님이 너를 믿지 못하게 만든...			
나. 부모님이 네 친구들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 거야. 실수는 네가 한 짓에 대해 부모님께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지.			
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지			
라.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니 속상한 게로구나. 부모님은 네 판단을 믿지 못하셔서 그러는 걸 거야.			

진술 2 : “그런 속물들은 내게 말하지... 자기네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항상 나보다 잘났다고... 누가 지네들 필요하다고 했나.”

## 반응 2

내 용	저	중	고
가. 뭐 그런일로 뽀루통 해 있니? 다른 사람을 찾아 보면 되지.			
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들과 잘 안 어울린다는 것이 너를 속상하게 하는구나			
다. 그들과 한 번 어울려 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라. 나라면 그런 사람들이랑 가능한 상대도 안 할거야.			

진술 3 : “내 성적은 형편없어. 우리 부모님은 한달 동안 두고 봤다가 학원도 모두 끊어 버리시겠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 반응 3

내 용	저	중	고
가. 그런 상황이 네 기분을 망쳐버려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만드는데.			
나. 걱정하지마. 언제나 나쁜 일은 있게 마련이니까.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마 모든 일이 씹씹하게 느껴질 거야.			
라. 네 자신이 불쌍하다는 느낌을 버려. 아무 도움도 안될 테니			

진술 4 : “나는 운동을 잘 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편이거든. 그런데 탁구조차 잘 안되니 창피해 죽겠어.”

## 반응 4

내 용	저	중	고
가. 때로 너는 탁구를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는구나.			
나. 네가 최선을 다 했을 때도 탁구 하나 잘하기도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다. 운동을 그만두지 그러니?			
라. 탁구를 잘 해보려고 뭐 시도한 거 있어?			

진술 5 : “나한테 새 친구가 생겼거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개네들이 머리랑 옷차림새가 이상하다고 좋아하질 않아. 개네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 반응 5

내 용	저	중	고
가. 너희 부모님이 그 친구들을 좋지 않게 보도록 네가 뭐 한짓 있니?			
나. 너희 부모님이랑 함께 가서 새 친구들을 찾아 보지 그래?			
다. 네가 선택한 새 친구들을 부모님이 믿지 못한다는 느낌이구나			
라. 빨리 가서 어떤 식으로든 친구로 만들어 버리려무나.			

(정답)

진술 1 : 가-저 / 나-저 / 다-중 / 라-중

진술 2 : 가-저 / 나-고 / 다-중 / 라-저

진술 3 : 가-고 / 나-저 / 다-중 / 라-저

진술 4 : 가-저 / 나-고 / 다-저 / 라-저

진술 5 : 가-중 / 나-저 / 다-고 / 라-저

## 부록 9

## 평신도 상담자 훈련 전체 평가서

10회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담자 훈련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다음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이번 훈련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이 배운 교훈 중 상담자가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① 아주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4. 훈련자(목사님)의 프로그램 훈련 및 시범에 대해서  
 ① 아주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5. 강의 전달에 대해서  
 ① 아주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6. 가장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도움이 안 된 점은?
8.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 부록 10

## 상담 신청서

날짜	년	월	일	이름	
----	---	---	---	----	--

당신을 돕기 위해서는 당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질문에 진솔하게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래에 적힌 당신의 대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1. 당신의 주소 : \_\_\_\_\_

전화 : \_\_\_\_\_ H. P : \_\_\_\_\_

나이 : \_\_\_\_\_ 직업 : \_\_\_\_\_ 학교 : \_\_\_\_\_

2. 당신이 상담하고 싶은 관심이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가. \_\_\_\_\_

나. \_\_\_\_\_

3. 위에 적은 당신의 문제나 관심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시작했는지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보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5. 가족 사항

아버지 : \_\_\_\_\_ 어머니 : \_\_\_\_\_ 형제자매 : \_\_\_\_\_ 남 여 중 짝



6. 당신의 가족에 대해 특기하고 싶은 사항 :

7. 당신의 지난날의 꿈은 무엇입니까? \_\_\_\_\_

8.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_\_\_\_\_

## 부록 11

## 상담 회기 요약(상담자)

상담 회기 # : \_\_\_\_\_ 회      내담자 : \_\_\_\_\_  
 날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상담자 : \_\_\_\_\_

1. 이번 면담 중에 내담자가 내놓은 주 '관심'이 되는 내용
  
  
  
  
  
2. 이번 면담 중에 이 내담자에 실시한 '훈련'
  
  
  
  
  
3. 다른 기록 해 두고 싶은 점 (예 : 내담자에게 준 과제, 내담자의 태도, 내담자와의 약속, 연락할 일 등)
  
  
  
  
  
4. 기타 사항

## 참 고 문 헌

### 1. 국내 서적

- 고병인. 목회와 상담. 서울: 도서 출판 예인, 1996.
-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연사, 1990.
- 김광은.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사관 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1992.
- 김광일 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정신 건강 연구집 1집. 서울: 한양대학교 정신 건강 연구소, 1983.
- 김만풍. “전인 치유에 있어서 목회 상담의 역할.”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 김성희. “집단 상담에서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제1차 집단 상담 workshop. 대구: 한국 집단 상담학회, 1999.
- 김영란. “상담 단계별 상담자 공감과 내담자 체험 및 상담성과와의 관계.” 박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 김인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서울: 사람과 사람, 1997.
- 김진욱. “집단 상담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제1차 집단 상담 workshop. 대구: 한국 집단 상담학회, 1999.
- 김창대. “상담 과학의 문화적 맥락.” 카운슬러 협회보. vol. 22, 1994.
- 문동환. 아리랑 고개의 교육. 서울: 신학 연구소, 1985.
- 박경애. 인지. 정서. 행동 치료. 서울: 학지사, 1998.
- 박종호.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사 소통의 차이: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 연구 제6호, 1989.
- 박숙자. “가족 관계의 변화.” 한국 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 한국 사회 연구회 편. 서울: 사회 문화 연구소, 1997.
- 반피득. 목회 상담. 3판;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 설기문. “집단 상담에서 저항과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집단 상담 연구 제2호,

- 1999.
- 손수현. “목회 상담에 있어서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99.
- 송성자. “한국 가족 문제와 가족 치료.” 가족 치료 총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편. 서울: 동인, 1999.
- 신경일.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엄예선. “가족들의 위기들과 가정 사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안, 1997.
- 오성춘. 목회 상담학.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 오영희.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제7권 제1호, 1995.
- 윤태림.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0.
- 이관용, 김순화. “대학에서의 동료 카운슬링.” 서울대 학생 생활 연구소, 학생 연구 19(1), 1983.
- 이광규.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이금만. 발달 심리와 신앙 교육.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2000.
- 이수용, 문길린. “대학생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료 집단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지도 상담, vol. 14, 1990.
- 이장호. 상담 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82.
- \_\_\_\_\_. 금명자. 상담 연습 교본. 서울: 법문사, 1992.
- 이형득 퇴임 기념집 간행 위원회 편. 집단 상담 프로그램. 대구: 한국 발달 상담 연구소 출판부, 1999.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편. 가족 치료 총론. 서울: 도서 출판 동인, 1999.
-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 역동 상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vol. 11. no. 2, 1999.
- 전종국. “집단 상담에서 “지금-여기” 개입의 정당화 및 적용.” 집단 상담 연구 창간호, 1998.
- 정동섭. “교회 안의 성인 아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목회와 신학, 1999년 7월호.

- . “역기능 가정의 성인 아이.” 가정 사역 연구 창간호, 1995.
- 정태기. 위기 목회 상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 국민 일보사, 1997.
- .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1998.
- . 나는 치유하는 목회자인가?.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2000.
- 조혜정. “전통적 경험 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 양식의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편. 서울: 고려원, 1982.
- 추부길. “가정의 달에 위기의 가정을 생각한다.” 가정과 상담, 1999년 5월호.
- 추석호. “의사 소통 기술 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대구: 한국 발달 상담 연구소 출판부, 1999.
- . “한국인의 심리 특성.” 현대 심리학의 이해. 한국 심리학회 편. 서울: 학문사, 1997.
- 최상진, 김기범. “한국 문화적 심리 치료 접근으로서의 심정 치료.”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제11권 제2호, 1999.
- .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의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999.
- , 한규석. “한국인의 선호 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998)
- 최선화. “세대간 가족 치료 모델.” 가족 치료 총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편. 서울: 도서 출판 동인, 1999.
- 최희범. “평신도 신학의 조명.” 신학과 선교. 제9집, 1984.
- 황의영. 목회 상담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2. 번역 서적

- Balswick, Jack O. and Judith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 Banner, David G. 전략적 목회 상담학. 전요섭 역. 서울: 은혜 출판사, 1995.
- Brister, C. W.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오성춘 역. 서울: 홍성사, 1989.

- Collins, Gary R.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_\_\_\_\_. 크리스찬 카운셀링. 피현희,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 1984.
- \_\_\_\_\_. 창의적 상담 접근법.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95.
- \_\_\_\_\_.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96.
- Corey, Gerald. 상담학 개론. 오성춘 역.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0.
- Covey, Stephen R.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1998.
- Crabb, Larry. 격려를 통한 상담. 오현미, 이용복 공역. 서울: 도서 출판 나침반, 1986.
- \_\_\_\_\_. 기독교 상담 심리학. 오현미 역. 서울: 나침반, 1993.
- \_\_\_\_\_. 성경적 상담학 개론. 전요섭 역.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5.
- \_\_\_\_\_. 당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 1999.
- Egan, Gerard. 유능한 상담자. 제석봉 외 역. 서울: 학지사, 1992.
- Gray, John.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울: 친구, 1995.
- Hiltner, Seward. 목회 카운셀링. 마경일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6.
- Hoekendijk, J. C. 흠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1.
- Hybels, Bill. 네트워크 은사 배치 사역. 1997.
- Kraemer, Handric.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4.
- Murray, John. 뉴 인터내셔널 로마서(하).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 Nouwen, Henri J. M. 영적 발돋움.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1992.
- \_\_\_\_\_.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 Patton, John.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역. 서울: 은성 출판사, 2000.
- Peterson, Eugene H.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1999.
- Sell, Charles M. 가정 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Sledge, Tim. 가족 치유 · 마음 치유. 정동섭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6.
- Stevens,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7.
- Tan, Siang-Yang. 평신도 상담자. 편집부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9.

### 3. 외국 서적

Allen, D. A. "Peer Counseling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merican College

- Health Association Journal 21. 1973.
- Becker, W. W. "The Paraprofessional Counselor in the Church: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6, no. 2 (1987).
- Bergin, A. E. "Briefly Noted-Book Review of J. Roland Fleck and John D. Carter, eds., Psychology and Christianity: Integrative Readings." Contemporary Psychology 27, 1982.
- Bodde, D. China's Cultural Tra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7.
- Carkhuff, R. R. "Differential Functioning of Lay and Professional Help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15, 1968.
- . The Art of Helping. Amhers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1987.
- Collins, G. T. "Lay Counseling Within the Local Church." Leadership 1, 1980.
- Daintier, K.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1997.
- Durlak, J. A.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ara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86, 1979.
- Frank, J. D. Persuasion and Healing. New York: Schockenbooks, 1974.
- Frankl, Viktor E.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Books, 1974.
-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Harre, R. and Gillett, G.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1994.
- Hattid, A., C. F. Sharpley, and H. J. Rogers.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95 (1984)
- Haugk, Kenneth C. Christian Caregiving-a Way of Lif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Jüng, C. 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trans. Dell and Baynes. New York: Harcourt Brace Co., 1963.
- Kim, Kwang Il. "Seventy Battreed Wives: Clinical Manifestations and Problems in

-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iatries, 8, 4, 1994.
- Kosek, Robert B. "The Contribution of Object Relations Theory in Pastoral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50, no. 4 (Winter 1996).
- Maslow, A. 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68.
- Nicholi, Armand M. "The Fractured Family: Following It into the Future." Christianity Today (May 1979).
- Padovani, Martin H. Healing Wounded Emotions. Overcoming Life's Hurts. Mystic: Twenty-third, 1993.
- Patton, John, "Pastoral Counseling."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Rodney J. H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Peck, M. Scott. The Road Less Traveled. New York: Touchstone, 1978.
- Redmond, M. V. "The Functions of Empathy(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 1989.
- Rosenblatt, A. and J. Mayer. "Objectionable Supervision Styles: Student's View", Social Work 18 (1975).
- Sachonff, I. S. High School Peer Resource Programs: A Director's Perspective. San Francisco: Author, 1984.
- Sanford, John A. Healing and Wholeness. New York: Paulist Press , 1977.
- Schaff, Philip. History of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Eerdman, 1950.
- Solle, Dorothy. Suffering. trans. Everett R. Kali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 Sue, D. W. "Culture-specific Strategies in Counseling: a Conceptual Frame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6), 1990.
- Sue, S. and N. Zane. "The Role of Culture and Cultural Techniques in Psychotherapy: a Critique and Reformulation." American Psychologist 42 (1987).
- Tan, S. Y. "Lay Counseling : The Local Church." CAPS Bulletin 7, no. 1 (1981).



- \_\_\_\_\_. "Training Lay Christian Counselors: A Basic Program and Some Preliminary Data."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6, no. 2 (1987).
- Tindall, A. J. & H. D. Gray. Peer Counseling-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2nd ed.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1985.
- Wright, Norman.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Eugen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1977.

## VITA OF SOO MYUNG SHIM

###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Han Mil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 Personal Data

Date of Birth : September 1, 1957.

Marital & Family Status : Married to Lee, Young Ok with two children

Home Address : 372-87, Hwagok-7 dong, Kangseo-Ku, Seoul,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 1990

### Education

B.A. : An Yang University, Kyung Gy Do, Korea, 1986

M. Div. :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91

M. Ed. :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1993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1

### Clinical Training:

1990-1992      Completion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CPE) Graduate  
School of Korea with Theological Education at the Covenant  
Bible Seminary

1992/6          Completion of Family Counseling program(1 month) in  
Washington Tacoma & Pierce County

1992-1994      Completion of Group Therapy Professional Program(500  
hours.) in Growth Counseling Institute, Seoul, Korea (Dr.

Lee, Jong-Hun)

1994-1996, 1998-2000

Completion of Professional Counseling & Internship Program  
(1200 hours.) in Korea Christian Institute of Counseling  
Center & Psychotherapy, Seoul, Korea (Dr. Shim,  
Sang-Kwon, AAPC Diplomate)

1999/6

Clinical Counseling Course in Clinebell Institute, CA. (1  
month)

Personal Experience:

1990-present Senior Pastor

of Han Mil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999-2000 Lecturer

of An Yang University & Graduate School, Seoul, Korea.

1998-present Lecturer

of Hans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Koonpo, Korea.

1999-present Lecture

of Christian Family Ministry Institute and Academy,  
Kyung Gy Do, Korea.

2001-present

Director & Professor of Korea Family Ministry Resources,  
Seoul, Korea.

Current Status:

Membership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 Psychotherapy Association

Membership i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Membership in Korean Group Counseling Association

Commissioned for Youth Counseling from the Court of Family Affairs in  
Seoul